

E01-2010-02

농업·농촌경제동향

2010 여름

특별주제

1. 종자산업 동향과 종자기업 육성 방안
2. 국내 오리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3. 천일염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 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발간물정보/정기간행물/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관측기획팀

(김배성 bbskim@krei.re.kr/김재한 jhkim74@krei.re.kr/ 박미성 mspark@krei.re.kr/
장도환 zzangdh@krei.re.kr/김말징 kimmarljin@krei.re.kr)

연락처: 02-3299-4380 / 팩스: 02-964-5631

목 차

I. 국내경제 동향

1. 경제성장	1
2. 고용	3
3. 소비	4
4. 물가	6
5. 금융·환율	10

II. 농촌경제 동향

1. 농촌물가	13
2. 농가교역조건	19
3. 국제곡물 조기경보지수	21
4. 농림어업 취업자	24
5. 농수산물식품 수출입	25

III.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

1. 곡물	31
2. 채소	36
3. 과일	58
4. 과채	69
5. 축산	78

특별 주제

1. 종자산업 동향과 종자기업 육성 방안	91
2. 국내 오리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111
3. 천일염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136

【요약】

I. 국내경제 동향

- 2010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대비 7.2% 증가
- 2010년 2/4분기 민간소비는 내구재가 감소하였으나 비내구재, 준내구재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
- 2010년 2/4분기 총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기계류 등 대부분 재화수출이 늘어 전년 동기대비 13.9% 증가
- 2009년 2/4분기 총수입은 기계류, 금속제품, 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19.0% 증가
- 2010년 6월 취업자는 24,170천명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 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세 지속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전년 동월 대비 31만4천명(1.8%) 증가
- 2010년 5월 중 소매판매는 준내구재, 내구재, 비내구재 모두 호조를 보여 전월 대비 1.1% 증가, 전년 동월대비 3.6% 증가
- 2010년 1/4분기 가구당 월 평균 명목소득은 372만 9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3% 증가, 실질로는 4.4% 증가
- '10년도 2/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115.6으로 전분기 대비 0.9% 상승,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
- '10년도 2/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14.9로 전분기 대비 1.6% 상승, 전년 동기 대비 4.2% 상승

- 2010년 1/4분기 협의통화(M1, 평잔)는 전년 동기대비 14.5% 증가하였으며, 광의통화(M2, 평잔)는 전년 동기대비 9.4% 증가. 2010년 5월중 협의통화(M1, 평잔)는 수시입출식예금이 월중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해 전년 동월대비 10.9% 증가
- 6월말 원/달러 환율은 전월말 종가(1,203원)대비 16원 상승한 1,219원으로 마감

Ⅱ. 농촌경제 동향

- 2010년 2/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2.8로 전년 동기대비 0.6%, 전분기대비 2.0% 하락
- 2010년 2/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1.9로 전년 동기대비 0.6%, 전분기대비 1.2% 상승
- 2/4분기 농산물 도매가격지수는 배추, 무, 마늘(난지), 양파 등 채소류를 중심으로 지난 1/4분기보다 크게 상승하여 강세를 보인 반면, 쌀, 국화 등은 하락
- 2010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4.8로 전년 동월보다 4.6% 상승하였으며, 5월 보다는 0.3% 하락
- 2010년 2/4분기 농가교역조건(패리티 지수)은 84.3으로 전년 동기대비 1.2%, 전분기대비 3.2% 악화
- 2010. 6월말 기준 곡물부문 조기경보지수(1.40)는 전월과 동일한 관심 수준을 유지
- 2010년 6월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1,820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6% 감소하였으나, 전월대비 4.0% 늘어 증가세

- 2010년 1~6월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총 17.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2.2% 증가함. 농림축산물 중 농산물 수출액은 15.9억 달러로 채소류 외에 과실류와 화훼류 등의 전반적인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21.4% 증가
- 2010년 1~6월 농림축산물의 수입액은 총 109.9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3.6% 증가함. 농림축산물 중 농산물은 곡류 등의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17.8% 증가. 축산물은 쇠고기 등 육류 수입의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22.5% 증가

I. 국내경제 동향 1)

1. 경제성장

- 2010년 2/4분기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대비 7.2% 증가
 - 경제활동별로는 농림어업과 건설업이 부진하였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세 지속
 - 지출 측면에서는 건설투자가 감소하였으나 설비투자와 재화수출이 전분기에 이어 높은 성장세 지속
 - 내수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호조세로 인해 전년 동기대비 9.3% 증가
- 2010년 2/4분기 민간소비는 내구재가 감소하였으나 비내구재, 준내구재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
- 2010년 2/4분기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투자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29.0% 증가
- 2010년 2/4분기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설이 크게 감소하였고, 토목건설도 부진하여 전년 동기대비 2.7% 감소
- 2010년 2/4분기 총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기계류 등 대부분 재화수출이 늘어 전년 동기대비 13.9% 증가
- 2010년 2/4분기 총수입은 기계류, 금속제품, 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19.0% 증가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바성 연구위원(bbskim@krei.re.kr), 장도환 연구원(zzangdh@krei.re.kr)이 작성하였음.

【 경제성장률 추이(2005년 연쇄가격 기준) 】

단위: %(전년동기대비)

	2008	2009p					2010p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G D P 성장률	2.3	0.2	△4.3	△2.2	1.0	6.0	8.1	7.2
최종 소비지출	2.0	1.3	△2.0	0.7	1.7	4.7	5.7	3.6
(민 간)	1.3	0.2	△4.4	△1.0	0.7	5.8	6.3	3.7
총고정자본형성	△1.9	△0.2	△7.4	△2.3	0.4	7.1	11.4	6.1
(건 설)	△2.8	4.4	2.8	5.1	4.4	5.0	2.3	△2.7
(설 비)	△1.0	△9.1	△23.1	△17.3	△7.0	13.3	29.9	29.0
총 수 출	6.6	△0.8	△10.7	△3.4	1.0	9.8	16.6	13.9
총 수 입	4.4	△8.2	△18.8	△13.3	△7.7	8.7	21.0	19.0

주: 2009p, 2010p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 2010년 2/4분기 농림어업은 전년 동기대비 2.3% 감소하였으며, 제조업은 일반 기계, 금속제품, 자동차 등 수출 관련업종의 호조세로 인해 전년 동기대비 18.0% 증가
- 2010년 2/4분기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0.5% 감소하였고, 서비스업은 금융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이 부진하였으나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이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호조세를 보여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

【 경제활동별 성장률 추이(2005년 연쇄가격기준) 】

단위: %(전년동기대비)

	2008	2009p					2010p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전 산 업	2.3	0.2	△4.3	△2.2	1.0	6.0	8.1	7.2
농 립 어 업	5.6	1.6	1.5	△1.3	3.3	2.8	△1.9	△2.3
제 조 업	2.9	△1.6	△13.6	△7.2	1.7	13.0	20.7	18.0
건 설 업	△2.5	1.9	0.0	3.2	0.3	3.3	1.5	△0.5
서 비 스 업	2.8	1.0	△0.4	0.3	0.9	3.0	4.4	3.7

주: 2009p, 2010p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2. 고용

- 2010년 2/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하였으며 취업자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 실업률(계절조정)은 3.4%로 전년 동기 3.9%보다 0.5%p 감소, 전 분기보다는 0.9%p 감소
- 2010년 6월 취업자는 24,170천명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 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세 지속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전년 동월 대비 31만4천명 증가
- 6월 실업률(계절조정)은 3.5%로 전년 동월보다 0.4%p 감소, 전월보다는 0.3%p 증가
- 6월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제조업(18만1천명), 보건 및 사회복지업(17만5천명) 등은 증가한 반면, 공공행정(△14만1천명), 숙박 음식점업(△7만4천명), 농림어업(△39천명)은 감소

【 고 용 활 동 】

단위: 천명, %

	2008	2009					2010		전년 동기비 증감률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경제활동 인구	24,347	24,394	23,812	24,680	24,637	24,448	24,166	25,038	1.5
(경제활동참가율)	61.5	60.9	59.7	61.7	61.3	60.7	59.8	61.8	0.2
취 업 자	23,577	23,506	22,904	23,737	23,751	23,631	23,037	24,170	1.8
· 농 림 어 업	1,686	1,648	1,398	1,817	1,799	1,579	1,235	1,733	△4.6
· 광 공 업	3,985	3,859	3,872	3,865	3,815	3,885	3,934	4,035	4.4
(제 조 업)	3,963	3,837	3,850	3,843	3,791	3,862	3,911	4,015	4.5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17,906	17,999	17,634	18,055	18,138	18,167	17,868	18,402	1.9
(건 설 업)	1,812	1,720	1,705	1,772	1,699	1,704	1,644	1,816	2.5
실 업 자	769	889	908	943	886	817	1,130	868	△8.0
실업률(계절조정)			3.5	3.9	3.7	3.6	4.3	3.4	

자료: 통계청

3. 소비

- 2010년 1/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대비 0.7% 증가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
- 2010년 5월 중 소매판매는 준내구재, 내구재, 비내구재 모두 호조를 보여 전월 대비 1.1% 증가, 전년 동월대비 3.6% 증가
- 전월대비로 의복 등 준내구재(3.3%)가 높은 호조를 보인 가운데 가전제품 등 내구재(1.6%) 및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9%) 모두 증가
 - 전년 동월대비 승용차(△8.8%)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구재 판매가 증가세를 지속하였고, 준내구재(7.4%)와 비내구재(2.7%)도 증가
- 6월 소매판매는 유통업·취발유 등의 속보지표 및 민간 소비여력 회복세, 소비 심리 호조 등으로 전월 대비 증가세 지속 전망

【 소비 동향 】

단위: %(전년동기대비)

	2008	2009					2010p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5월
소매판매	1.1	2.6	△4.7	1.5	2.8	10.8	9.9	3.6
(내 구 재)1	1.6	8.1	△11.9	5.7	7.9	33.9	29.4	1.8
(준내구재)2	△3.0	0.3	△1.5	△0.6	△0.7	3.4	2.7	7.4
(비내구재)3	1.4	1.2	△1.4	0.5	1.9	4.1	3.3	2.7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자료: 기획재정부

- 2010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72만 9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3% 증가 (실질로는 4.4% 증가)
 - 경상소득은 7.1% 증가, 비경상소득은 9.6% 증가
 - 근로소득(4.9%), 사업소득(12.4%), 이전소득(13.0%)은 증가한 반면, 이자소득 감소로 재산소득(△15.2%)은 감소
- 2010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34만 2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5% 증가(실질로는 7.1% 증가)
 - 가정용품·가사서비스(17.8%), 교통(17.0%), 오락·문화(18.3%) 등 증가

【 전가구(2인이상) 가계수지 변화추이 】

단위: %(전년동기대비)

	2008					2009					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
소득	6.1	6.5	6.8	7.1	4.0	1.5	0.8	△0.1	△0.7	4.9	7.3
소비 지출	4.9	6.3	6.0	4.8	2.5	1.9	△3.5	1.4	2.7	7.3	9.5
(식료품)	7.5	5.8	8.8	7.7	7.7	△0.1	△3.5	1.2	△3.2	△0.2	4.5
(교 육)	12.7	10.1	15.6	11.2	14.8	7.2	3.9	4.4	6.3	5.9	4.9

자료: 통계청

4. 물가

- '10년도 2/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115.6으로 전분기 대비 0.9% 상승,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
-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5.5로 전월대비 0.2% 하락함으로써 2009년 11월의 0.2% 상승 이후 8개월 만에 하락
 - 상품은 전월대비 0.4% 하락, 전년 동월대비 3.8% 상승하였으며, 농축수산물은 전월과 비교하여 농산물과 수산물이 내려 3.1% 하락, 전년 동월대비 6.3% 상승 하였음. 공업제품은 전월대비 0.3%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대비로는 석유류 등이 올라 3.1% 상승
 - 서비스는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대비 1.9% 각각 상승

【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2005년=100) 】

	2008	2009					2010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총 지 수	109.7 (4.7)	112.8 (2.8)	111.6 (3.9)	112.7 (2.8)	113.3 (2.0)	113.5 (2.4)	114.6 (2.7)	115.6 (2.6)
상품	109.9 (6.2)	113.6 (3.3)	111.9 (4.9)	113.6 (3.4)	114.3 (1.7)	114.4 (3.3)	116.2 (3.8)	117.9 (3.8)
농축수산물	102.3 (0.5)	108.9 (6.4)	109.2 (7.2)	110.8 (9.9)	108.7 (4.9)	106.8 (3.9)	113.1 (3.6)	116.5 (5.1)
공업 제품	112.1 (7.8)	114.9 (2.5)	112.7 (4.4)	114.4 (1.7)	116 (1.0)	116.5 (3.1)	117.1 (3.9)	118.3 (3.4)
서비스	109.6 (3.7)	112.2 (2.4)	111.4 (3.3)	112 (2.3)	112.6 (2.1)	112.9 (1.9)	113.6 (2.0)	114.1 (1.9)
집 세	104.5 (2.3)	106.2 (1.6)	105.7 (2.1)	105.9 (1.6)	106.3 (1.3)	106.7 (1.1)	107.2 (1.4)	107.8 (1.8)
공공서비스	109.3 (2.4)	111.4 (1.9)	110.6 (1.9)	111 (1.6)	111.9 (2.3)	112.1 (1.9)	112.5 (1.7)	112.4 (1.3)
개인서비스	111.2 (4.7)	114.3 (2.8)	113.3 (4.1)	114.3 (2.9)	114.7 (2.2)	115 (2.0)	115.9 (2.3)	116.6 (2.0)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10년도 2/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14.9로 전분기 대비 1.6% 상승, 전년 동기 대비 4.2% 상승
-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4.8로 전월대비 0.3% 하락, 전년 동월대비 4.6% 상승,
 - 서비스가 보합을 보인 가운데, 농림수산품은 하락폭이 커지고 공산품은 석유제품, 1차금속제품을 중심으로 내려 전월대비 하락
- 6월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110.5로 채소, 과일, 수산식품 등이 하락하여 전월대비 6.3% 하락, 전년 동월대비 3.6% 상승
 - 전년 동월대비로 살펴보면 고구마를 제외한 채소류 전체는 상승하였고 쌀, 보리, 계란 등은 하락
- 6월 공산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16.2로 석유제품, 1차금속제품이 내려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 동월대비 5.6% 상승,
 - 서비스는 운수, 전문서비스는 하락하였으나 금융, 리스및임대가 올라 전월대비 보합

【 부문별 생산자물가지수(2005년=100) 】

	2008	2009					2010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총 지 수	111.1 (8.6)	110.9 (△0.2)	110.2 (4.2)	110.3 (△1.0)	111.5 (△3.2)	111.4 (△0.5)	113.1 (2.6)	114.9 (4.2)
농림수산물	101.3 (1.1)	110.1 (8.7)	115.2 (12.5)	114.3 (15.0)	109.1 (8.8)	101.7 (△1.4)	115.5 (0.3)	116.8 (2.2)
광 산 품	115.1 (9.7)	126.4 (9.8)	121.5 (10.4)	123.3 (6.8)	125.2 (8.4)	135.5 (13.4)	141.1 (16.1)	140.5 (13.9)
공 산 품	113.0 (11.9)	111.2 (△1.6)	110.4 (4.6)	110.3 (△3.1)	111.9 (△5.9)	112.1 (△1.7)	113.5 (2.8)	115.9 (5.1)
전력/수도/가스	115.9 (4.2)	123.7 (6.7)	120.3 (5.2)	120.0 (4.6)	126.9 (10.1)	127.4 (6.9)	127.5 (6.0)	127.7 (6.4)
서 비 스	107.2 (2.5)	108.0 (0.7)	107.2 (1.3)	107.9 (0.8)	108.5 (△0.1)	108.4 (0.7)	109.2 (1.9)	109.6 (1.6)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10년도 2/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106.8로 전분기 대비 2.6% 상승, 전년 동기대비 1.6% 하락
- 6월 수출물가지수는 109.9로 전월대비 3.0% 상승, 전년 동월대비 1.5% 상승
 - 원화가치 하락으로 공산품과 농림수산품이 모두 상승하여 전월에 이어 상승세 지속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으로는 전월대비 1.0% 하락, 전년 동월대비 6.5% 상승
- 6월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146.3으로 전월대비 3.5% 상승, 전년 동월대비 10.0% 상승
 - 농림수산품은 전월대비 참치, 조개, 김 등이 상승하였고 오징어, 배 등이 감소

【 수출물가지수(2005년=100) 】

	2008	2009					2010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총 지 수	109.5 (21.9)	109.2 (△0.2)	115.3 (19.6)	108.6 (△0.1)	108.5 (△3.7)	104.5 (△12.9)	104.0 (△9.8)	106.8 (△1.6)
농림수산물	121.5 (25.8)	127.2 (4.6)	124.7 (15.2)	122.8 (3.4)	137.6 (8.2)	123.6 (△6.4)	124.4 (△0.3)	140.1 (14.1)
공 산 품	109.4 (21.8)	109.1 (△0.2)	115.3 (19.6)	108.5 (△0.1)	108.4 (△3.8)	104.4 (△13.0)	103.9 (△9.9)	106.6 (△1.7)
원 자 재	125.7 (33.8)	134.4 (6.9)	133.9 (24.0)	129.9 (5.7)	141.8 (6.7)	132.1 (△5.1)	132.9 (△0.8)	151.7 (16.8)
자 본 재	109.2 (20.0)	121.0 (10.8)	130.5 (34.4)	122.1 (18.0)	118.8 (11.7)	112.6 (△13.3)	107.2 (△17.9)	107.1 (△12.3)
소 비 재	93.5 (16.1)	98.5 (5.4)	107.2 (26.9)	99.5 (10.4)	96.4 (5.0)	90.7 (△15.5)	86.8 (△19.1)	87.6 (△12.0)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 '10년도 2/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144.4로 전분기 대비 4.7% 상승, 전년 동기대비 8.1% 상승
- 6월 수입물가지수는 147.6으로 주로 원화가치 하락 영향으로 인해 전월대비 2.0% 상승, 전년 동월대비 8.0% 상승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으로는 전월대비 2.1% 하락, 전년 동월대비 12.4% 상승
 - 석유, 비철금속제품이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내렸으나, 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철강1차제품 등이 올라 원자재,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모두가 전월대비 상승
- 6월 농림수산물 수입물가지수는 170.0으로 전월대비 3.7% 상승, 전년 동월대비 7.9% 상승

【 수입물가지수(2005년=100) 】

	2008	2009					2010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총 지 수	143.7 (36.2)	137.7 (△4.1)	142.3 (15.0)	133.6 (△9.5)	137.6 (△10.3)	137.2 (△8.4)	137.9 (△3.1)	144.4 (8.1)
농림수산물	160.5 (36.4)	156.6 (△2.4)	163.7 (10.1)	156.7 (△1.9)	153.2 (△5.0)	152.8 (△11.3)	157.6 (△3.8)	164.5 (5.0)
공 산 품	125.3 (27.3)	129.3 (3.2)	138.5 (27.4)	126.2 (2.6)	127.8 (△0.2)	124.6 (△11.7)	124.9 (△9.8)	128.6 (1.9)
원 자 재	191.5 (54.6)	159.2 (△16.9)	152.1 (△6.8)	152.2 (△28.1)	162.8 (△25.8)	169.8 (△1.4)	171.2 (12.6)	185.1 (21.6)
자 본 재	108.3 (23.1)	129.2 (19.3)	142.6 (51.5)	128.5 (27.8)	125.6 (21.6)	120.1 (△11.2)	116.5 (△18.3)	116.5 (△9.3)
소 비 재	118.3 (22.3)	130.5 (10.3)	138.3 (30.8)	130.0 (15.0)	128.6 (9.9)	125.0 (△9.0)	124.4 (△10.1)	126.3 (△2.9)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5. 금융·환율

- 2010년 1/4분기 협의통화(M1, 평잔)는 전년 동기대비 14.5% 증가하였으며, 광의 통화(M2, 평잔)는 전년 동기대비 9.4% 증가
- 2010년 5월중 협의통화(M1, 평잔)는 전년 동월대비 10.9% 증가
 - 수시입출식예금이 월중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
- 2010년 5월중 광의통화(M2, 평잔)는 전년 동월대비 9.3% 증가
 - CD 등 시장형 상품이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정기예적금 및 MMF의 증가 폭도 축소

【 통화지표 증감률(평균잔액기준) 】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08					2009					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
M1 ¹	△1.8	△12.4	△0.1	2.1	5.0	16.3	10.8	17.6	18.9	17.8	14.5
M2 ²	14.3	13.3	15.3	14.7	13.8	10.3	11.5	10.1	9.9	9.8	9.4
Lf ³	11.9	11.6	12.8	12.1	11.2	7.9	8.8	7.3	7.8	7.8	8.5
본원통화 ⁴	7.7	4.2	6.3	8.1	12.1	18.1	26.5	18.7	15.2	12.6	2.3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미만예수금

3. 기존의 M3가 유동성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Lf로 개칭

4. 본원통화: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2010년 6월중 금융시장 동향 중 국고채(3년)금리는 경기상승세 지속 및 물가상승 압력 증대 전망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기대 강화 등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월말경 미국 및 중국의 경제성장세 둔화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상승폭 축소
- 무담보콜금리(1일물)는 전월보다 소폭 하락하였으며, CD(91일) 금리는 전월 수준 유지
- 회사채(3년)금리는 '10년 1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6월 들어 다소 회복세를 보임.

【 금 리 동 향 】

단위: %

	2009			2010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국고채(3년)	4.47	4.32	4.24	4.29	4.19	3.94	3.77	3.70	3.75
콜 금 리 ¹	1.99	2.00	2.00	2.00	2.00	2.01	2.00	2.01	2.00
CD유통수익률(91일)	2.79	2.79	2.82	2.88	2.88	2.83	2.51	2.45	2.45
회 사 채 ²	5.60	5.43	5.35	5.40	5.32	5.02	4.69	4.48	4.65

주 1. 콜금리: 무담보콜금리(1일물)

2. 회사채: 장외3년, AA-등급

자료: 한국은행

- 6월말 원/달러 환율은 전월말 종가(1,203원)대비 16원 상승한 1,219원으로 마감
 - 헝가리 재정위기 논란, 선물환포지션 제도 도입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월초 상승하다가 동 제도 도입 발표 이후 불확실성 감소 및 중국인민은행의 위안화 환율 유연성 제고 방침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그 이후 국내외 금융규제 강화 및 세계경제회복세 둔화 우려 등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임.

- 6월말 원/엔 환율은 전월말 종가인 1,316원에서 59원 상승한 1,375원으로 마감되어 전월보다 4.5% 상승하였으며, 2009년 3월(1,394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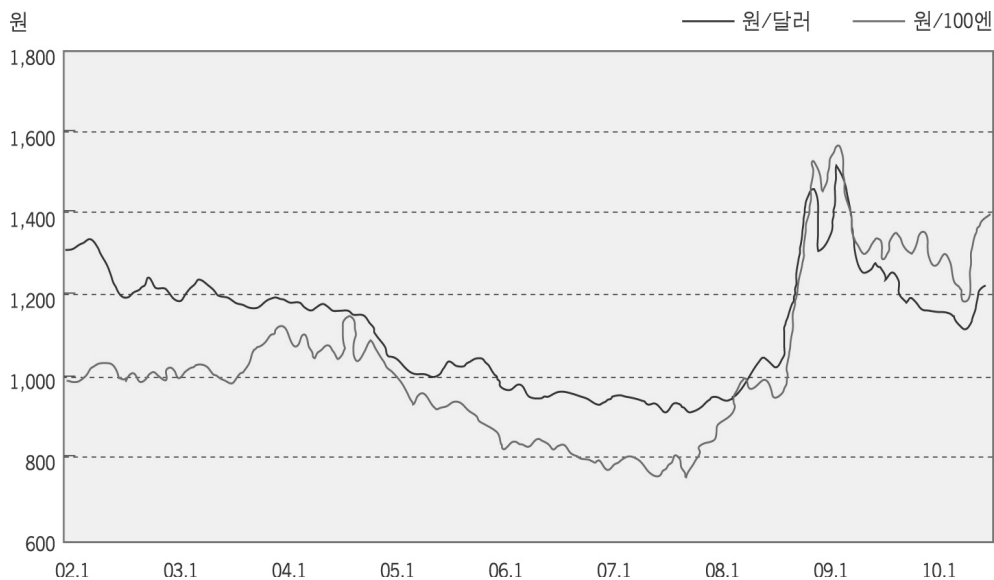
【 원화 환율 동향 】

단위: 원(기말 기준)

	2009						201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원/달러	1,230	1,250	1,178	1,184	1,161	1,159	1,157	1,159	1,129	1,107	1,203	1,219
원/100엔	1,285	1,347	1,312	1,300	1,347	1,256	1,282	1,297	1,210	1,176	1,316	1,375

자료: 외환은행

【 원화 환율 추세 】



Ⅱ. 농촌경제 동향 2)

1. 농촌물가

- 2010년 2/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2.8로 전년 동기대비 0.6%, 전분기대비 2.0% 하락함.
- 곡물은 잡곡, 두류, 서류 등은 상승하였으나, 미곡, 맥류가 하락하면서 전분기 대비 2.0% 하락함.
- 청과물은 배추, 양배추, 무, 양파 등의 채소류를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상승하였으나, 배, 딸기, 오이, 호박 등이 하락하면서 전분기대비 0.2% 하락함.
- 축산물에는 닭, 계란 등의 가격 하락으로 전분기대비 0.5% 하락함.

【 농가판매가격지수(2005년=100) 】

	2008	2009			2010		등락률(%)	
	연간	연간	1/4	2/4	1/4	2/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 비
총 지 수	99.4	101.0	102.7	103.4	104.9	102.8	△0.6	△2.0
곡 물	107.8	100.0	104.2	104.8	97.6	96.1	△8.3	△1.5
미 곡	104.4	97.7	104.5	102.3	92.3	89.6	△12.4	△2.9
맥 류	95.0	89.1	95.0	89.1	89.1	85.8	△3.7	△3.7
잡 곡	117.5	114.3	116.8	113.3	112.8	115.0	1.5	2.0
두 류	112.9	109.1	105.6	106.3	113.5	118.1	11.1	4.1
서 류	142.3	117.4	101.1	133.7	141.4	148.4	11.0	5.0
청 과 물	92.3	95.9	97.6	99.8	98.8	98.6	△1.2	△0.2
채 소	96.9	101.4	103.8	99.0	107.1	106.7	7.8	△0.4
과 실	83.1	84.9	85.3	101.2	82.3	82.5	△18.5	0.2
축 산 물	93.0	103.3	97.7	100.9	110.1	109.6	8.6	△0.5
가 축	87.0	97.4	88.6	93.8	108.0	108.3	15.5	0.3
유 란	105.6	115.5	116.4	115.8	114.7	112.5	△2.8	△1.9
기 타	115.3	122.1	136.8	122.6	149.1	129.6	5.7	△13.1
특 작	95.0	94.3	92.2	91.0	103.5	96.0	5.5	△7.2
화 훼	162.3	189.7	245.8	198.3	263.9	214.8	8.3	△18.6
부산물	119.1	108.5	111.5	112.4	101.0	91.2	△18.9	△9.7

주: 통계청

2)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배성 연구위원(bbskim@krei.re.kr), 김재환 전문연구원(jhkim74@krei.re.kr), 박미성(mspark@krei.re.kr), 승준호(jhseung@krei.re.kr), 김말징(kimmarljin@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2010년 2/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1.9로 전년 동기대비 0.6%, 전분기대비 1.2% 상승함.
- 가계용품은 피복과 가구집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류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전분기대비 1.4% 상승함.
- 농업용품은 종자, 비료는 하락하였으나 영농광열비와 가축의 가격 상승으로 전분기대비 0.8% 상승함.
- 농촌임료금은 농업노동임금의 상승으로 전분기대비 1.6% 상승함.

【 농가구입가격지수(2005년=100) 】

	2008	2009			2010		등락률(%)	
	연간	연간	1/4	2/4	1/4	2/4	전 동기비	년 비 전분기 대비
총지수	115.3	120.4	119.7	121.2	120.4	121.9	0.6	1.2
가계용품	110.7	113.9	112.3	114.1	115.6	117.2	2.7	1.4
식료품	108.9	115.6	114.2	116.8	117.4	119.9	2.7	2.1
피복	107.6	112.1	109.9	111.6	114.5	114.4	2.5	△0.1
가구집기	90.0	92.7	93.1	93.3	90.6	90.3	△3.2	△0.3
광열수도	122.1	112.8	110.1	111.6	116.1	118.2	5.9	1.8
보건의료	106.4	109.0	108.4	108.9	110.8	111.0	1.9	0.2
교육	119.9	123.4	122.1	123.8	125.0	126.6	2.3	1.3
교양오락	105.7	109.4	107.8	108.9	111.2	112.4	3.2	1.1
교통통신	109.5	108.0	104.8	107.7	109.9	110.7	2.8	0.7
기타잡비	118.2	129.2	128.8	128.1	131.2	133.8	4.4	2.0
농업용품	128.5	138.4	140.0	140.8	134.6	135.7	△3.6	0.8
종자	96.9	105.3	104.0	104.1	106.6	106.4	2.2	△0.2
비료	207.5	241.0	249.4	246.1	218.5	212.8	△13.5	△2.6
농약	104.2	120.8	116.3	122.4	124.8	124.8	2.0	0.0
농기구	114.1	119.1	119.2	119.2	120.0	120.2	0.8	0.2
영농광열비	148.7	110.6	104.6	108.6	117.2	121.7	12.1	3.8
가축	69.3	74.8	62.7	74.4	81.2	88.2	18.5	8.6
사료	155.5	179.5	190.8	186.8	164.4	164.4	△12.0	0.0
영농자재	123.3	117.6	120.9	118.4	119.9	124.1	4.8	3.5
농촌임료금	111.7	116.4	116.4	117.1	115.2	117.1	0.0	1.6
농업노동임금	113.1	119.3	117.7	119.4	121.0	124.2	4.0	2.6
도정료	107.3	110.8	112.5	112.7	105.9	102.0	△9.5	△3.7
농기계임차료	110.3	113.2	115.1	114.7	108.9	109.7	△4.4	0.7

주: 통계청

- 2/4분기 농산물 도매가격지수는 배추, 무, 마늘(난지), 양파 등 채소류를 중심으로 지난 1/4분기보다 크게 상승하여 강세를 보인 반면, 쌀, 국화 등은 하락

농산물 도매가격지수(2005년=100)

	2009		2010		등락률(%)	
	1/4	2/4	1/4	2/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쌀	105.2	102.7	87.4	84.5	△17.7	△3.3
보리(과맥)	100.3	100.8	103.6	103.5	2.7	△0.1
배추	90.4	185.1	156.5	193.2	4.3	23.4
무	74.2	74.9	82.1	158.1	111.0	92.5
고추(화건)	117.4	118.3	115.1	114.0	△3.7	△0.9
마늘(난지)	85.2	84.1	129.4	148.6	76.7	14.9
양파	216.5	141.7	126.1	179.2	26.5	42.1
사과(후지)	73.7	88.9	75.2	76.4	△14.1	1.6
배(신고)	82.2	110.0	95.8	97.2	△11.6	1.5
느타리	116.2	94.4	105.8	105.7	12.0	△0.1
참깨	94.1	94.0	112.9	116.3	23.7	3.0
국화	159.3	148.0	162.3	159.1	7.5	△2.0

주: 전국도매시장의 품목별 단위별 가격 자료를 2005년을 기준으로 지수화 하였음.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2010년 2/4분기 곡물 가격 중 쌀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17.7% 하락하였으나, 보리는 2.7% 상승
- 2010년 2/4분기 채소 중 고추(화건)가 3.7%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품목에서 전년 동기보다 크게 상승하였으며, 배추와 마늘(난지)의 경우 전년 동기보다 각각 111.0%, 76.7% 상승
- 2010년 2/4분기 과일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하락하였으나 전분기보다는 상승

- 2010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4.8로 전년 동월보다 4.6% 상승하였으며, 5월 보다는 0.3% 하락
 - 가계용품인 식료품비는 전년 동월대비 3.4%,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는 6.1% 상승
 - 농업용품인 비료는 전년 동월대비 12.5%, 사료는 5.7% 하락한 반면, 농약은 0.1% 상승, 농업용기계는 0.9% 상승
 - 서비스 부문인 운수는 전년 동월대비 1.1%, 위생서비스는 0.6% 상승한 반면, 통신은 0.9%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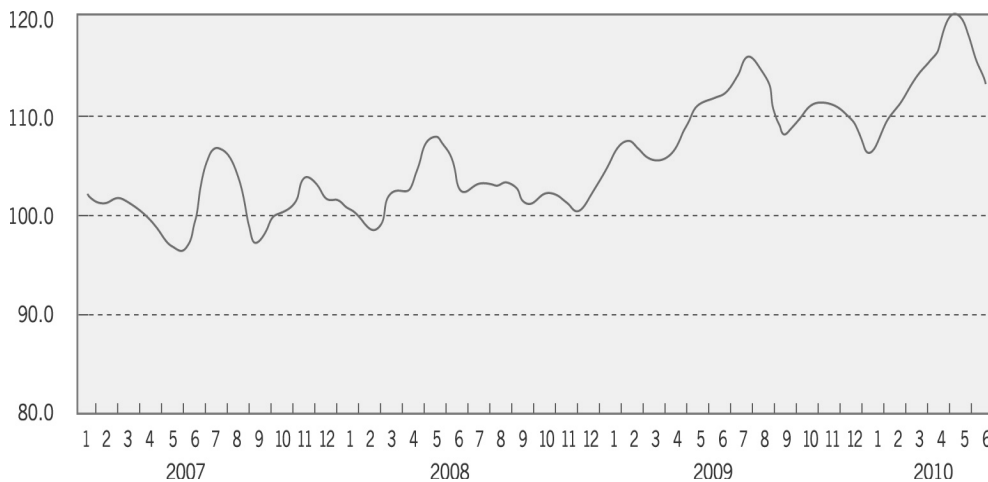
생산자 물가지수(2005년=100)

	2009		2010		등락률(%)	
	2분기	6월	2분기	6월	전년 동월대비	전월 대비
총지수	110.3	109.8	114.9	114.8	4.6	△0.3
식료품	117.6	113.9	120.7	117.8	3.4	△3.0
의복	92.8	92.8	94.0	94.2	1.5	0.2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120.0	120.4	127.7	127.7	6.1	0.0
사료	182.9	180.4	170.1	170.1	△5.7	0.5
비료	206.7	203.1	177.8	177.8	△12.5	0.0
농약	124.5	124.5	124.6	124.6	0.1	0.0
농업용기계	121.5	121.5	122.6	122.6	0.9	0.0
석유제품	127.5	132.8	149.8	148.0	11.4	△1.9
운수	113.5	114.0	115.0	115.2	1.1	△0.1
통신	98.9	98.9	98.1	98.0	△0.9	△0.1
위생서비스	97.3	96.4	97.0	97.0	0.6	0.0

자료: 한국은행

- 6월 농산물 체감물가지수³⁾는 113.2로 전년 동월대비 5.0% 상승했으나, 5월보다는 3.7% 하락
 - 저온과 일사량 부족으로 1분기에 크게 상승했던 농산물 가격은 기상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하락
 - 기상호조에 수확기가 시작되면서 감자, 양파 등 청과류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하락하였으나, 쇠고기, 돼지고기 등은 상승

【 농산물 체감물가지수 추이(2005년=100) 】



- 2010년 2/4분기 장바구니 물가지수⁴⁾는 쌀과 돼지고기, 닭고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전분기대비 상승하여 강세를 나타냄.
 - 쌀은 재고누적과 소비 부진으로 작년 동기와 전분기 대비 모두 하락
 - 채소류는 기상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과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인해 배추, 양파, 토마토, 마늘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와 전분기대비 모두 상승하여 강세를 나타냄.

3) 통계청에서 체감물가지수로 발표하는 생활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 중 주요 농축산물 28개 품목만으로 구성한 물가지수임.

4) 통계청에서 체감물가지수로 발표하는 생활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 중 주요 농축산물 9개 품목만으로 구성한 물가지수임.

【 장바구니 물가지수 추이(2005년=100) 】

	2008	2009			2010		등락률(%)	
	연간	연간	1/4	2/4	1/4	2/4	전년동기	전분기
쌀	101.3	101.6	105.0	103.2	94.5	92.2	△10.7	△2.4
쇠고기 (국산)	106.2	117.3	108.9	110.7	132.3	130.3	17.7	△1.5
돼지 고기	113.4	123.1	117.9	127.0	111.4	114.5	△9.8	2.8
닭고기	109.8	131.4	133.3	134.2	143.3	135.0	0.6	△5.8
사과	78.2	77.1	72.7	81.2	76.8	88.5	9.0	15.2
배추	89.6	101.9	75.6	139.0	123.3	181.7	30.7	47.4
양파	113.3	131.9	173.0	141.8	114.0	161.9	14.2	42.0
토마토	99.2	101.8	115.1	103.2	129.4	130.9	26.8	1.2
마늘	107.8	105.0	106.3	104.8	114.3	126.5	20.7	10.7

자료: 통계청

2. 농가교역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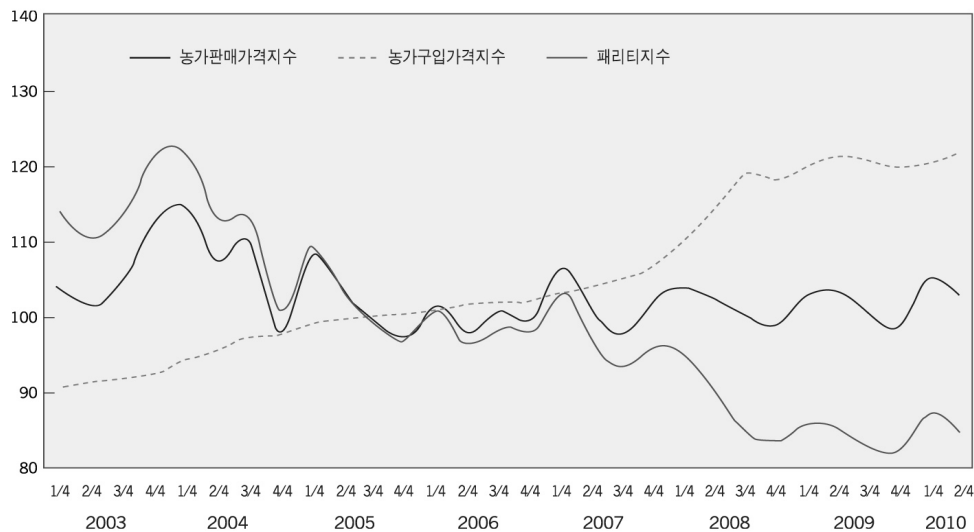
- 2010년 2/4분기 농가교역조건(패리티 지수)은 84.3으로 전년 동기대비 1.2%, 전분기대비 3.2% 악화됨.
- 농가판매가격이 전분기보다 크게 하락하고, 농가구입가격이 상승하면서 농가 교역조건은 전분기대비 악화됨.

【 농가교역조건의 변화 】

	2008	2009			2010		등락률(%)	
	연간	연간	1/4	2/4	1/4	2/4	전년 동기	전분기 대 비
농가판매가격지수(A)	99.4	101.0	102.7	103.4	104.9	102.8	△0.6	△2.0
농가구입가격지수(B)	115.3	120.4	119.7	121.2	120.4	121.9	0.6	1.2
농가교역조건(A/B*100)	86.2	83.9	85.8	85.3	87.1	84.3	△1.2	△3.2

자료: 통계청

【 농산물가지수의 변동추이 】



- 2010년 2/4분기 쌀 농가교역조건(패리티지수)은 59.8로 전년 동기대비 12.4%, 전분기보다는 4.4% 악화됨.
- 2010년 2/4분기 마늘의 농가교역조건(패리티지수)은 농가판매가격의 상승으로 전년 동기보다 16.5% 개선되었으나, 양파는 7.5% 악화됨.
- 2010년 2/4분기 토마토의 농가교역조건(패리티지수)은 농가판매가격의 상승으로 전년 동기보다 8.1% 개선되었으나, 사과는 15.7% 악화됨.
- 2010년 2/4분기 돼지 축산농가의 농가교역조건(패리티지수)은 공급과잉에 따른 농가판매가격의 하락과 농가구입가격 상승으로 전년 동기보다 18.2% 악화된 반면, 소 축산농가는 전년동기와 전분기보다 개선됨.

【 품목별 패리티지수 】

	2008	2009			2010		증감률(%)	
	연간	연간	1/4	2/4	1/4	2/4	전년 동기	전분기 대 비
쌀	76.3	65.6	70.0	68.3	62.6	59.8	△12.4	△4.4
마늘	83.4	104.3	99.4	104.0	122.8	121.3	16.5	△1.2
양파	105.6	104.5	122.4	110.8	98.0	102.5	△7.5	4.6
토마토	66.8	72.1	78.0	75.5	84.2	81.7	8.1	△3.0
사과	74.2	79.5	75.4	89.6	72.9	75.5	△15.7	3.5
소	84.3	81.1	75.0	73.1	74.5	74.6	2.0	0.1
돼지	89.2	86.8	83.6	88.1	63.0	72.0	△18.2	14.4

주: 1) 품목별 구입가격지수는 매분기 발표되는 비목별 농가구입가격지수에 각 품목별 생산비 비중을 곱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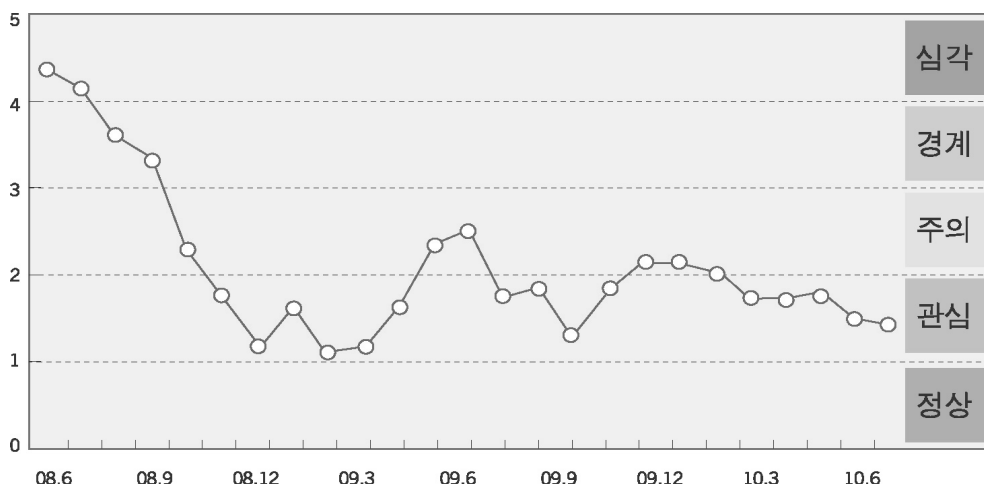
2) 품목별 농가교역조건(패리티지수)은 농가판매가격/농가구입가격×100으로 계산함.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국제곡물 조기경보지수⁵⁾

- 2010. 6월말 기준 곡물부문 조기경보지수(1.40)는 전월과 동일한 “관심” 수준을 유지하면서 하락
 - 조기경보지수: (10.1)2.03→(2)1.73→(3)1.75→(4)1.77→(5)1.50→(6)1.40

【 곡물부문 조기경보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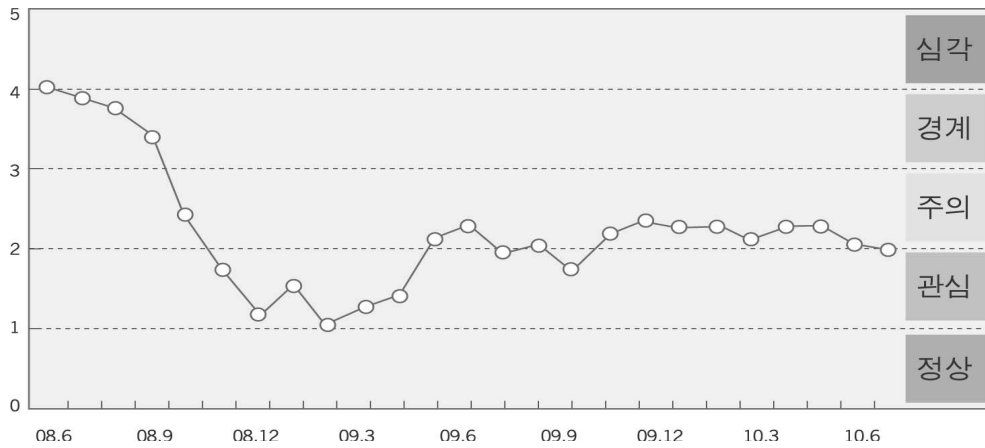
주: 해당월의 지수는 향후 6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위험수준을 나타냄.

- 국제 원유가격이 상승하여 위험신호를 보였으나, 전반적인 곡물 선물가격이 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안정신호를 보임에 따라 국제곡물 조기경보지수는 전월 보다 하락
- 2010년 6월말 기준 국제 밀 조기경보지수는 1.91로 전월 “주의” 수준에서 “관심” 수준으로 1단계 하락함.

5) 국제곡물 조기경보지수는 곡물 수입액과 수입단가를 가중 평균하여 위기 지수를 구성하고, 이를 선행하여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국제곡물 선물가격, 곡물 재고율, 국제원유 선물가격, 곡물 순매수포지션)을 설정한 후, 신호접근법(Signal Approach)을 이용하여 산출된 N/S비율(Noise-Signal Ratio)을 가중치로 사용, 선행변수들을 취합하여 만든 지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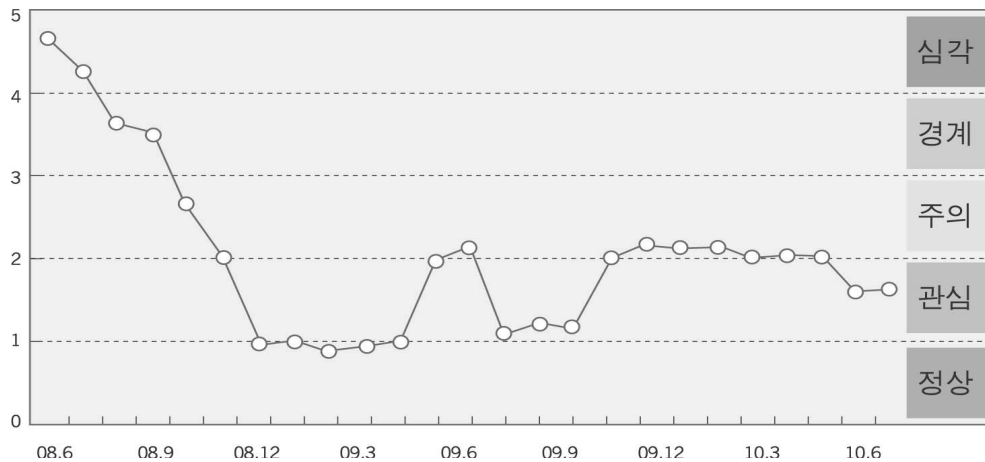
- 밀 재고율이 하락하고, 국제 원유 선물가격이 상승하였으나, 밀 선물 가격이 보다 크게 하락함에 따라 밀 EWS지수는 전월보다 0.11 하락함.

【 밀 조기경보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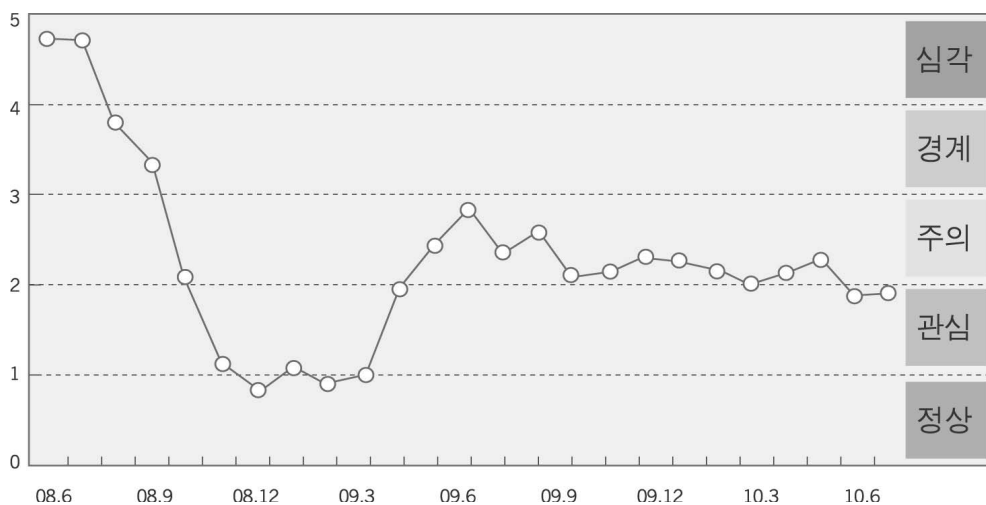
- 국제 옥수수 조기경보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관심” 수준을 유지하면서 2010년 6월 1.60을 기록함.
- 국제 원유 선물가격 상승과 옥수수 재고율이 하락하여 위험신호를 보였으나, 옥수수 선물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신호를 보여 전월 수준을 유지함.

【 옥수수 조기경보지수 】



- 2010년 6월말 기준 국제 대두 조기경보지수는 전월 수준인 1.92를 기록하여 “관심” 수준을 유지함.
- 대두 선물가격이 소폭 하락하고, 재고율은 다소 상승하여 안정신호를 보였으나 국제 원유가격 상승으로 위험신호를 보이면서 국제 대두 조기경보지수는 전월 수준을 유지함.

【 대두 조기경보지수 】



- 곡물 선물가격 지표는 밀, 옥수수, 대두가 각각 전월대비 5.7%, 4.9%, 0.2% 하락하여 안정신호
- 국제원유 선물가격은 전월대비 1.7% 상승하여 위험신호
- 곡물 재고율 지표는 밀, 옥수수 재고율의 경우 각각 전월대비 2.1%, 4.9% 하락하였으나, 대두 재고율은 1.3% 상승
- 2010년 6월말 기준 국제곡물 EWS 지수는 곡물 선물가격이 안정신호를 보이면서 전월보다 하락하였으나, 국제유가 및 일부 곡물 재고율이 위험신호를 보이고 있어 원유가격과 곡물 수급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4. 농림어업 취업자

- 2010년 6월 경제활동인구는 5월보다 0.2% 증가하였고, 전년 동월보다는 1.5% 증가

【 농림어업 취업자수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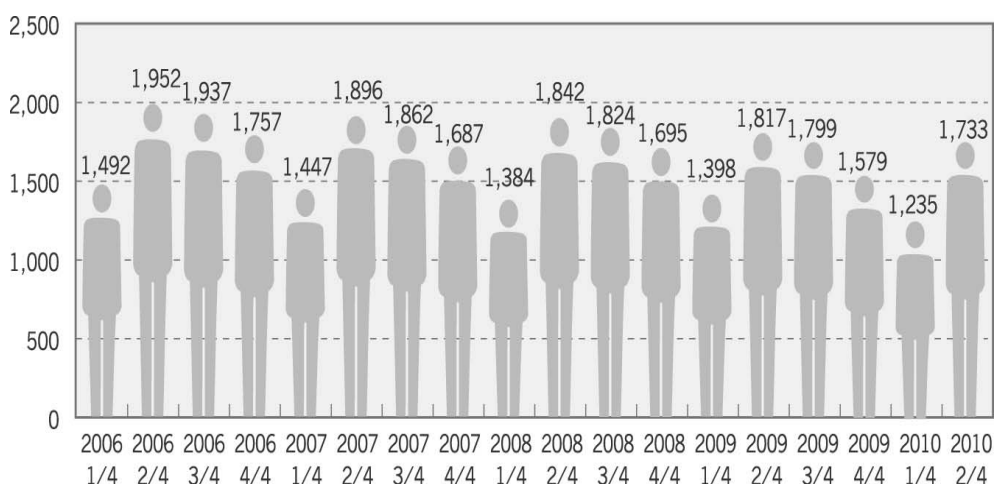
단위: 천명, %

		2009		2010		증감률	
		2/4분기	6월	2/4분기	6월	전년 동월대비	전월대비
경제활동 인구		24,680	24,927	25,038	25,158	1.5	0.2
취업 자	전산업	23,737	23,967	24,170	24,280	1.8	△0.1
	농림어업	1,817	1,858	1,733	1,820	△4.6	4.0

자료: 통계청

-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1,820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6% 감소하였으나, 전월대비 4.0% 늘어 증가세를 나타냄.

【 농림어업 취업자수 변화추이 】



출처: 통계청

5. 농수산물식품 수출입

5.1. 수출동향

- 2010년 1~6월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액은 전 세계적인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4% 증가한 25.8억 달러
- 농산물 수출액은 김치, 채소류 외에 단감, 감귤 등 과실류와 난류, 장미, 국화 등 화훼류 증가폭이 커 전년 동기대비 21.4% 증가
- 축산물 수출액은 구제역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수출이 급감하여 닭고기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대비 소폭 감소
- 수산물 수출액은 고등어, 미역, 게살 등은 감소한 반면, 참치, 오징어, 굴, 넙치, 바지락 등의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19.8% 증가

【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9	2009. 1~6	2010. 1~6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농림축산물	3,298.1	1,428.2	1,745.2	22.2
농 산 물	2,990.8	1,313.2	1,594.3	21.4
축 산 물	139.6	62.6	62.5	△0.1
임 산 물	167.7	52.5	88.4	68.3
수 산 물	1,511.2	699.5	837.8	19.8
전 체	4,809.3	2,127.7	2,582.9	21.4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품목별로는 경기회복에 따라 가금육, 화훼류 등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돼지고기는 구제역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

【 주요 품목의 수출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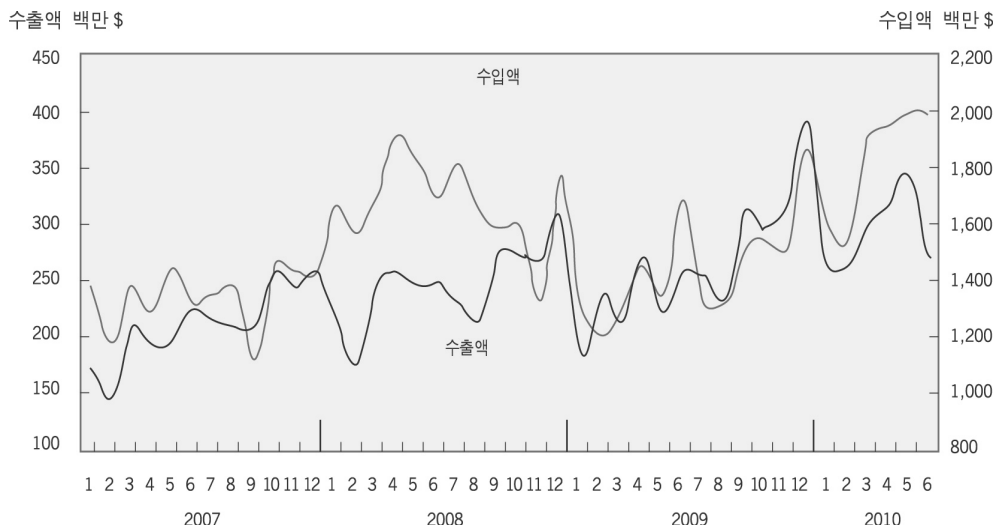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품 목	2008	2009	2009 1~3	2010 1~3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채 소	148.6	161.5	115.3	131.5	14.0
김 치	85.3	89.4	42.3	48.0	13.6
인 삼	97.2	108.9	44.0	47.9	8.8
화 훼	76.2	77.2	25.4	37.2	46.5
과 실	154.9	172.6	47.7	50.6	6.2
돼지고기	17.7	11.6	5.4	0.4	△93.0
가 금 육	12.9	18.4	7.6	12.7	65.5
산림부산물	59	66.7	18.0	32.1	78.7
가공식품	2,279.5	2,457.8	1,115.5	1,353.2	21.3
수산식품	1,448.3	1,511.2	699.5	837.8	19.8
합 계	4,379.6	4,675.3	2,120.7	2,551.3	20.3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경기 회복으로 2010년 6월 농림축산물 수출액과 수입액은 전년 동월보다 각각 4.4%, 17.9% 증가했으나, 회복속도가 둔화되면서 전월에 비해서는 각각 21.3%, 0.3% 감소

【 농림축산물 수출입 추이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5.2. 수입동향

- 2010년 1~6월 농림수산물식품 수입은 총 102.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3.8% 증가. 농산물은 곡류 등의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17.8% 증가. 축산물은 쇠고기 등 육류 수입의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22.5% 증가

【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9	2009. 1~6	2010. 1~6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농림축산물	18,346.5	8,892.4	10,989.3	23.6
농 산 물	11,753.6	5,871.1	6,917.9	17.8
축 산 물	2,485.1	1,191.1	1,458.7	22.5
임 산 물	4,107.8	1,830.2	2,612.7	42.8
수 산 물	2,894.4	1,348.1	1,683.9	24.9
전 체	21,240.9	10,240.5	12,673.3	23.8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주요 품목의 1~6월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증가한 가운데 옥수수의 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20.5%, 밀은 14.2%, 쇠고기 39.8%, 닭고기 17.8% 등 대부분의 품목이 큰 폭으로 증가

【 주요 품목의 수입액 】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2008	2009	2009.1~6	2010.1~6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옥수수	2,830	1,647	803	967	20.5
밀	1,314	986	485	554	14.2
대두	813	604	303	292	△3.5
쇠고기	1,051	862	380	531	39.8
돼지고기	876	713	376	358	△4.7
닭고기	154	135	55	65	17.8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2010년 1~6월 열대과일 수입실적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오렌지의 수입액이 138백만 달러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바나나, 포도 순으로 나타남.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2010년 6월까지 열대과일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30.6% 증가

【 열대과일 수입동향 】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2008	2009	2009.1~6	2010.1~6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오렌지	170	123	95	138	45.7
키위	57	53	30	29	△4.8
포도	110	95	70	93	32.8
파인애플	63	53	27	31	12.1
바나나	154	164	87	114	31.7
레몬	11	8	4	4	5.0
합 계	565	496	313	409	30.6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5.3. 국가별 수출입동향

가. 대중국 농산물 수출입동향

- 2010년 1~6월 중국으로의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335.7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1.1% 크게 증가

【 대중국 농림수산물 수출동향 】

단위: 천톤, 백만 달러, %

구 분	2009. 1~6		2010. 1~6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19.2	161.3	166.5	247.4	39.7	53.4
농 산 물	96.5	141.3	120.4	204.4	24.8	44.7
축 산 물	1.9	6.5	1.0	6.3	△44.1	△3.5
임 산 물	20.9	13.5	45.0	36.7	115.7	172.2
수 산 물	46.5	60.8	47.8	88.3	2.8	45.1
합 계	165.7	222.2	214.2	335.7	29.3	51.1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채소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증가한 가운데 인삼류 109.3%, 당류 98.3%, 화훼류 84.4% 등 큰 폭으로 증가

【 주요 품목의 대중국 수출액 】

단위: 백만 달러, %

품 목	2008	2009	2009 1~6월	2010 1~6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당류	58.1	58.1	22.2	44.1	98.3
면류	36.0	39.6	17.9	20.7	15.2
과자류	33.9	36.5	15.7	20.1	27.7
화훼류	23.4	14.4	5.4	10.0	84.4
인삼류	6.8	6.8	2.4	5.0	109.3
채소류	6.9	6.2	2.5	2.4	△5.1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2010년 1~6월중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수산물식품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6.8% 증가. 특히, 임산물과 수산물의 수입이 크게 증가

【 대중국 농림수산물식품 수입동향 】

단위: 천톤, 백만 달러, %

구 분	2009. 1~6		2010. 1~6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2,830.1	1,403.1	2,926.8	1,563.4	3.4	11.4
농 산 물	1,636.1	921.6	1,460.8	936.3	△10.7	1.6
축 산 물	8.7	21.7	8.7	25.1	0.0	15.5
임 산 물	1,185.4	459.8	1,457.3	602.0	22.9	30.9
수 산 물	416.3	411.9	518.8	555.9	24.6	35.0
합 계	3,246.4	1,815.0	3,445.7	2,119.4	6.1	16.8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나. 대일본 농산물 수출동향

- 2010년 1~6월 일본으로의 농림축산물 수출은 431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8.9% 증가. 이는 막걸리를 중심으로 하는 주류와 과자류 등 가공식품과 화훼류에서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 채소류 중 딸기, 토마토 등은 전년 동기보다 감소하였으나, 김치, 파프리카 등의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8.1% 증가
- 화훼류는 난류, 장미, 백합 등의 수출 호조로 전년 동기대비 45.6% 증가
- 과실류는 배는 작년 동기보다 감소하였으나, 사과, 감귤류 등의 수출 호조로 전년 동기대비 7.2% 증가

【 대일본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동향 】

단위: 백만 달러, %

	2008	2009	2009. 1~6	2010. 1~6	전년동기비 증감률
농림축산물	752.5	846.3	362.6	431.0	18.9
채소류	154.8	161.9	77.2	83.4	8.1
주 류	146.1	165.6	71.4	92.3	29.2
과자류	78.5	77.9	30.5	39.2	28.8
화훼류	39.7	56.9	17.2	25.0	45.6
인삼류	26.8	34.5	10.5	10.9	4.6
과실류	24.9	17.1	6.7	7.2	7.2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Ⅲ.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

1. 곡물⁶⁾

1.1. 쌀

- 2008년, 2009년 연이은 풍작으로 2010양곡연도에는 전년 이월 재고가 많고, 연고미 증가로 산지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약세임. 이에 정부는 수확기에 34만 톤(10월 11만 톤, 11월 23만 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함.
- 시장격리 조치로 불구하고 지난해 큰 경영손실을 입었던 산지유통업체들이 매입 가격보다 낮게 벼를 판매하면서 산지 벼 가격은 12월 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함.

【 전국 쌀 평균 가격 】

단위: 원/정곡80kg, 원/조곡40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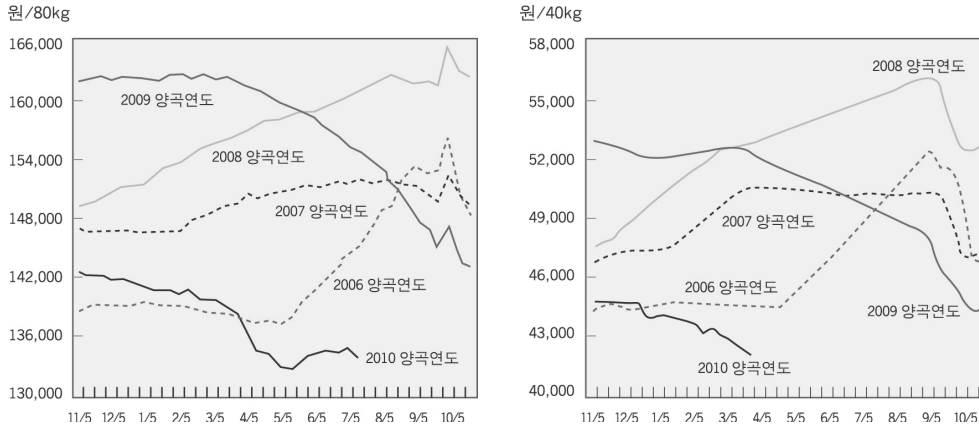
		산지 정곡가격	산지 조곡가격
2009양곡연도	수확기(10~12월)	162,424	52,485
	4월	160,813	-
	5월	159,160	-
	6월	157,052	-
	7월 15일	154,508	-
2010양곡연도	수확기(10~12월)	142,861	44,598
	4월	135,117	-
	5월	133,208	-
	6월	134,399	-
	7월 15일	133,848	-
등락률(%) (7월 15일 기준)	전월대비	-0.4	-
	전년 동기대비	-13.4	-
	수확기대비	-6.3	-

주: 양곡연도는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31일까지 쌀이 소비 유통되는 기간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6)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허덕 연구위원(huhduk@krei.re.kr), 최익창 연구원(cic@krei.re.kr), 김대석 연구원(sorihunt@krei.re.kr)이 작성하였음.

【 전국 평균 산지 쌀 가격 추이 】 【 전국 평균 산지 벼 가격 추이 】



자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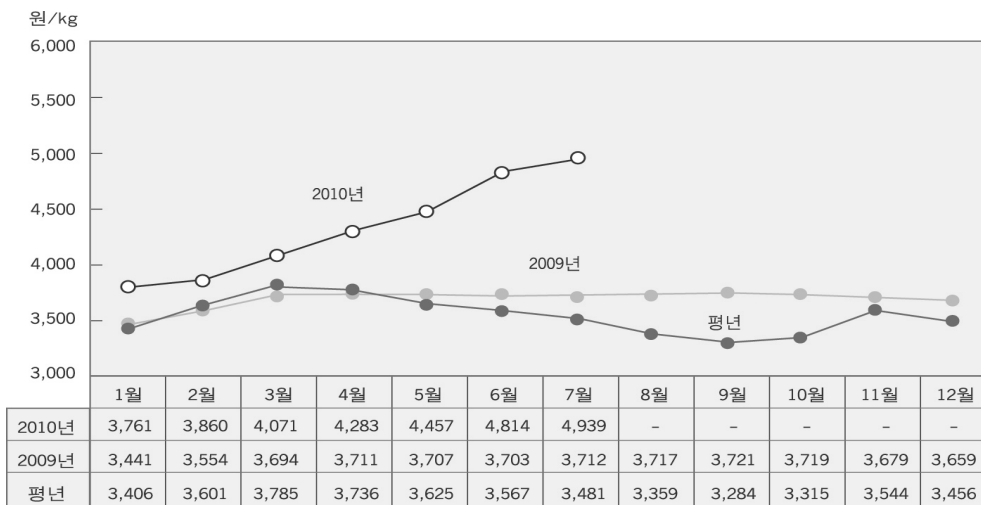
- 산지 벼 가격 하락으로 인해 쌀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불안감이 커진 산지 유통업체들의 조기 출하가 많아지면서 산지 쌀 가격은 2010년 5월 15일에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132,856원/80kg까지 하락하였음. 이는 전년 동기대비 16.5%(26,208원), 수확기대비 7.0%(10,005원) 하락한 수준임.
- 정부는 2010양곡연도 시장안정을 위해 2009년산 쌀 20만 톤을 5월 7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매입함. 이러한 조치로 2010양곡연도 시장공급량이 전년보다 줄어들었고, 시장참여자들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산지 쌀 가격은 5월 말 이후 상승세로 반전됨.
- 7월 초(5일, 134,732원/80kg)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던 산지 쌀 가격은 7월 중순(15일)들어 전회(7.5)대비 0.7% 하락한 133,848원/80kg 수준을 보임.
- 산지유통업체 재고가 2010양곡연도 내에 모두 소진되어 이월재고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일부 재고가 많은 업체들이 2010년 햅쌀이 출하되기 전에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낮은 가격으로 벼를 처분하고 있어 산지 벼 가격이 소폭 하락하였음.

- 2010년에도 다수확품종인 호품벼 재배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쌀 생산량이 풍작이었던 전년에 비해 감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년 연속 쌀 생산량 증가로 경영손실(역계질진폭)을 입은 산지유통업체들은 재고를 일찍 소진하기 위해 가격을 낮춰서라도 판매하려는 의향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
- 2010년 6월말 기준 농협(RPC+비RPC)의 재고는 43만 8천 톤, 민간RPC(곡물협회, RPC협의회, 양곡가공협회)는 9만 6천 톤 정도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음. 월평균 판매량(농협 09.11~10.6)을 고려하면 농협의 재고소진기간은 10월 상순, 민간RPC는 8월 중순에 재고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
- 농가 재고는 정부의 시장격리와 농협이 대부분 매입을 함으로써 전년(5만 톤) 보다 적은 2만 톤으로 예상됨(농협조사치). 전년 수준의 판매를 감안하면 산지유통업체들의 2009년산 재고는 2010양곡연도 내에 대부분 소진되어 이월재고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쌀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1%(9천ha) 감소한 91만 5천ha(2010농업전망), 단수는 최근 재배 품종변화로 3개년('07~'09) 평균인 507kg/10a를 최소, 전년 단수 534kg/10a를 최대로 가정하면, 2010년 쌀 생산량은 463만 7천 톤~488만 4천 톤으로 전망됨.
- 정부의 논농업 다양화 사업을 통해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면적이 9,668ha로 집계됨(목표대비 32.2% 수준). 이를 감안하면 2010년 쌀 재배면적은 조사치보다 더 감소할 수 있음. 하지만 현재까지 병해충 발생이 전년보다 적고, 다수확 품종인 호품벼가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하면서 전년과 같은 풍작이 될 가능성도 존재함(농진청 조사자료). 따라서 쌀 생산량에 따라 앞으로 쌀 가격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음.

1.2. 대두

- 콩 도매가격은 2010년 들어 수입콩 도매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수입콩 수요처들이 국산콩으로 대체하면서 상승세로 전환되었음, 백태 상품, 중품 도매가격은 꾸준히 상승하여 2010년 7월 23일 현재 전년 동기대비 33.05% 높은 4,939원/kg이고, 중품 도매가격은 4,711원/kg으로 전년 동기대비 36.42% 높음.

【 콩 도매가격 동향(국산 백태, 상품) 】



주: 평년은 2005년 1월~2009년 12월 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가격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전국적으로 콩의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호남이 3.5%, 제주 3.1% 충청 2.7%, 영남과 강원경기가 각각 2.2%,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제주, 안동, 정선, 충주, 영월, 제천, 단양, 문경 등 주산지를 중심으로는 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지역별 콩 파종면적 전망 】

단위: ha

지역	2009년(확정)	2010년(전망)	증감률(%)
강원,경기	13,634	13,926	2.1
영남	18,483	18,881	2.2
호남	15,978	16,544	3.5
제주	7,639	7,878	3.1
충청	14,531	14,930	2.7
전국	70,265	72,159	2.7

주: 2010.4.27~5.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본 농가 635호 대상 전화조사 결과. 광역시는 인근 도에 포함함.

- 전체 콩 면적의 93%를 차지하는 밭콩의 면적은 전년대비 2.2% 증가한 6만 6,851ha일 것으로 전망되며, 논콩의 면적은 전년대비 9.8% 증가한 5,308ha로 전망됨. 논콩의 파종면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이는 쌀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300만원을 지원한다는 정부 발표의 영향 때문임.

【 2010년 콩 파종면적 전망 】

단위: ha

	밭콩	논콩	합계
2009년	65,432	4,833	70,265
2010년	66,851	5,308	72,159
증감률(%)	2.2	9.8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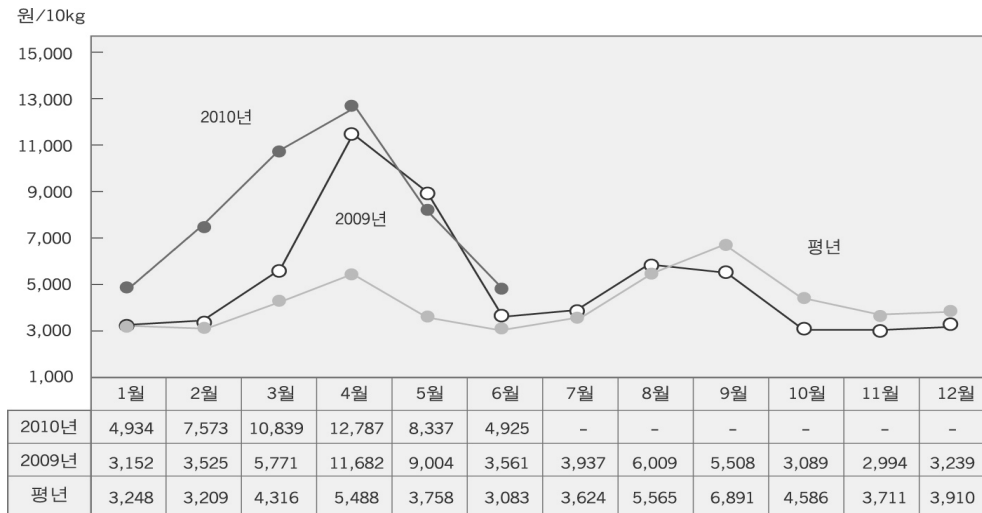
주: 2010.4.27~5.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본 농가 635호 대상 전화조사 결과. 광역시는 인근 도에 포함함.

2. 채소기

2.1. 배 추

- 배추 2/4분기 상품 10kg당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8,680원(중품 6,35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 평년 동기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임.
- 이는 월동배추의 재배면적이 감소한데다, 겨울철 한파와 봄철의 잦은 기상변화로 월동배추와 봄배추의 출하량이 감소했기 때문임. 또한 작황부진의 영향으로 상품성이 저하되면서 상품 물량도 크게 감소하였음.

【 배추 도매가격 (상품 기준) 】



주: 평년가격은 2005년 1월~2009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7월 고랭지배추의 출하량은 작년 동월보다 12%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잦은 기상변동에 따른 생육지연으로 출하면적과 단수가 동시에 감소했기 때문임.

7)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박기환 연구위원(kihwan@krei.re.kr), 박영구(ygpark@krei.re.kr), 김재한(jaehan@krei.re.kr), 윤형현(aruki00@krei.re.kr), 류상모(lesamang@krei.re.kr) 한승용(han0309@krei.re.kr), 최선웅(csung@krei.re.kr), 노호영(rhy81@krei.re.kr), 한은수(hanes012@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배추 7월 출하량 작년 대비 증감률 】

단위: %

구분	강원	호남	영남	전체
출하면적	-6.0	-7.7	-3.2	-5.7
단수	-6.8	-6.8	-6.4	-6.7
생산량	-12.8	-14.5	-9.6	-12.4

자료: 농업관측센터, 6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 시기별 출하면적은 생육 지연의 영향으로 7월 15일 이전에 출하된 물량이 7월 15일 이후에 출하될 물량보다 적을 것으로 조사되었음. 따라서 7월 가격은 상중순까지 강세를 보이다 하순부터는 점차 하락할 전망이다.
- 7월 하순부터 출하량이 안정화되면서 8월 출하물량은 작년보다 적으나 7월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임.
- 가을배추 재배 의향면적은 작년보다 5%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작년 가을배추 가격이 평년에 비해 크게 낮았던데다 낙동강 유역의 재배면적도 일부 수용되었기 때문임.

【 가을배추 재배 의향면적 작년 대비 증감률 】

단위: %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전체
-2.7	-0.1	-7.6	-12.3	-5.3

자료: 농업관측센터, 6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 재배 의향면적을 바탕으로 한 가을배추의 추정면적(13,849ha)에 작년과 평년의 단수를 적용하면 생산량은 140~152만 톤으로 작년보다 4~12% 적으나 평년보다는 3~12% 많을 것으로 전망됨.

【 가을배추 생산량 추정 】

적용 단수	2010년 추정 생산량			증감률(%)	
	면적 (ha)	단수	생산량 (천톤)	작년대비	평년대비
평년	13,849	10,090	1,397,372	-11.7	3.1
작년		10,946	1,515,870	-4.2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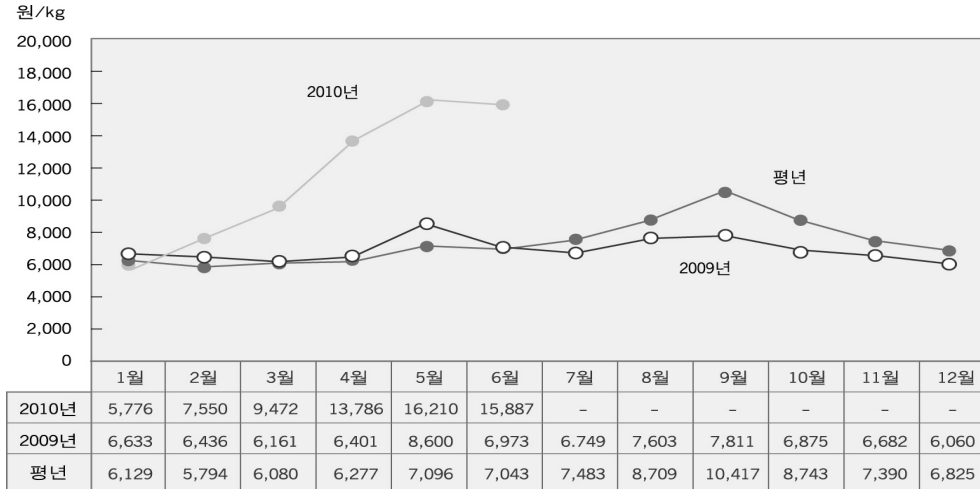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 고랭지배추의 출하량 감소로 7월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작년 및 평년 동월보다 크게 높은 상품 10kg당 7,000원(중품 6,000원)으로 전망됨.
- 그러나 7월말부터는 비교적 작황관리가 원활한 배추가 출하되기 시작하면서 가격은 점차 안정세로 접어들 전망이며 8월부터는 출하량 감소폭이 크게 줄면서 7월보다 가격 상승폭이 제한적인 전망이다.
- 6월 포전 거래 매기는 5월에 비해 크게 떨어진 가운데 강원과 전북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3.3㎡당 거래 가격은 8,000원(상품 기준)으로 작년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가을배추 재배의향도 감소함에 따라 배추 가격은 9~11월까지도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나 산지 작황 관리가 무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추석 시즌인 9월과 10월의 가격 상승폭은 6~8월에 비해 크게 완만할 것으로 전망됨.

2.2. 무

- 무 2/4분기 상품 18kg당 평균 도매가격은 1만 5,290원(중품 1만 2,700원)으로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크게 높은 수준임.
- 이는 제주 월동무의 냉해와 봄무의 생육 지연으로 출하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임.

【 무 도매가격 (상품 기준) 】



주: 평년가격은 2005년 1월~2009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고랭지무 재배 면적은 작년보다 10%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이는 지속된 가격 약세로 재배를 기피하는 농가가 많았기 때문임.
- 무의 7월 산지 출하량은 출하 면적과 단수 감소로 작년 동월보다 15% 적을 전망이다.
- 여름 평지무와 고랭지무 출하 면적은 재배 면적 감소로 작년 동월보다 각각 9%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무 7월 출하량 작년 대비 증감률 】

단위: %

구분	여름 평지무	고랭지무			전체
		중순	하순	계	
출하면적	-8.7	-8.3	-10.6	-9.4	-8.9
단수	-6.2	-5.1	-5.2	-5.1	-5.9
출하량	-14.9	-13.4	-15.8	-14.6	

자료: 농업관측센터, 6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 고랭지무의 파종이 지연되어 8월 상중순 출하공백기의 발생이 우려되나, 하순에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가을무 재배 의향면적은 작년보다 10%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이는 작년 출하기 가격이 크게 낮아 작목 전환을 고려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임.

【 가을무 재배 의향면적 작년 대비 증감률 】

단위: %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전체
-7.1	-13.9	-8.3	-13.5	-9.8

자료: 농업관측센터, 6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 가을무 추정 면적(7,011ha)에 평년 단수(7,315kg/10a)를 적용하면 생산량은 51만 3천 톤으로 작년보다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8월 상중순 출하량은 파종 지연으로 작년 동기보다 크게 감소하지만 하순에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하순에는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가을무 생산량 추정 】

2010년 추정 생산량			증감률(%)
면적 (ha)	단수 (kg/10a)	생산량 (천톤)	작년 대비
7,011	7,315	512.9	-17.8

자료: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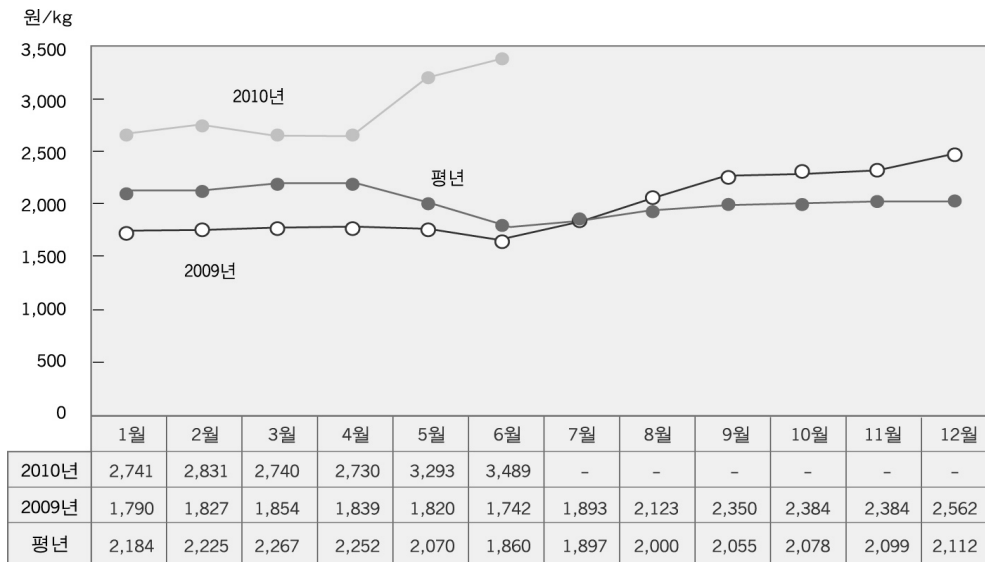
- 고랭지무 6월 포전거래는 3.3㎡당 거래 가격은 8,500원(상품 기준)으로 작년보다 500원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고랭지무의 출하량 감소로 가격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임.

- 고랭지 무의 출하량 감소로 7월 무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작년 및 평년 동월보다 크게 높은 상품 18kg당 2만원(중품 1만 7,000원)으로 전망됨.
- 8월 가격은 상중순경 출하 공백으로 높게 형성되지만 하순부터는 고랭지무가 본격 출하되면서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가을무 재배의향도 감소함에 따라 무 가격은 9~11월까지도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나 산지 작황 관리가 무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추석 시즌인 9월과 10월의 가격 상승폭은 6~8월에 비해 크게 완만할 것으로 전망됨.

2.3. 마늘

- 마늘 2/4분기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kg당 3,170원(난지형 기준)으로 작년 동기보다 76%, 평년 동기보다 54% 높은 수준임.

【 마늘 도매가격 동향 (난지형, 상품 기준) 】



주: 평년가격은 2005년 1월~2009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이는 2010년산 마늘 재배면적의 감소와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여 수확기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임.
- 통계청 발표 결과, 2010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작년산보다 15% 감소한 2만 2천 ha임. 품종별로 한지형이 11%, 난지형이 16%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었음.
- 또한 10a당 수확량의 경우는 1,140kg으로 작년보다 1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특히 제주와 경남 지역의 단수가 작년보다 나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마늘 생산량 추정 】

	재배면적 (ha)	생산량 (천톤)	작년대비 증감률(%)
한지형	4,808	37.3	-21.2
난지형	17,606	222.9	-28.1
전체	22,414	260.2	-27.2

자료: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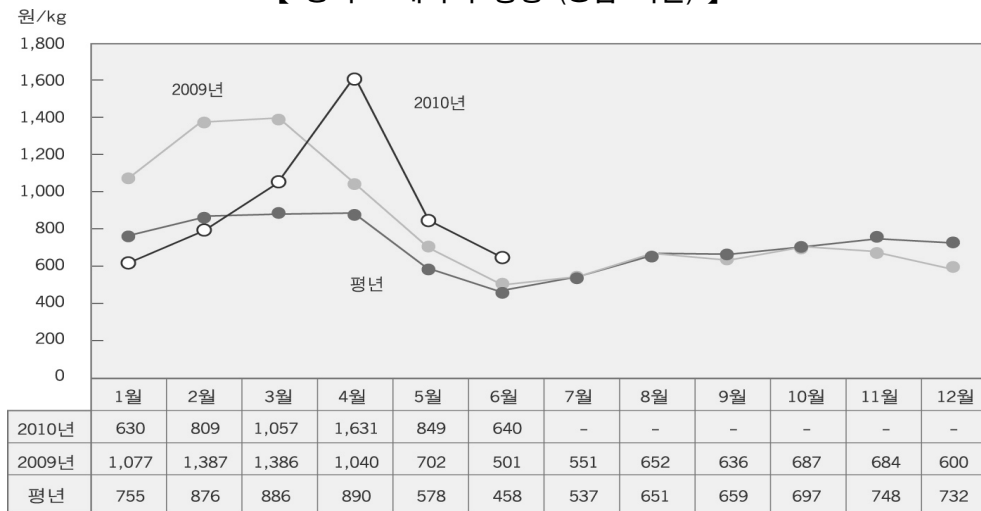
- 저장업체 조사 결과(7월 20일 조사치), 금년산 마늘 입고 희망물량은 작년 동기(8만 1,384톤)보다 24% 감소한 6만 1,856톤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전체 입고 희망량 중 6월 20일까지 전체의 36%가 완료되어 작년 동기 입고실적(49%)과 비교할 경우 입고 관망세가 좀 더 길어지고 있음.
- 입고 완료된 마늘의 kg당 가격은 3,100원 내외이며 향후 입고계획량에 대한 희망 가격은 3,620원으로 작년 입고가격 1,750원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중국 마늘 산지 가격은 2010년산 생산량이 10~15% 감소하여 작년보다 크게 높은 상황임. 6월 말 기준으로 톤당 1,600달러로 작년 동월(톤당 550달러) 대비 3배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음. 중국 산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2/4분기 수입량도 작년 동기비 20% 적은 수준임.

- 2010년산 마늘 생산량 감소로 인해 수매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으며, 저장업체의 입고가격도 작년보다 크게 높은 수준임. 따라서 7~8월 도매가격은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저장 마늘 방출시기에 가격 이 오를 경우 탄력적인 TRQ 물량의 방출로 가격 상승폭을 줄여, 수급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4. 양 파

- 양파 1/4분기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kg당 832원으로 작년 및 평년 동기보다 각각 39%, 62% 높았음.
- 이는 저온 현상과 지속된 강수로 작황이 부진하여 조생종과 중만생종 양파의 출하량이 줄었기 때문임.

【 양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



주: 평년가격은 2005년 1월~2009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금년산 양파 재배 면적은 작년산보다 19% 증가한 2만 2,094ha로 발표되었음 (통계청). 관측센터 조사 결과, 양파 단수는 작년보다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재배 면적과 단수를 고려한 금년 양파 생산량은 작년보다 8% 감소한 126만 톤으로 전망됨. 품종별로는 조생종이 13만 톤, 중만생종이 114만 톤으로 추정됨.

【 금년산 양파 생산량 작년 대비 증감률 】

	재배면적 (ha)	생산량 (천톤)	작년대비 증감률	평년대비 증감률
조생종	2,542	126	-24.8	-22.5
중만생종	19,552	1,139	-5.5	22.6
전체	22,094	1,264	-7.9	16.0

자료: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 저장업체의 금년산 양파 입고 희망량은 작년보다 소폭 증가한 58만 3천 톤으로 조사됨. 이는 마늘 가격 상승에 따른 양파의 저장 수요 확대와 신규 저장 창고가 늘었기 때문임.
- 전체 입고 희망량 중 6월 20일까지 입고량은 33만 7천 톤으로 작년보다 24% 적었으며, 올해 입고(희망)량 중 58%만 입고되어 작년보다 입고 진행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미 입고된 양파의 kg당 평균 입고가격은 453원으로 작년보다 19% 높았으며, 향후 입고 희망가격은 529원으로 가격 상승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조사됨.

【 저장업체 금년산 양파 입고 상황 】

	현재입고량 (톤)	입고(희망)량 (톤)	입고(희망)가격	
			입고된 양파가격 (원)	향후 입고 희망가격 (원)
조생종	337,314	583,316	453	529
중만생종	441,835	578,815	380	400
증감률(%)	-23.7	0.8	19.2	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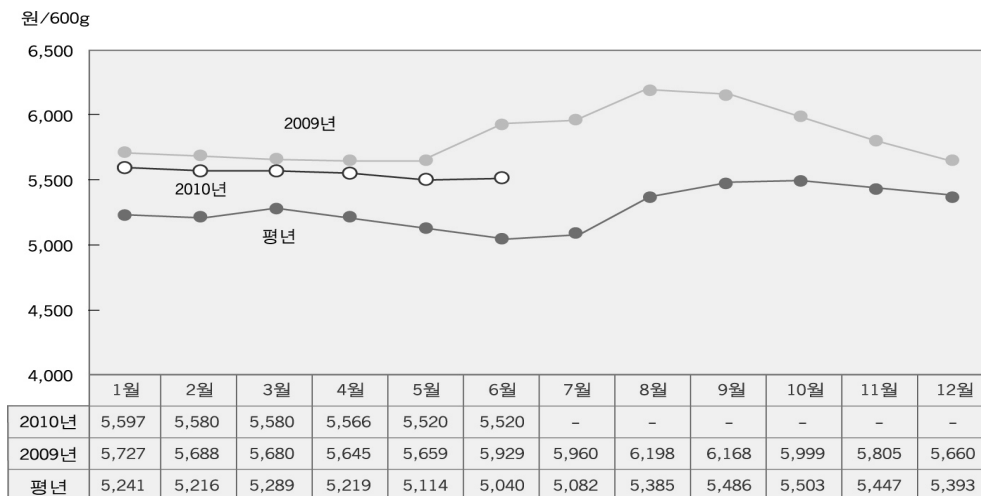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6월 20일 저장업체 조사치.

- 이는 당초 예상보다 수확량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더욱이 마늘 가격 급등으로 양파로의 대체 저장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 양파의 7월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중만생종 양파의 작황 부진으로 수확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수입량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작년 동월보다 27% 높은 상품 20kg당 1만 4천 원으로 전망됨.
- 7월 이후 양파 가격도 생산량 감소와 마늘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 저장 수요의 증가로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5. 건고추

- 건고추 화건 2/4분기 상품 600g당 5대 도매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소비부진으로 재고량이 많아 작년 동기보다 4% 낮은 5,540원(중품 5,060원)임.
- 양건은 생산량 감소로 작년 동기보다 7% 높은 7,110원(중품 6,570원)임.

【 고추(화건) 도매가격 동향 (상품) 】



주: 평년가격은 2005년 1월~2009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건고추 7월 재고량은 생산량과 수입량 감소로 공급량(19만 56,240톤)이 감소하였지만, 소비량(18만 3,280톤)도 감소하여 작년 동기보다 3% 증가한 1만 1,960톤으로 추정됨.

【 고추 공급량 추정 】

단위: 톤

연산	생산량 (A)	8~7월 이월·수입량 (B)	공급량 (C=A+B)	8~7월 소비량 (D)	7월 재고량 (E=D-C)
2009	117,324	77,915	195,239	183,277	11,643
2008	123,509	83,672	207,181	195,538	11,962
증감률(%)	-5.0	-6.9	-5.8	-6.3	2.7

자료: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 7월 1~20일까지의 고추 수입량은 작년 동기(4,820톤)보다 24% 감소한 3,656톤이었음. 이 중 건고추 수입량은 작년 동기보다 20% 감소한 221톤이었으며, 고추 관련 품목 수입량은 건고추로 환산한 중량은 작년 동기보다 24% 감소한 3,435톤이었음.
- 고추 7월 전체 수입량은 작년 동월보다 20% 감소한 6,000톤으로 전망됨. 이는 중국내 냉동고추 재고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건고추(화건) 7월 상품 600g당 5대 도매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재고량이 많아 전월대비 약보합세인 5,500원으로 전망됨.
- 2010년산 고추 재배면적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2009년 산보다 4%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금년 고추 생육은 3.3m당 포기당 착과수가 작년보다 1개 적어 작년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남.

【 금년 고추 재배 의향면적 작년 대비 증감률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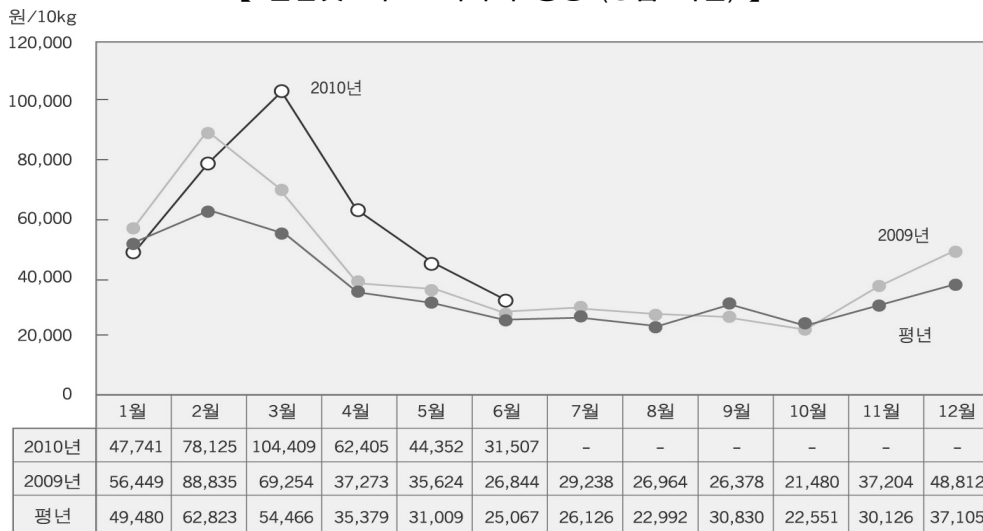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체
-2.1	-3.5	-6.8	-1.3	-7.1	-3.1	-2.6	-2.5	-3.6

자료: 농업관측센터, 6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2.6. 일반꽃고추

- 일반꽃고추의 2/4분기 가락시장 상품 10kg당 평균도매가격은 46,090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9%, 평년 동기보다 51% 높은 수준임.
- 이는 4월까지 지속된 일기불순으로 작황이 크게 악화되어 작년 동기보다 출하량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햇고추 출하 지역인 충청과 강원 지역의 출하가 지연되었기 때문임.

【 일반꽃고추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



주: 평년가격은 2005년 1월~2009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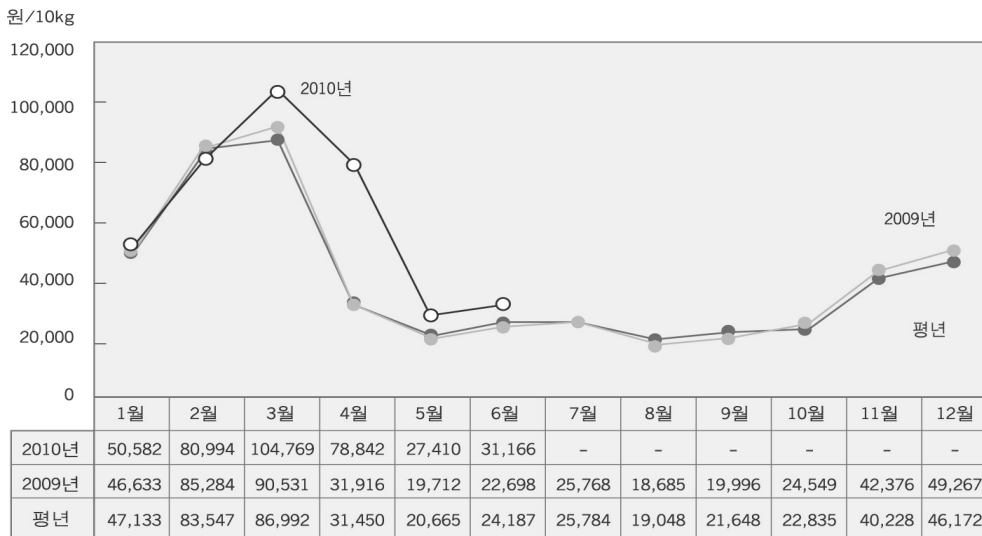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일반꽃고추의 7월 출하량은 작년 동월보다 3%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4~5월 일기불순으로 정식 면적이 감소하였으며 주산지인 충청과 강원 지역의 작황이 부진하기 때문임. 따라서 일반꽃고추의 상품 10kg당 7월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작년 동월보다 6% 높은 3만 1천 원으로 전망됨.
- 충청과 강원 지역의 출하가 재정식과 냉해 등으로 인하여 작년보다 15일 가량 지연되었으며, 출하량 감소로 당분간 가격 강세가 유지될 것임.

2.7. 청양계꽃고추

- 청양계 꽃고추의 2/4분기 상품 10kg당 평균도매가격은 45,81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5%, 평년 동기보다 80% 높은 수준임.
- 이는 경남 지역에서 경북 지역으로 주 출하 지역이 변동되는 가운데 잦은 기상변화로 인한 초기 생육저하, 병해발생 등으로 출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청양계꽃고추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



주: 평년가격은 2005년 1월~2009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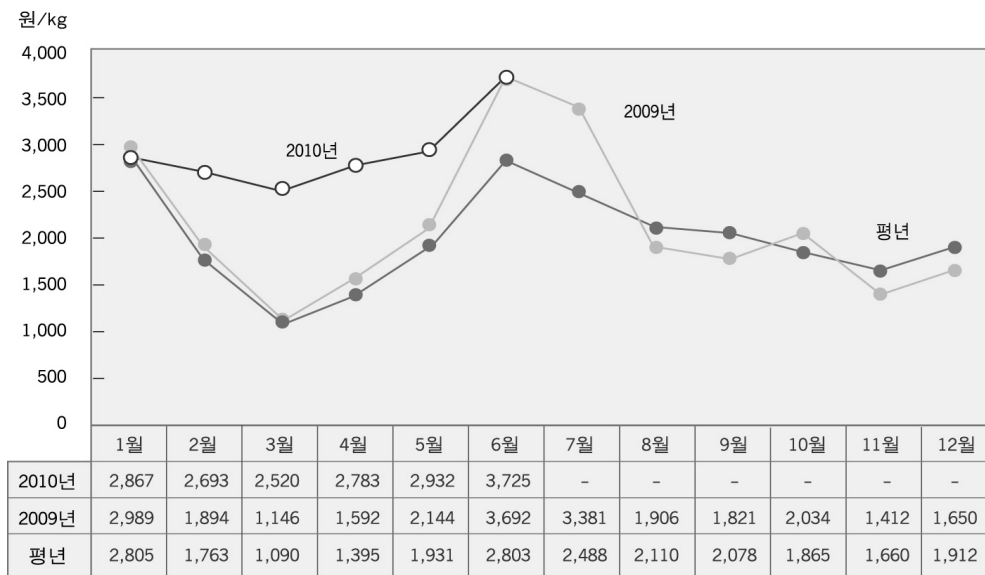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청양계 꽃고추의 7월 출하량은 작년 동월보다 2% 감소할 전망하였으나 초기 생육 불량과 출하 지연으로 인하여 감소폭이 다소 커질 것으로 조사되었음. 따라서 청양계 꽃고추의 상품 10kg당 7월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작년 동월보다 44% 높은 3만 7천 원으로 전망됨.
- 충청과 강원 지역에서 정식기 일기불순으로 5~6월 재정식이 이루어졌으며 일손 부족과 작목 전환으로 정식 의향면적이 감소하는 추세임.

2.8. 쪽파

- 쪽파의 2/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kg당 3,147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7%, 평년 동기보다 54% 높은 수준임.
- 이는 중국 종구 수입량 증가로 파종 면적은 증가하였지만, 기상 변화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인해 출하량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 쪽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



주: 평년가격은 2005년 1월~2009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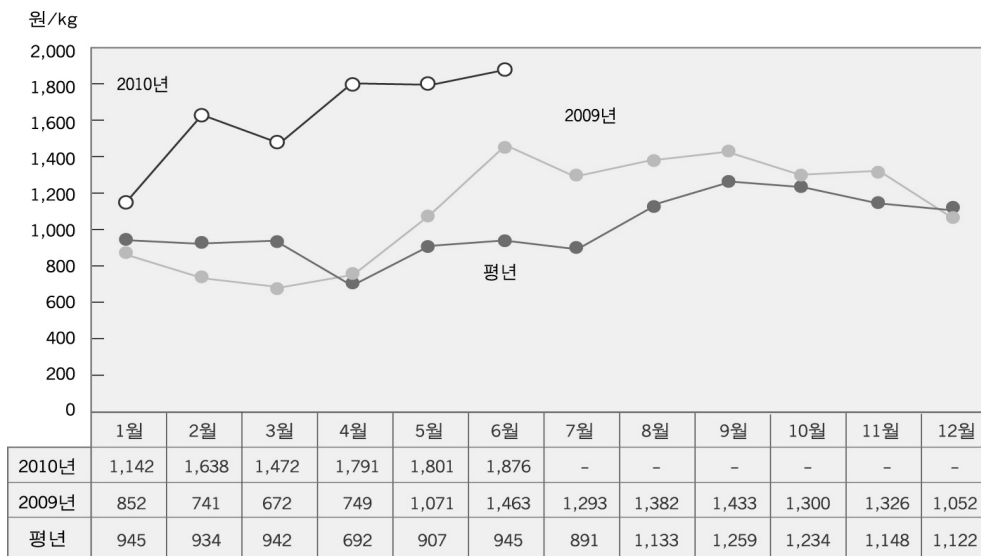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출하면적은 증가하지만 단수 감소로 쪽파 7월 출하량은 작년 동월보다 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7월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작년 동월보다 24% 높은 상품 kg당 4,200원으로 예상됨.
- 8월 출하 면적은 최근 가격 강세와 충청 지역 출하 면적 증가로 인해 작년 동월 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9. 대파

- 대파의 2/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kg당 1,82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67%, 평년 동기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임.
- 이는 생육기 잦은 비와 저온 현상으로 월동대파 출하가 지연되었고, 단수도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 대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



주: 평년가격은 2005년 1월~2009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여름대파 재배 면적 증가로 출하 면적이 증가하지만, 단수 감소로 대파 7월 출하량은 작년보다 2% 감소 전망임. 따라서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작년 및 평년 동월보다 높은 상품 kg당 1,500원으로 전망됨.
- 대파 8월 출하 면적은 여름대파 재배 면적 증가로 작년 동월보다 4% 증가할 전망임. 8월 15일 이후에는 증가폭이 확대되겠지만, 강원과 경기 지역 단수 감소로 출하량은 작년보다 소폭 감소할 전망임.

- 9월에는 지연된 강원 지역 대파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출하량이 작년 동월보다 5% 증가할 전망이다.
- 여름대파와 가을·겨울대파 재배 의향은 작년 출하기 및 정식기에 가격이 높아 작년 동월보다 6%, 2%, 4% 증가할 전망이다.

【 여름대파 재배 의향면적 작년대비 증감률 】

단위: %

경기	강원	전체
5.5	6.9	5.9

자료: 농업관측센터, 6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 가을·겨울대파 재배 의향면적 작년대비 증감률 】

단위: %

작형	충청	전북	전남	경북	부산 경남	전체
가을	5.1	7.1	-	6.6	-5.4	2.1
겨울	-	-	7.3	-	-5.4	3.7

자료: 농업관측센터, 6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 추정면적에 추정 단수를 적용할 경우 여름대파 생산량은 6만 1천 톤으로 작년 보다 소폭 증가하고, 가을·겨울대파는 6만 1천 톤, 15만 2천톤으로 작년보다 각각 5%, 6% 증가할 전망이다.

【 여름·가을 및 겨울대파 생산량 추정 】

단위: %

적용 단수		면적(ha)	생산량(톤)	작년 대비 증감률(%)
여름	추정	2,422	61,168	1.1
가을	평년	2,192	61,270	5.1
	작년		59,489	2.1
겨울	평년	4,751	151,959	6.4
	작년		148,157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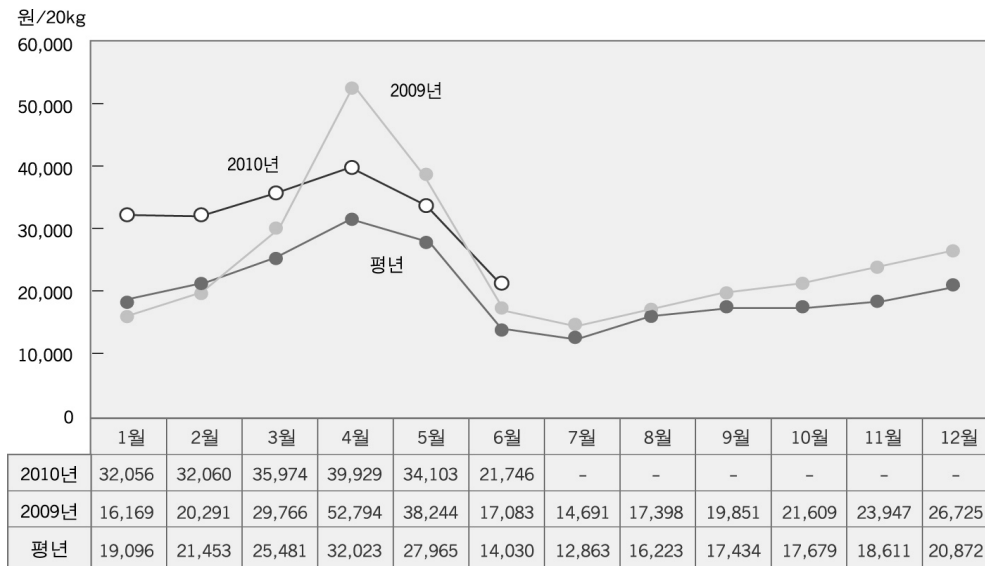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6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 여름대와 출하기 가격은 7~8월은 강세이나, 9~10월은 약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평균 가격은 작년보다 낮은 1,300원으로 전망됨.
- 가을·겨울대와 출하기 가격도 재배 면적 증가로 작년 동기보다 낮을 전망이다.
- 여름대과는 기상 변동으로 생육이 좋지 않아 출하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향후 집중 호우 등의 발생시 대과 피해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음. 9월부터는 약세이지만, 가을대와 하천부지 면적 감소로 큰 폭의 가격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다만, 하천 부지 이외의 산지에서 재배 면적이 크게 증가할 경우 가격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나친 확대는 신중할 필요 있음.

2.10. 감 자

- 수미의 2/4분기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20kg당 3만 1,93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1% 낮고, 평년 동기보다 29% 높은 수준이었음.

【 감자(수미) 도매가격 동향 (상품) 】



주: 평년가격은 2005년 1월~2009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이는 생육기 작황 부진으로 봄(노지)감자 출하량이 작년 동월보다 감소하였지만, 봄(시설)감자 재배 면적 증가로 출하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봄(노지)감자와 준고랭지감자 출하량을 고려한 수미 7월 전체 출하량은 작년 동월보다 8% 감소할 전망이다.
- 봄(노지)감자 7월 출하량은 작년 동월보다 9%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출하 면적이 작년 동월보다 2% 감소하고, 단수도 생육기 작황 부진으로 작년 동월보다 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평창, 횡성, 홍천 지역의 준고랭지감자 7월 출하량은 작년 동월보다 6%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출하 면적이 작년 동월보다 2% 증가하지만, 냉해 및 서리피해로 단수가 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한편, 고랭지감자 8월 출하 면적은 재배 면적 증가로 작년 동월보다 3% 증가할 전망이다.
- 수미의 7월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작년 동월보다 23%, 평년동월보다 40% 높은 상품 20kg당 1만 8,000원으로 전망됨.
- 고랭지감자(수미) 재배 면적은 작년 수확기 가격의 강세로 4%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단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고랭지감자 재배 면적 작년 대비 증감률 】

단위: %

강릉	양구	인제	정선	평창	홍천	횡성	전체
2.2	2.9	5.4	5.4	5.2	0.7	1.6	4.3

자료: 농업관측센터, 6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 금년 가을감자(대지) 재배 의향면적은 작년 수확기 가격 강세로 작년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가을감자 재배 의향면적 작년 대비 증감률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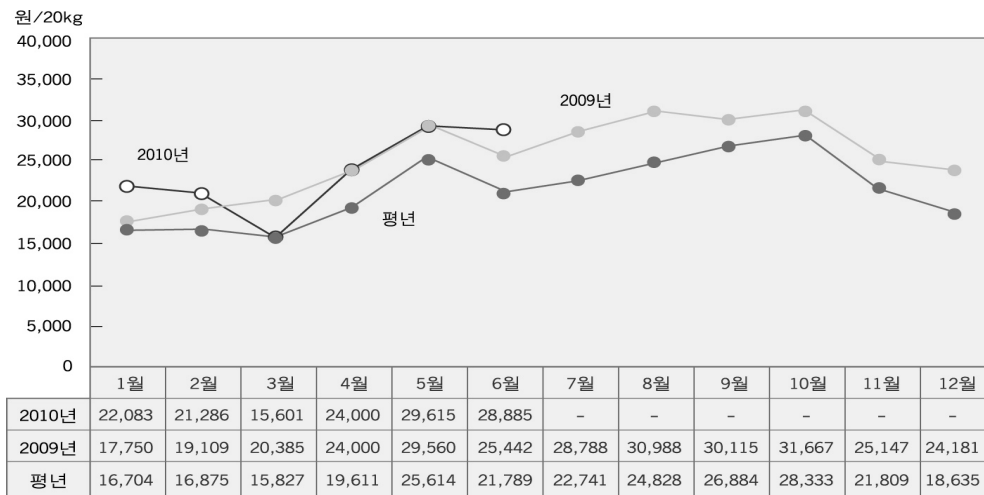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전체
0.3	3.1	-6.3	4.3	2.6

자료: 농업관측센터, 6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2.11. 당 근

- 당근의 2/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20kg당 2만 7,5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 평년 동기보다 23% 높은 수준임.
- 이는 하천 부지 수용으로 봄(하우스)당근 재배 면적이 감소한데다, 냉해로 작황도 부진하였기 때문임.

【 당근 도매가격 (상품 기준) 】



주: 평년가격은 2005년 1월~2009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당근의 7월 전체 출하량은 산지 출하량이 줄어들어 작년 동월보다 4% 감소할 전망이다.
- 산지 출하량은 출하 면적이 증가하나, 단수가 감소하여 작년동월보다 8% 감소할 전망이다.
- 저장 출하량은 겨울당근 재고량이 많아 작년 동월보다 5% 증가할 전망이다.
- 수입량은 중국 봄당근 작황 회복으로 산지 가격이 하락하여 작년 동월과 비슷할 전망이다.
- 고랭지당근 재배 의향면적은 작년 출하기 가격이 높아 작년보다 8% 증가할 전망이다.
- 가격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재배 의향 증가폭은 5월 조사치(4% 증가)보다 3%p 증가

【 고랭지당근 재배 의향면적 작년 대비 증감률 】

단위: %

조사 시기	4월	5월	6월	전체
5. 20	3.2	6.5	1.7	3.6
6. 20	3.2	8.0	1.8	7.8

자료: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 가을당근 재배 의향 면적은 작년보다 6% 감소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영남이 8%, 충청이 4% 감소함.
- 이는 낙동강 하천부지 면적이 수용되면서 농가들이 아직 대체 경작지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가을당근 재배 의향면적 작년 대비 증감률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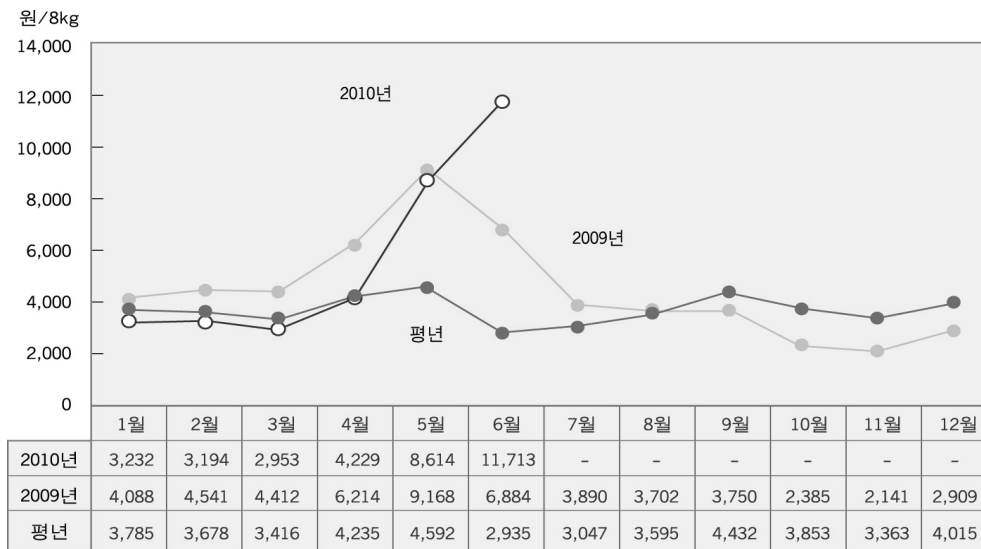
영남	충청	전체
-7.7	-3.5	-6.2

자료: 농업관측센터, 6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2.12. 양배추

- 양배추의 2/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8kg당 8,19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0%, 평년 동기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임.
- 이는 봄양배추 재배 면적이 감소한데다, 생육기 잦은 비와 저온에 따른 생육 지연으로 출하 공백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



주: 평년가격은 2005년 1월~2009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양배추의 7월 출하량은 고랭지양배추 재배 면적 감소와 생육기 기상 악화에 따른 단수 감소로 작년 동월보다 11% 감소할 전망이다. 따라서 가락시장 도매 가격은 작년 및 평년 동월보다 높은 상품 8kg당 4,500원으로 전망됨.
- 양배추의 8월 출하 면적은 고랭지양배추 재배 면적 감소로 작년 동월보다 9% 감소할 전망이다.

- 고랭지양배추의 재배 의향 면적은 작년 출하기 가격 약세로 대폭 감소하지만, 최근의 가격 급등으로 다소 회복되어 작년보다 2%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강원 지역은 4% 감소하는 반면, 경북 지역은 5% 증가할 전망이다.

【 고랭지양배추 재배 의향면적 작년대비 증감률 】

단위: %

강원	경북	전체
-4.1	5.3	-1.7

자료: 농업관측센터, 6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 가을양배추 재배 의향면적은 봄철 양배추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작년 출하기 가격 급락으로 2% 감소할 전망이다.

【 가을양배추 재배 의향면적 작년대비 증감률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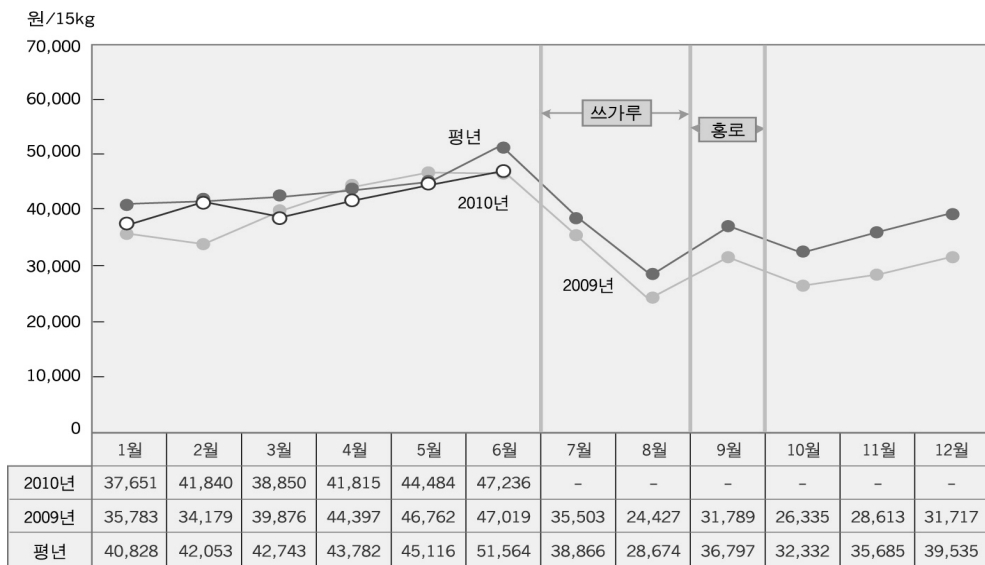
영남	호남	충청	전체
-3.3	-3.8	-0.6	-1.6

자료: 농업관측센터, 6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3. 과일⁸⁾

3.1. 사과

【 사과 도매가격(상품) 】



주: 7~8월은 쓰가루, 9월은 홍로, 10월부터는 후지 품종 기준임. 평년은 2005~09년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4분기 후지 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상품 15kg에 4월 4만 2천원, 5월 4만 5천원, 6월 4만 7천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4월에 6%, 5월에 5% 낮았으나 6월에는 비슷하게 형성됨. 2분기 후지가격이 작년에 비해 낮았거나 비슷한 이유는 저장량이 많아 시장반입량이 작년보다 8% 많았기 때문임.
- 사과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2% 늘어난 3만 992ha, 성목면적은 7% 증가한 2만 582ha인 것으로 나타남. 조숙계 후지계통은 신규식재가 감소하고 있으나 만생종 품종의 선호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8)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정호근 부연구위원(hogunc@krei.re.kr), 천인석(chunis94@krei.re.kr), 신유선(shinys@krei.re.kr), 조용래(cik1114@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올해 수확기 사과 생산량은 단수는 감소하나 성목면적 증가로 작년(49만 4천톤)보다 5% 증가한 51만 8천톤 수준으로 전망됨.

【 사과 생산량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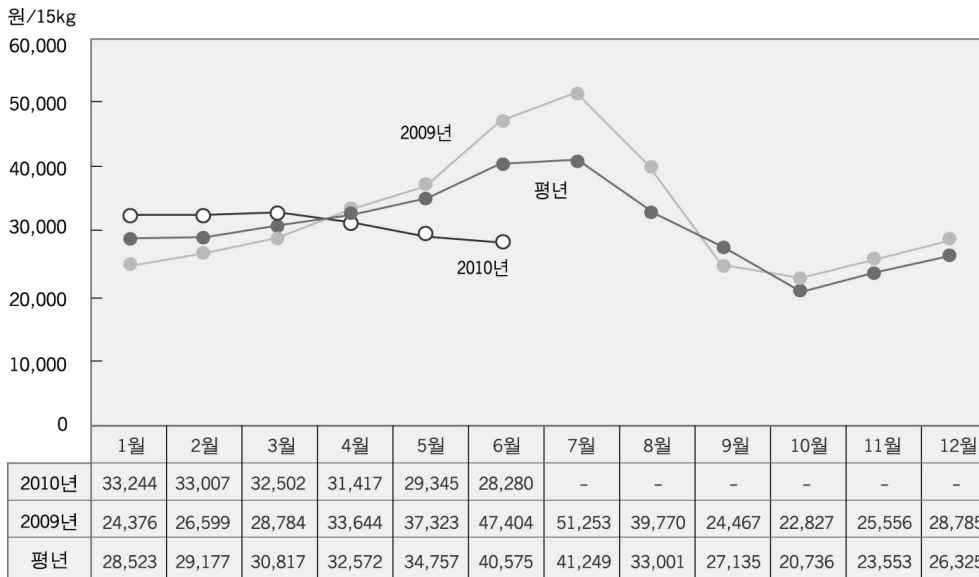
단위 : ha, 톤, %

	2009년	2010년	증감률
성목면적	19,179	20,582	7.3
생산량	494,491	518,153	4.8

자료: 통계청(2009~10년 성목면적, 2009년 생산량), 농업관측센터 6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2010년 생산량).

3.2. 배

【 배 도매가격(상품) 】



주: 7~8월은 쓰가루, 9월은 홍로, 10월부터는 후지 품종 기준임. 평년은 2005~09년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4분기 신고 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상품 15kg에 2만 8천~3만 1천원으로 작년보다 낮았음. 작년 동월 대비 가격 하락폭은 4월 -7%에서 5월 -22%, 6월에는 -40%로 커졌음. 배 저장량이 많아 시장반입량이 작년보다 37~55% 많았기 때문임.
- 배 봉지수는 개화기 저온 피해 등으로 착과량이 적어 작년보다 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올해는 4월 지속된 저온과 강우로 흑성병이 특히 많은 해로 상품성 저하가 우려됨.
- 올해 배 재배면적은 도시화 및 고령화 등에 의한 폐원 증가로 작년보다 5% 감소한 1만 6,239ha, 성목면적은 3% 감소한 1만 4,772ha임.
- 배 단수는 개화기 꽃눈 동해 및 저온피해로 작년보다 5%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따라 올해 배 생산량은 작년보다 8% 적은 38만 5천톤 수준으로 전망됨.

【 품종별 봉지수 예상 증감률 】

단위 : %

	신고	장십랑	황금배	원황	기타	전체
작년대비	-6.7	-1.6	-5.5	-2.0	-3.6	-7.2
면적비중	77.0	2.7	2.3	6.0	12.0	100.0

자료: 농업관측센터 6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배 생산량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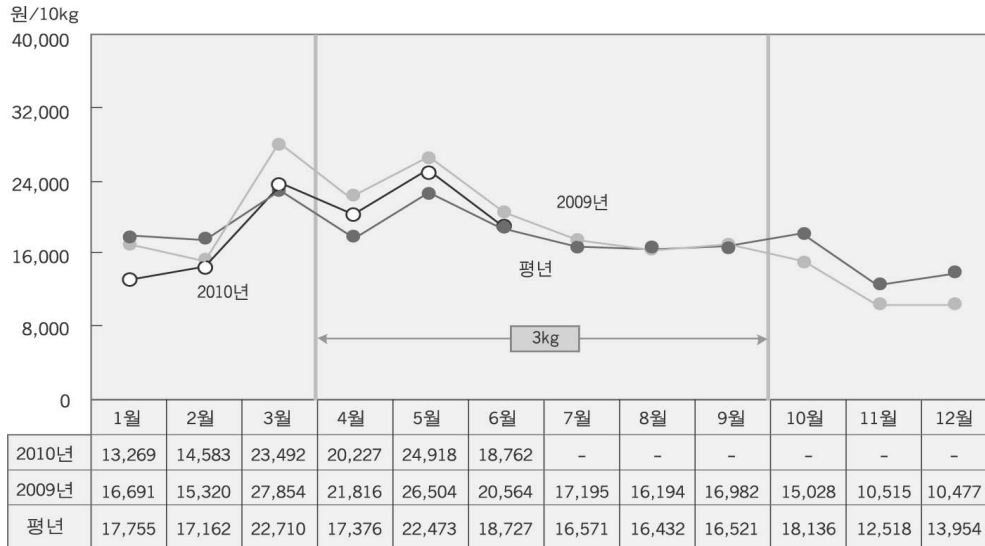
단위 : ha, kg/10a,톤, %

	성목면적	단수	생산량
2009년	15,253	2,743	418,368
2010년	14,772	2,606	384,920
증감률	-3.2	-5.0	-8.0

자료: 통계청(2009~10년 성목면적, 2009년 생산량). 농업관측센터 6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2010년 생산량).

3.3. 감귤

【 감귤 도매가격(상품) 】



주: 4~9월은 3kg, 10~3월은 10kg 기준임. 평년은 2005~09년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4분기 감귤 도매가격은 4월 월동온주 상품 3kg에 2만원, 5월과 6월은 하우스온주 상품 3kg에 각각 2만 5천원, 1만 9천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낮았음. 반입량은 작년과 비슷했지만 일조량 부족 등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품질이 좋지 못했기 때문임.
- 하우스온주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3% 증가한 312ha인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봄철 일조량 부족으로 개화량이 적고 과실비대가 좋지 못해 단수는 작년보다 7% 감소하여 생산량은 5% 적을 것으로 전망됨.
- 올해 노지온주 성목면적은 1만 7,897ha로 작년보다 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단수는 심한 해거리 현상과 작년산 노지온주의 늦은 수확에 따른 수세악화, 봄철 기상여건 악화로 작년보다 2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생산량은 작년보다 26% 감소한 49만톤 수준으로 전망됨.

【 하우스온주 생산량 전망 】

단위 : ha, kg/10a, 톤, %

	재 배 면 적	단 수	생 산 량
2009년	304	7,446	22,636
2010년	312	6,917	21,602
증감률	2.6	-7.1	-4.6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 노지온주 생산량 전망 】

단위 : ha, kg/10a, 톤, %

	성 목 면 적	단 수	생 산 량
2008년	18,351	2,836	520,350
2009년	18,185	3,600	654,714
2010년(예상)	17,897	2,765	494,816
증감률	2008년 대비	-2.5	-8.7
	2009년 대비	-1.6	-23.2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08~09년 성목면적, 생산량). 농업관측센터 6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2010년).

- 2/4분기 오렌지 수입량은 작년보다 크게 증가하였음. 봄철 이상 기후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국내산 과일의 출하량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하였고 최근 수입된 고당도오렌지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수익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오렌지 수입량 】

단위 : 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연간
2008년	9,265	14,334	34,660	30,566	8,416	1,974	1,438	106,812
2009년	2,481	6,576	17,740	26,473	9,540	1,232	164	71,221
2010년	4,854	9,083	29,265	39,841	14,308	3,202		
평년	8,324	13,051	28,991	28,935	9,557	1,626	1,336	102,868

주: 평년은 2005~09년 월별 수입량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오렌지 국내 도매가격은 상품 18kg에 4월은 작년 동월보다 6% 낮았지만 5월, 6월은 작년 동월보다 각각 7%, 28% 높게 형성됨.

【 오렌지 도매가격(상품) 】

단위 : 원/18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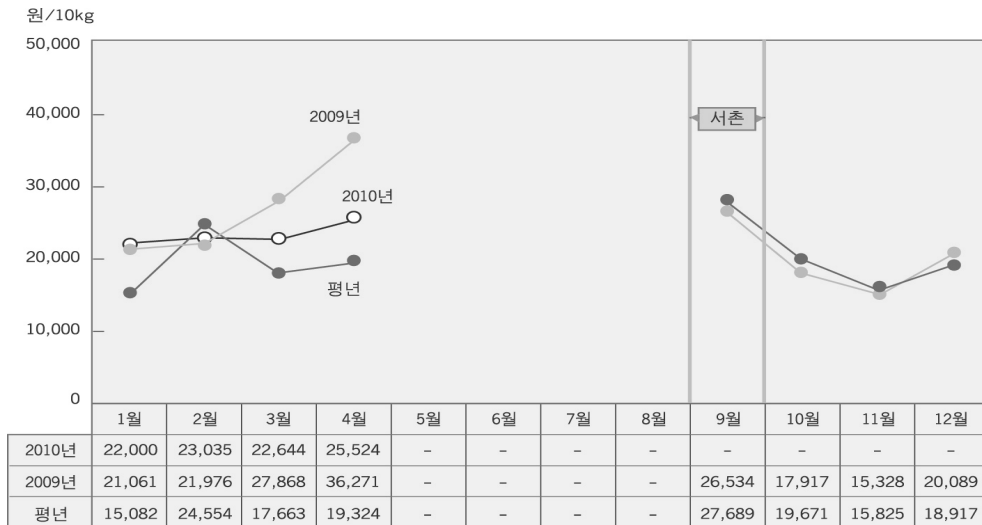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2007년	23,280	26,000	31,096	34,146	42,648	39,231	35,278	30,673
2008년	51,727	48,979	54,942	48,712	47,442	37,881	44,907	52,481
2009년	41,875	38,932	47,889	45,673	50,923	48,365		
평년	36,589	37,021	36,815	39,621	42,393	38,888	37,645	35,261

주: 1~5월은 네이블, 6~8월은 발렌시아 기준임. 평년은 2005~09년 월별 수입량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3.4. 단감

【 단감 도매가격(상품) 】



주: 9월은 서춘조생, 10월 이후는 부유 기준임. 평년은 2005~09년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올해 단감 성목면적은 1만 3,474ha으로 작년보다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품종별로 부유 4%, 차랑 1%, 기타 8% 증가하였으나 서촌조생은 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완전탈삽이 어렵고 자연재해에 취약한 서촌조생은 상서조생, 태추 등으로 품종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올해 단감 단수는 전반적으로 기상여건이 좋지 못해 작년보다 3%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단수는 3% 감소하지만 성목면적이 4% 증가하여 생산량은 작년과 비슷한 19만 6천톤 수준으로 전망됨.

【 단감 품종별 성목면적 】

단위: ha, %

	부유	차랑	서촌조생	기타	전체
2009년	10,629	1,364	564	425	12,982
2010년	11,084	1,379	552	458	13,474
증감률	4.3	1.1	-2.1	7.8	3.8

자료: 통계청(전체 성목면적), 농업관측센터 6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품종별 성목면적).

【 단감 생산량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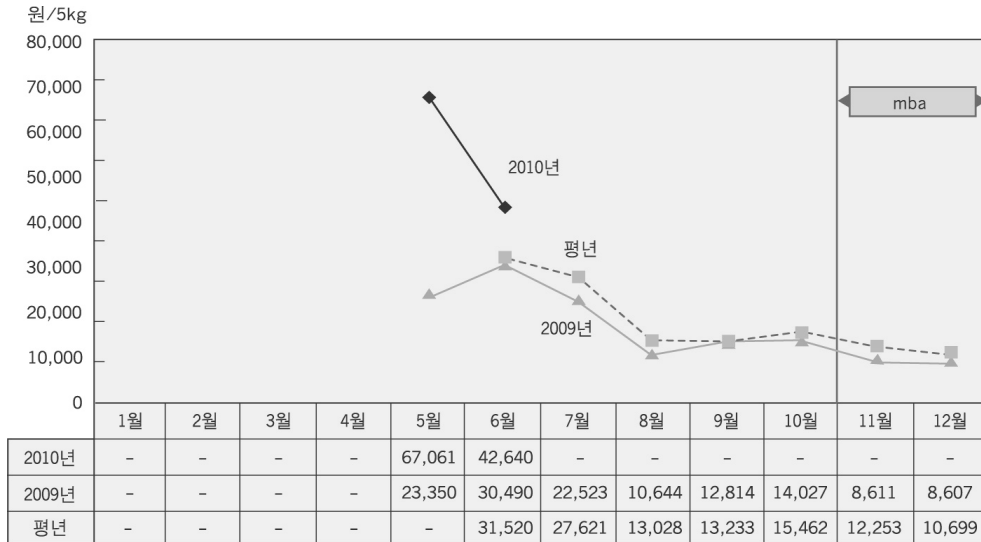
단위: ha, kg/10a, 톤, %

	성목면적	단수	생산량
2009년	12,982	1,503	195,138
2010년	13,474	1,453	195,714
증감률	3.8	-3.4	0.3

자료: 통계청(2009, 2010년 성목면적, 2009년 생산량), 농업관측센터 6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2010년 생산량).

3.5. 포도

【 포도 도매가격(상품) 】



주: 5월은 텔라웨어 2kg, 6월 중순~10월은 캠벨얼리, 11~12월은 MBA 가격임. 평년은 2005~09년 월별 수입량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4분기 포도 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작년보다 높았음. 4~5월 텔라웨어 도매가격은 상품 2kg에 1만 7천~2만 7천원(숫자 이상)으로 작년보다 15~21% 높았음. 6월 캠벨얼리 도매가격은 상품 2kg에 1만 5천원으로 작년보다 3% 높았음. 시장반입량이 작년보다 적고 품질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임.
- 올해는 꽃매미 발생면적이 작년보다 크게 증가하여 지역별로 월동기 난파 제거 및 5월 공동방제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꽃매미 피해율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개화가 저온다습한 기상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화진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 포도 성목면적과 단수가 작년보다 각각 2% 감소하여 생산량은 작년보다 4% 감소한 32만 5천톤 수준으로 전망됨. 시설포도 생산량은 작년보다 1%, 노지포도는 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포도 생산량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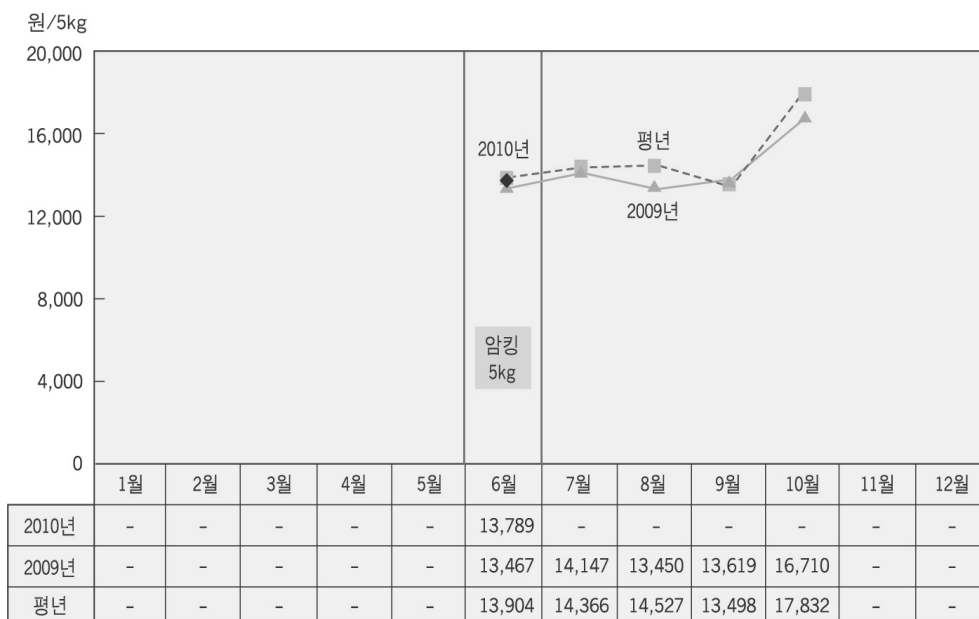
단위 : ha, kg/10a,톤, %

	성목면적	단수	생산량
2009년	15,144	2,199	332,978
2010년	14,850	2,158	324,574
증감률	-1.9	-1.9	-3.8

자료: 통계청(2009~10년 성목면적, 2009년 생산량). 농업관측센터 6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2010년 생산량).

3.6. 복숭아

【 복숭아 도매가격(상품) 】



주: 6월은 암킹 5kg, 7월은 창방, 8월은 미백, 9월 유명, 10월은 황도 가격임. 평년은 2005~09년 월별 수입량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6월 천도계 암킹 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상품 5kg에 1만 4천원으로 작년보다 4% 높았음. 시장반입량이 작년보다 50% 감소하였으나 품질이 좋지 않아 가격은 크게 높지 않았음.
- 복숭아 성목면적은 작년보다 13% 증가한 9,923ha로 나타남(통계청). 하지만 동해로 인한 복숭아 고사면적이 1,300ha로 나타나 올해 출하가 가능한 성목면적은 작년보다 2% 감소한 8,623ha가 될 것으로 조사됨. 성목면적과 단수 감소에 따라 올해 복숭아 생산량은 작년보다 12% 감소한 17만 4천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7월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3%, 단수는 2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출하량은 30% 감소할 것으로 보임. 8월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5%, 단수는 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출하량은 작년보다 10%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동해피해로 인한 출하면적 감소와 더불어 개화기 전후 저온 피해로 결실이 불량하여 단수도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 7~8월에 출하될 복숭아 당도, 색택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크기는 다소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경북 영천·영덕·청도, 경남 함안, 충북 충주는 생육 초기 저온 및 일조부족으로 과실비대가 좋지 않아 크기가 다소 작을 것으로 나타남. 경기 여주·이천은 전년 및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조사됨.

【 복숭아 생산량 전망 】

단위 : ha, kg/10a,톤, %

	성목면적	단수	생산량
2009년	8,813	2,250	194,317
2010년	8,623	2,022	197,559
증감률	-2.2	-10.1	-12.1

주: 2010년 성목면적은 통계청 확정치에서 동해피해로 고사된 면적을 제외함.

자료: 통계청(2009년 성목면적, 생산량), 농업관측센터 6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2010년 성목면적, 생산량).

【 월별 출하량 작년대비 증감률 】

단위 : %

	7월	8월	9월 이후
성목면적	-2.7	-5.1	9.2
단수	-28.0	-5.3	-8.8
출하량	-30.0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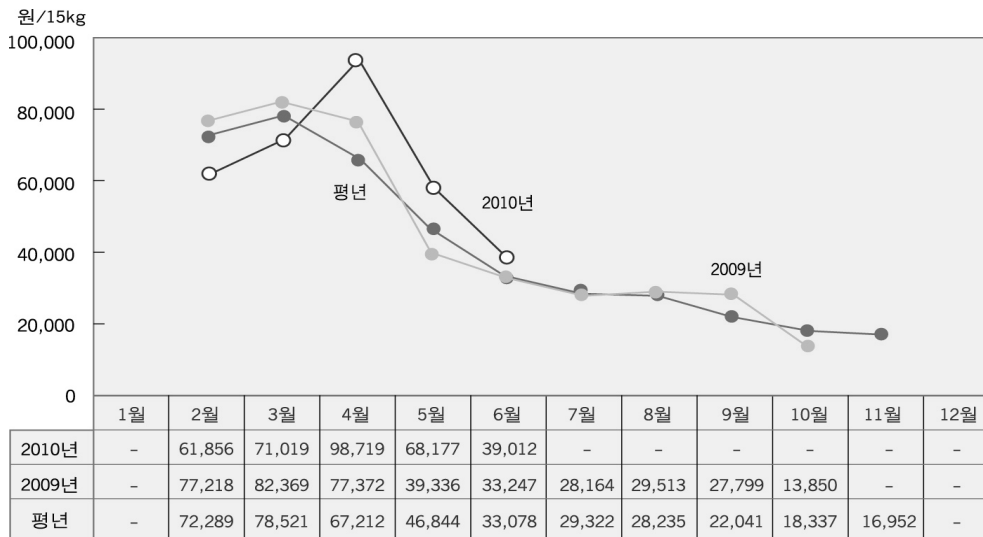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6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4. 과채⁹⁾

4.1. 참외

- 참외 2/4분기 4월 도매가격은 상품 15kg 상자에 9만 3,700원, 5월은 5만 8,200원, 6월은 3만 9천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각각 21%, 48%, 17% 높았음.
- 4월, 5월은 주산지 기상악화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와 비상품과 발생 증가로 반입량이 작년 동월보다 각각 73%, 35% 줄었음. 6월은 대체과일 수량 부족과 소비증가로 가격이 높았음.
- 참외 7월 가격은 최근 높았던 가격의 영향으로 출하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참외 도매가격(상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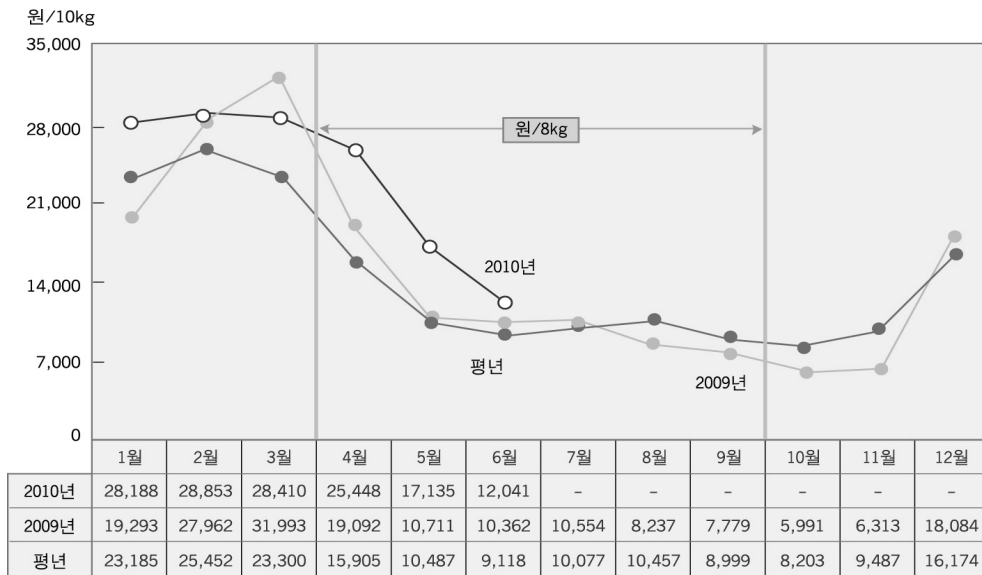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2005~2009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9)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정호근 부연구위원(hogunc@krei.re.kr), 김수림(surim@krei.re.kr), 지현서(kpnu@krei.re.kr), 김종규(jkkim@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4.2. 수박

- 수박 2/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에 4월은 2만 5,400원, 5월은 1만 7,100원, 6월은 1만 2천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각각 33%, 60%, 16% 높았음.
- 4월은 영남, 충남지역에서 정식 및 출하 지연으로 반입량이 작년보다 67% 적었음. 5월은 작황부진과 주산지 재정식으로 인한 출하지연으로 반입량이 41% 줄었고, 6월은 대체과일 부족과 고온으로 소비가 꾸준하였음.

【수박 도매가격(상품)】



주: 평년가격은 2005~2009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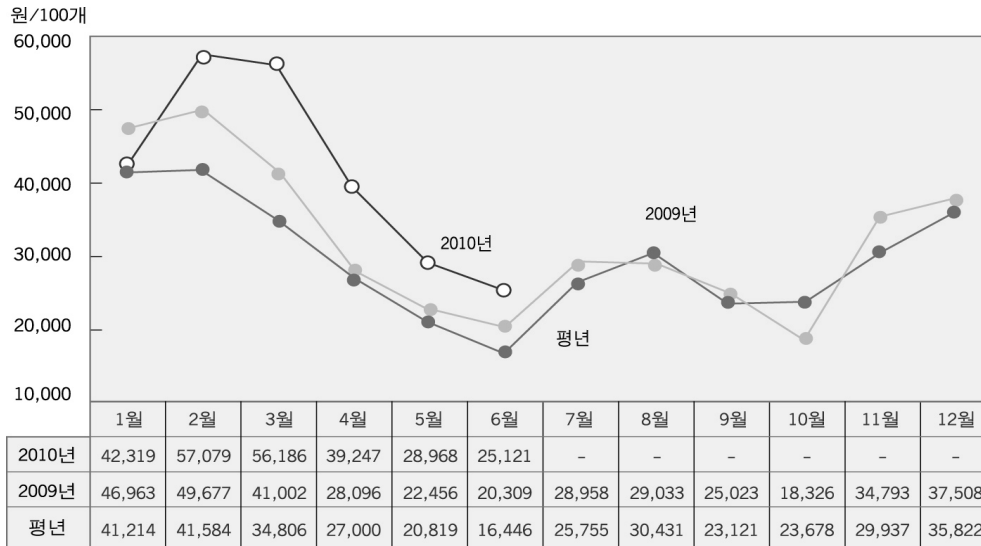
- 수박 7월 가격은 주산지에서 정식시기와 전작기 출하 지연으로 6월 출하가 7월로 지연되고, 재정식으로 인한 4월 정식면적 증가로 출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은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시설수박 7월 정식면적은 전북, 충남에서 출하기 가격상승 기대로 작년보다 8% 증가하고, 8월 정식면적은 전남, 충남에서 고추, 피망, 오이, 애호박, 풋고추 등

타작목으로 전환하여 작년보다 2% 감소하며, 노지수박 6월 정식면적은 경북에서 노지고추로 전환하였고 전남과 충남은 노동력 부족 및 병해충 발생 증가로 작년보다 4% 감소함.

4.3. 오이

- 백다다기오이 2/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 100개에 4월 3만 9,200원, 5월 2만 9천원, 6월 2만 5,100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각각 40%, 29%, 24% 높았음.
- 4월은 주산지 잦은 강우와 일사량 부족으로 반입량이 작년보다 29% 적었음. 5월, 6월은 오이 수요가 증가하였고 중순 강수 영향으로 중하순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음.
- 백다다기오이 7월 출하면적은 강원 홍천에서 정식시기를 앞당겨 재배가 늘고 충남 천안에서 반촉성작형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나 작년보다 4%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하지만 봄철 이상기온 영향이 남아있는 충청지역의 작황이 부진하여 단수는 작년보다 2% 낮을 것으로 조사됨. 단수가 낮지만 출하면적 증가로 출하량 많아져 가격은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백다다기오이 7월 정식면적은 지난 4개월 동안 가격이 높아 강원 홍천에서 2기작면적이 늘고 충남 천안은 신규시설면적이 늘어 작년보다 4%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 취청오이 2/4분기 가격은 상품 50개에 4월 2만 1,300원, 5월 1만 8,400원, 6월 1만 8,400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각각 41%, 17%, 33% 높았음.
- 호남지역에서 일사량 부족 등 기상적 요인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반입량은 작년 동월보다 각각 31%, 3%, 4% 적었기 때문임.

【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상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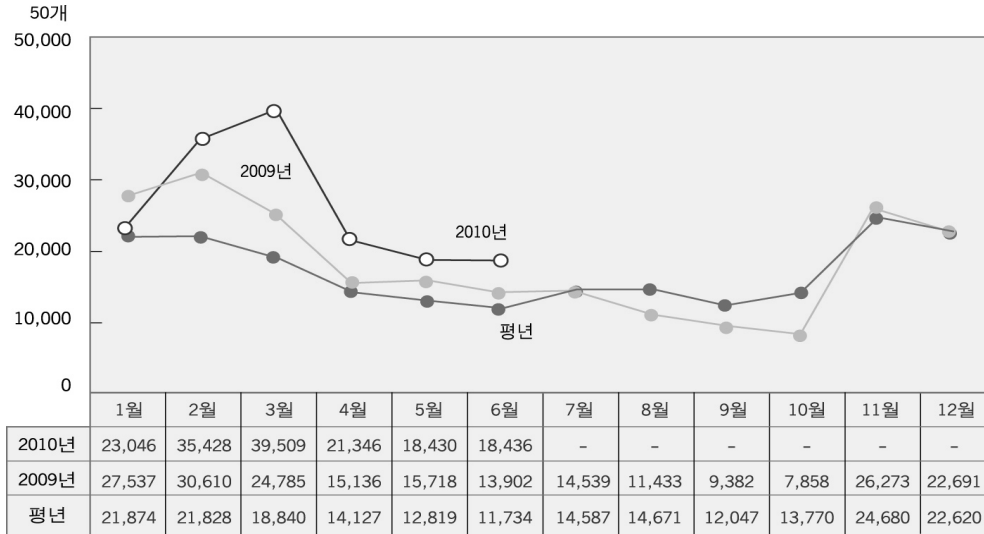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2005~2009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 취청오이 7월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7%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강원 홍천은 취청 오이 가격이 높게 유지되어 재배를 늘리고 충남 천안은 지자체 시설 지원사업으로 신규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출하량은 충청지역의 작황부진으로 단수가 낮지만 출하면적이 늘어 작년보다 6% 많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가격은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취청오이 7월 정식면적은 최근 가격이 높아 경기 평택, 충남 연기에서 여름 재배가 늘고 천안은 토마토를 재배하던 농가가 취청오이로 전환해 작년보다 5%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취청오이 도매가격(상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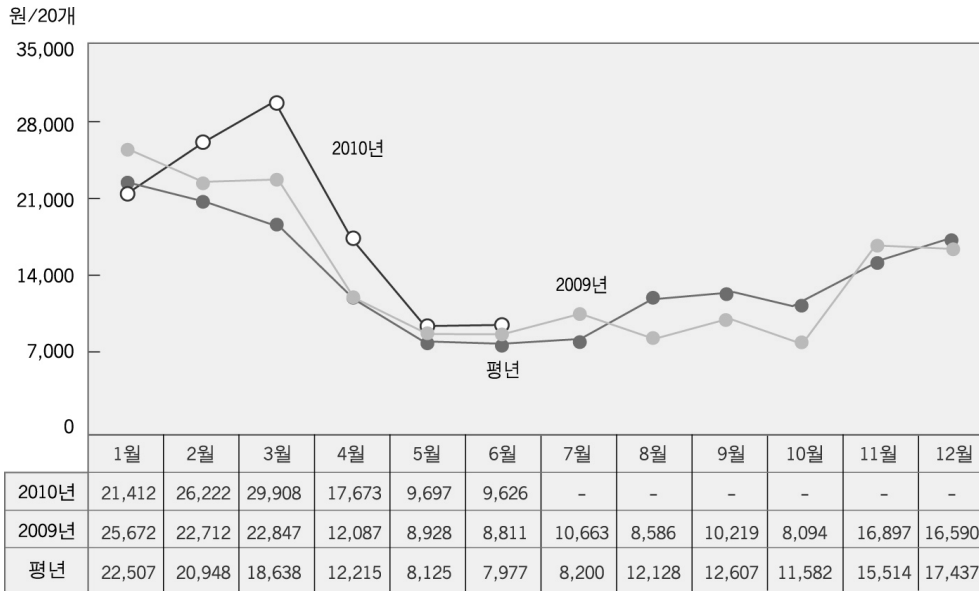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2005~2009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4.4. 호박

- 애호박 2/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 20개에 4월 1만 7,600원, 5월 9,700원, 6월 9,600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각각 45%, 9%, 9% 높았음.
- 잦은 강우로 인한 영남, 호남지역의 일조량 부족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반입량이 작년 동월보다 각각 36%, 7%, 19% 적었기 때문임.
- 애호박 7월 출하면적은 강원 화천에서 출하면적이 늘고, 경기 양주, 이천에서 최근 애호박 가격이 높아 재배를 연장할 것으로 나타나 작년보다 4%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7월 단수는 봄철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충청, 호남지역의 작황이 부진하여 작년 동월보다 2% 낮을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출하면적이 늘어 7월 출하량은 작년 동월보다 1% 많아 가격은 작년 동월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애호박 7월 정식면적은 강원지역에서 재배규모가 늘고 충남 부여는 수박을 재배 하던 농가가 애호박으로 전환하여 작년 동월보다 6%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 애호박 도매가격(상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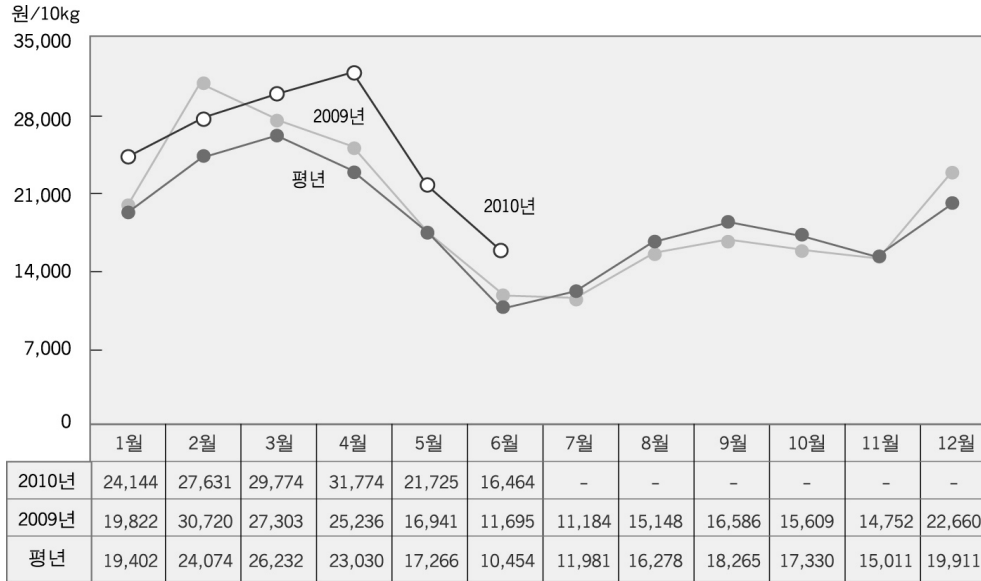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2005~2009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4.5. 일반토마토

- 2/4분기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은 상품 10kg 한 상자에 4월 3만 1,800원, 5월 2만 1,700원, 6월 1만 5,500원이었음. 2분기 평균가격은 2만 3천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8% 높았고, 평년 동기보다도 36% 높았음.
- 일반토마토 4월, 5월 반입량은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각각 28%, 1% 적었음. 6월은 회복세로 작년 동기보다 30% 많았지만 대체과일의 출하가 지연되고 꾸준한 홍보효과로 인한 소비 증가로 가격은 높게 형성되었음.
- 일반토마토 7월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2%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호남지역과 충청지역에서 풋고추, 멜론, 오이 등으로 전환할 것으로 나타남. 7월 도매가격은 제철과일(포도, 복숭아)의 출하지연에 따른 수요증가로 가격은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상품) 】



주: 평년가격은 2005~2009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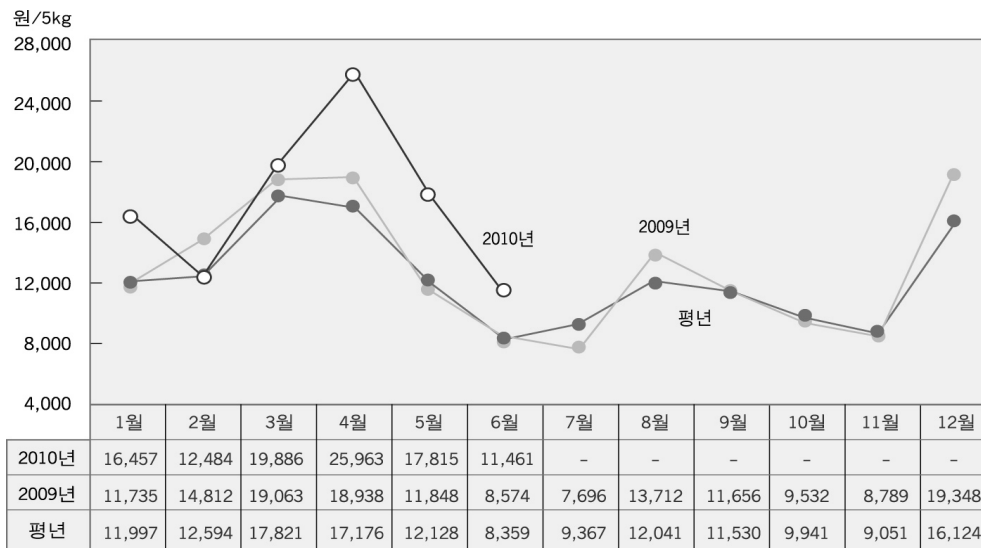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4.6. 방울토마토

- 2/4분기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상품 5kg 한 상자에 4월 2만 6,000원, 5월 1만 7,800원, 6월 1만 1,500원이었음. 2분기 평균가격은 1만 8,4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0% 높았고, 평년 동기보다도 47% 높았음.
- 4월 방울토마토 반입량은 작년 동기에 비해 34% 적었으며, 5월, 6월도 각각 14%, 36% 적었음. 4~6월 전체 반입량은 작년 동기에 비해 28% 적었고, 평년 동기보다도 26% 적은 수준이었음.
- 방울토마토 7월 가격은 3~5월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인한 단수 감소로 출하량이 적어 작년보다 17% 높은 상품 5kg 한 상자에 8천~1만원으로 전망됨.

- 7월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2%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경기 평택은 가격 강세의 영향으로 정식이 증가하지만, 전남 지역은 노동력 부족과 딸기, 고추 등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늘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상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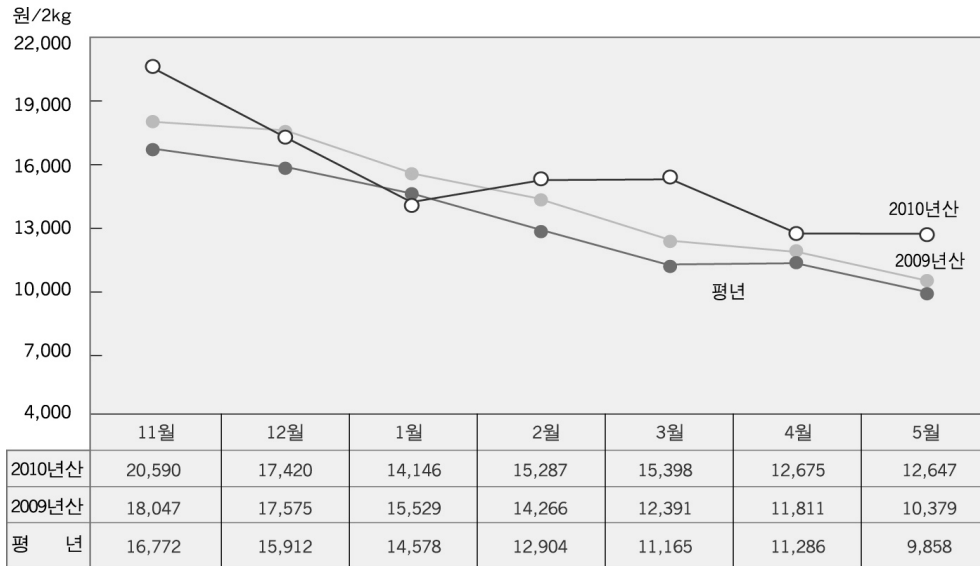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2005~2009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4.7. 딸기

- 4~5월 딸기 도매가격은 상품 2kg 한 상자에 4월 1만 2,700원, 5월 1만 2,600원이었음. 평균가격은 1만 2,7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4% 높았고, 평년 동기보다 47% 높았음.
- 기상조건 악화로 4월 딸기 반입량은 작년 동기에 비해 9% 감소하였으나, 5월은 가격 호조로 막바지 반입량이 늘어 59% 증가함.
- 2010년산 딸기 생산량은 작년에 비해 적은 일사량과 많은 강우량으로 수량이 전국적으로 줄어 작년보다 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딸기 도매가격(상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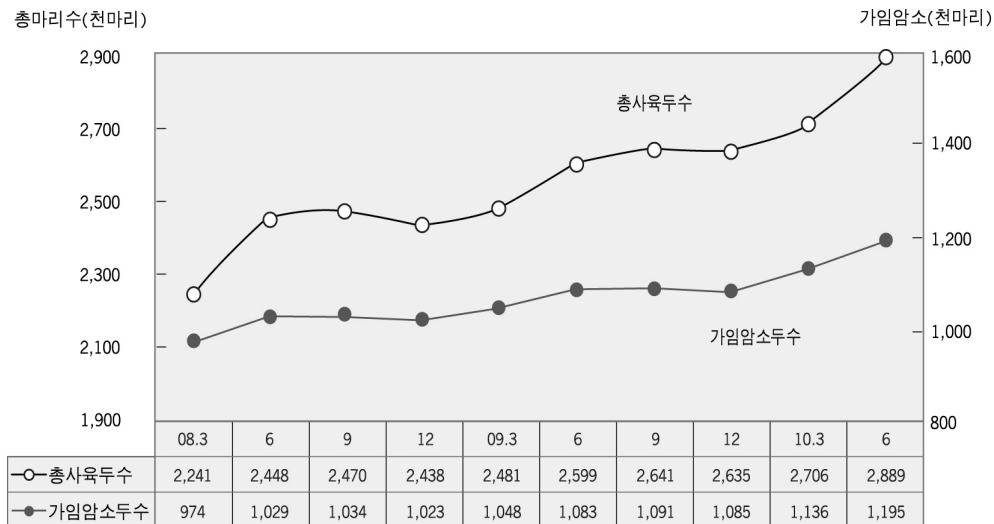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2005~2009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5. 축산¹⁰⁾

5.1. 한육우

- 송아지 생산 증가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출하가 지연되어 2010년 6월 한육우 사육두수는 288만 9천 두로 전년 동기에 비해 11.2% 증가함.
- 6월 가임암소는 119만 5천두로 전년 동기대비 11만 2천두(10.3%) 증가하였으나, 사육 가구 수는 17만 5천호로 전년 동기보다 2천호(1.1%) 감소함.

【 한육우 사육두수 변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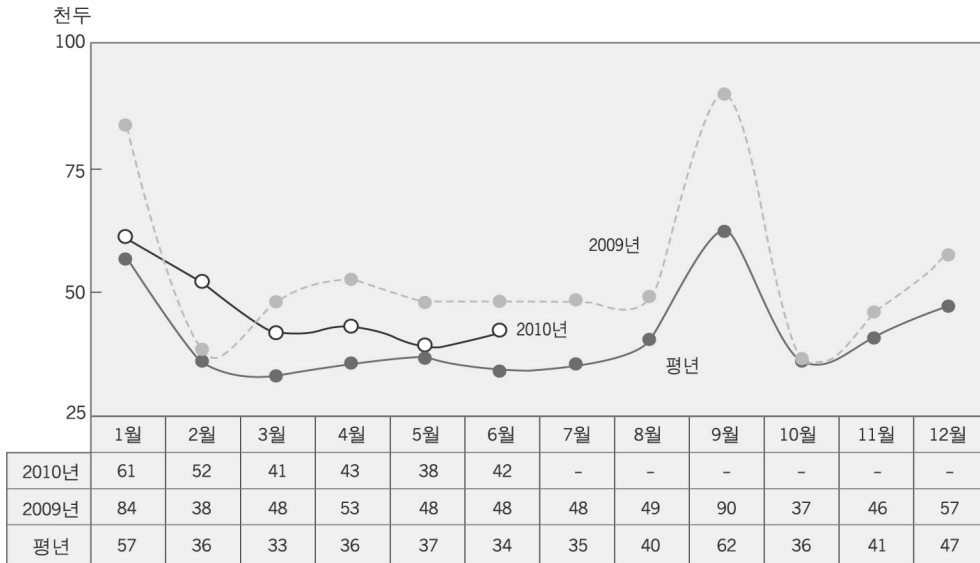
주: 2008년 가축통계 표본 개편과 09년 3월 통계조사방법 변경으로 층이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 2010년 1~6월 한우 등급 판정 마리수는 2009년 동기간보다 12.4% 감소한 27만 8천 마리였음. 그 중 한우 암소 등급판정 마리수는 12만 1천 마리(전년대비 15.4% 감소), 거세우는 13만 4천 마리(전년대비 18.6% 증가), 비거세 수소 도축은 2만 3천 마리(62.3% 감소)였음.

10)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허덕 연구위원(huhduk@krei.re.kr), 이형우(lhw0906@krei.re.kr), 김원태(wtkim@krei.re.kr), 송준호(jhseung @krei.re.kr), 채상현(csh0331@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한우등급판정두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사육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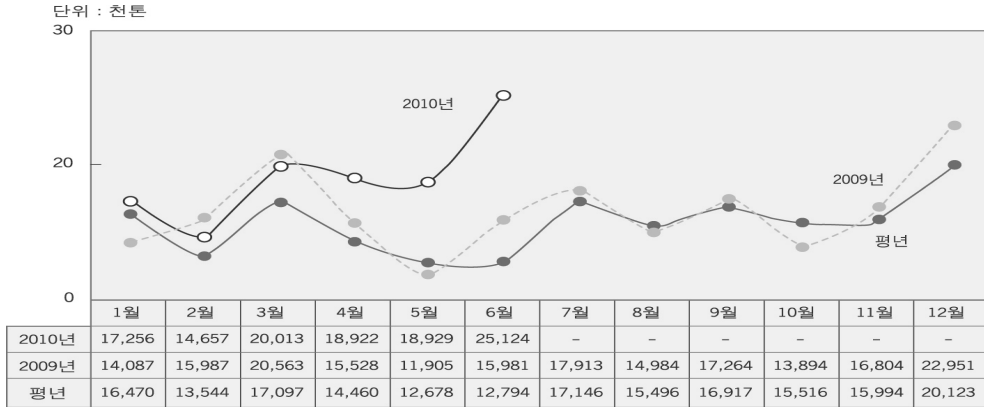
【 한우 월별 등급판정두수 현황 】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1~6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간보다 22.2% 증가한 11만 5천 톤이었음. 그 중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3만 8천 톤(전년 동기간대비 50.5% 증가)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호주산은 5만 7천 톤(10.9% 증가), 뉴질랜드산은 1만 9천 톤(14.8% 증가)이었음.
- 구제역 발생, 수출국의 적극적인 프로모션 등으로 쇠고기의 수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산 쇠고기의 시장 점유율은 32.9%로 전년(25.3%)보다 7.6%p 상승하면서 수입량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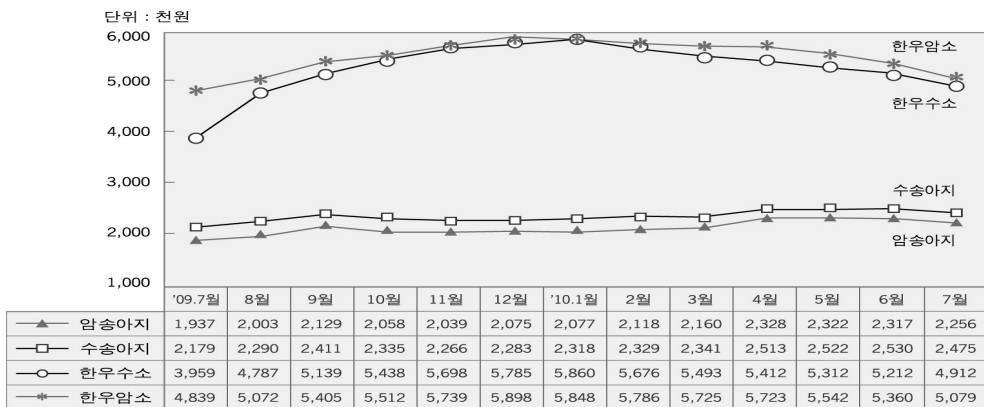
【 쇠고기 월별 수입현황(검역기준) 】



자료: 국립수위과학검역원.

- 2010년 2월 이후 한우 수소의 산지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1월 한우 수소 산지가격(600kg 기준)이 586만원을 정점으로 7월에는 491만원까지 하락함(1월 보다 16.2% 하락) 7월 암소 가격은 508만 원(6월보다 5.3% 하락), 수송아지 가격은 248만 원(6월보다 2.2% 하락) 암송아지는 226만원(6월보다 2.7% 하락)이었음. 가축시장이 재개장되면서 수송아지 가격이 일시적으로 높게 형성되었으나, 이후 수소 가격 하락으로 입식의향이 줄고 송아지 공급이 증가하면서 송아지 가격도 하락세로 전환됨.

【 한육우 산지 가격 변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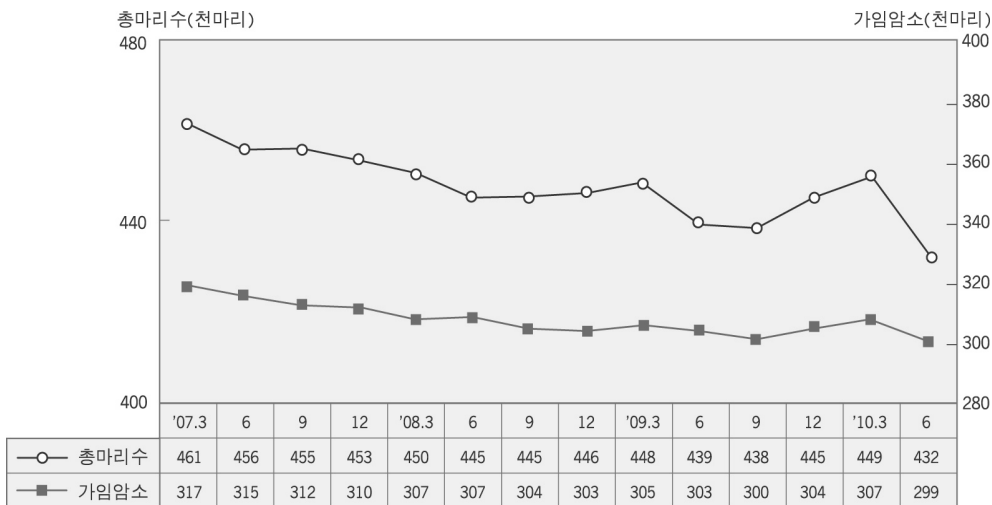
주: 한우 수소 및 암소는 600kg 기준임. 2010년 2월은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시장이 폐쇄되어 1, 3월 평균값을 적용함. 7월은 23일까지 평균가격임.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5.2. 젓소

- '10년 6월 젓소 사육두수는 송아지 생산 감소 및 구제역에 따른 살처분 등으로 전분기보다 17천두($\Delta 3.8\%$), 전년 동기보다 7천두($\Delta 1.6\%$) 감소한 43만 2천 두였음. 가임암소 두수는 29만 9천두로 전년 동기보다 4천두($\Delta 1.3\%$) 감소함.
- '10년 6월의 1세 미만 두수는 전년 동기보다 3천두($\Delta 3.5\%$) 감소한 8만 2천두였음. 1~2세 두수는 10만 2천두로 전분기보다 5천두($\Delta 4.7\%$), 전년 동기보다 2천두($\Delta 1.9\%$) 감소하였음. 2세 이상 두수는 전분기보다 6천두($\Delta 2.4\%$), 전년 동기보다 3천두($\Delta 1.2\%$) 감소한 24만 8천 두였음.
- '10년 6월 젓소 사육호수는 6천 4백호로 전년 동기보다 5백호($\Delta 7.2\%$) 감소하였음. 50두 미만은 2천 2백호로 전년 동기보다 4백호($\Delta 15.4\%$) 감소하였고 50두 이상은 4천 2백호로 1백호($\Delta 2.3\%$) 감소하였음.

【 젓소 사육두수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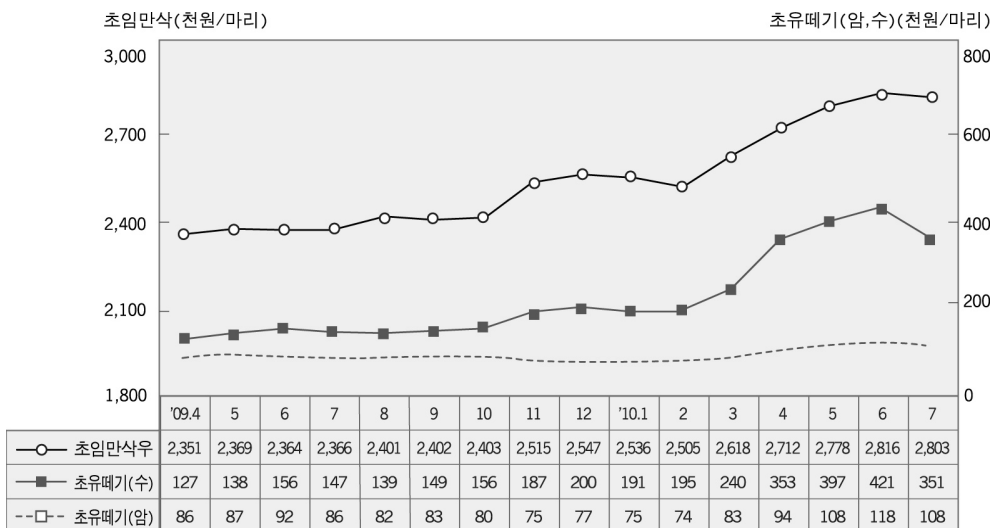


주: 08년 가축통계 표본개편과 09년 통계조사 방법의 변경으로 3월 조사 결과와 이전 결과 사이에 단층이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가축통계

- '10년 6월 50두 미만 사육농가의 사육두수는 전년 동기보다 1만 2천두(Δ 13.8%) 감소, 50두 이상은 4천두(1.1%) 증가한 35만 7천두였으며, 특히 100두 이상 사육농가의 사육두수는 전년 동기보다 1만 2천두(10.3%) 증가하였음. 호당 사육두수는 '10년 6월 63.9두에서 '10년 6월 67.2두로 3.3두(5.2%) 증가함.
- 젓소 산지가격 변동
 - 초유폐기(암송아지): '10년 2분기 초유폐기 암소의 평균 산지가격은 10만 7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0.5%, 전분기보다는 37.9% 상승하였음. 7월 20일까지 산지가격은 10만 8천원으로 전월보다는 다소 하락하였음.
 - 초유폐기(수송아지): '10년 2분기 초유폐기 수소의 평균 산지가격은 39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8%, 전분기보다는 87.1% 크게 상승하였음. 7월 20일까지 산지가격은 35만 1천원으로 전월보다 크게 하락하였음.
 - 초임만삭우: '10년 2분기 초임만삭우 평균 산지가격은 276만 9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3%, 전분기보다는 8.4% 상승하였음. 7월 20일까지 산지가격은 280만 3천원으로 전월보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젓소 산지가격 변동 】



주: 7월 산지가격은 20일까지 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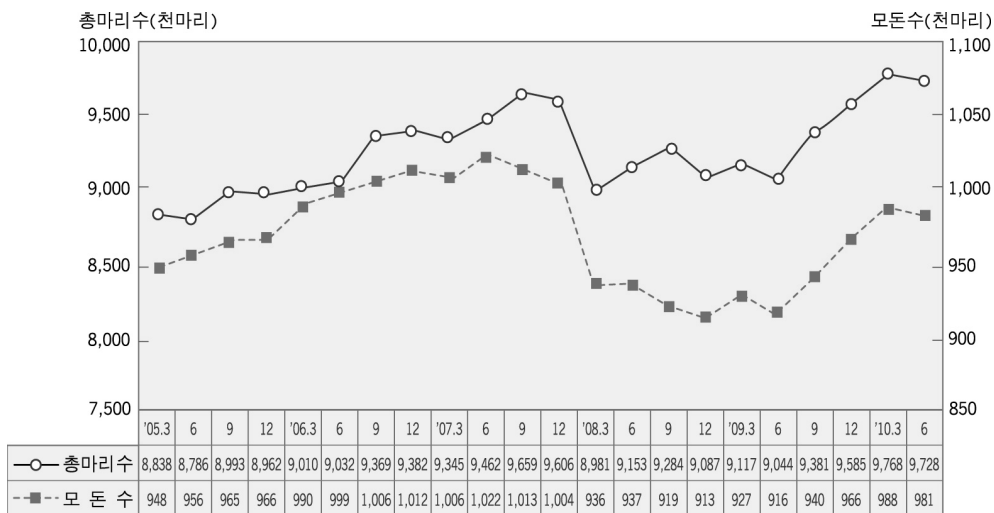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 2010년 4~6월 원유 생산량은 54만 3천 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0.7% 증가하였음.
같은 시기 원유 소비량은 81만 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1.8% 증가하였음.

5.3. 돼 지

- '10년 6월 돼지 사육 마리 수는 백신 보급 확대에 생산성이 향상되어 전년 동월보다 7.1% 증가하였지만 3월보다는 0.4% 감소한 972만 8천 마리임. 모돈 수는 98만 1천 마리로 전년 동월보다 7.1% 증가하였음.

【 돼지 사육두수 동향 】



주: 08년 가축통계 표본 개편으로 이전 결과 사이에 층이 발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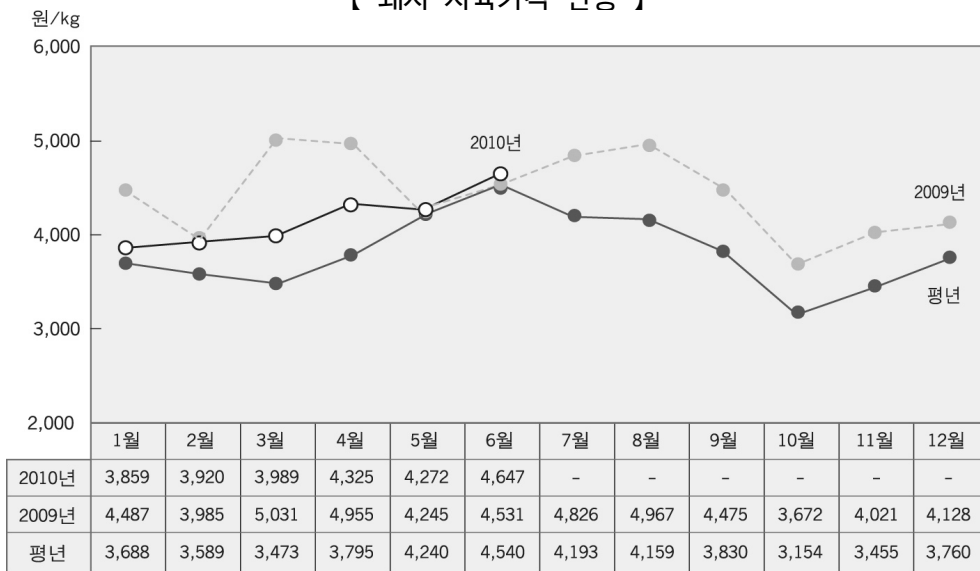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 돼지 도축 마리 수 및 돼지고기 수입
 - '10년 4~6월 돼지 도축 마리 수는 전년 동기보다 7.6% 증가한 355만 마리
 - '10년 4~6월 돼지고기 수입량은 국제 돼지고기 가격 상승과 수입 돼지고기 수익성 저하로 전년 동기보다 18.7% 감소한 5만 6천 톤이었음.

● 돼지 가격 변동

- 돼지 지육가격은 사육 마리수 증가에 따른 공급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10년 2분기 전국 공판장 평균 지육가격은 kg당 4,415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5% 낮았음. 7월 가격(23일까지)은 4,717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2% 낮은 수준임.

【 돼지 지육가격 변동 】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 9월 사육마리수 1천만 마리 전망

- 9월 사육마리수: 1,001만 마리(6.7% 증가)
- 12월 사육마리수: 997만 마리(4.0% 증가)

● 금년 8~내년 1월 공급량 5.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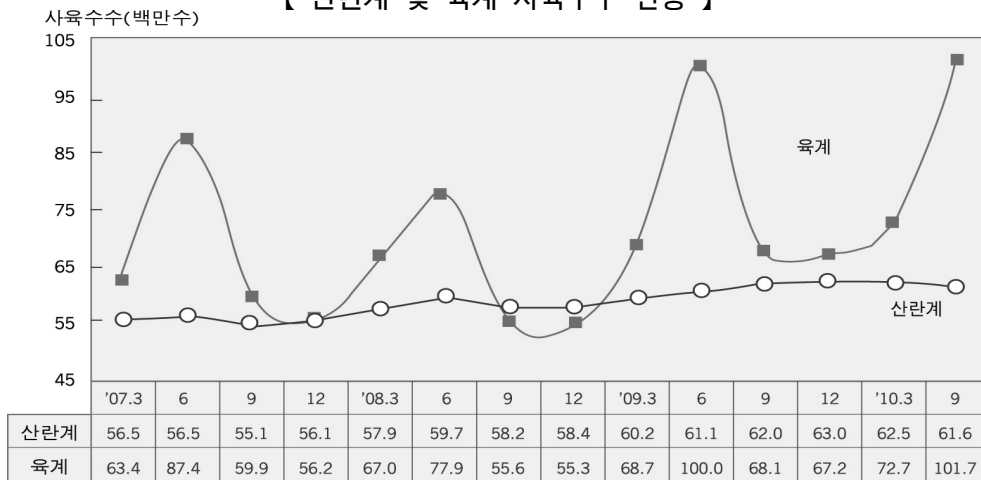
- 돼지 출하마리수: 6.6% 증가 전망
- 돼지고기 수입량: 3.0% 증가 전망
- 돼지고기 공급량: 5.2% 증가 전망

- 11월 이후 가격 회복세 전환 전망
 - 8월: kg당 4,500~4,700원 전망(전년 동월보다 5.4~9.4% 하락)
 - 9월: 4,100~4,300원(전년 동월보다 3.8~8.4% 하락)
 - 10월: 3,500원 저점 이후 상승세 전환
 - 11~12월: 3,800~4,100원
 - 내년 1월: 3,900~4,200원

5.4. 닭

- 산란계는 계란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입식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노계 도태 마리수보다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마리수가 더 많아 6월 산란계 사육수수는 전년 동기보다 증가하였음.
 - 6월 산란계 사육수수는 6,159만수로 3개월 전보다 1.5% 감소, 전년 동기보다 0.7% 증가
- 종계 입식 마리수 증가에 따른 병아리 생산 증가로 2010년 6월 육계 사육 마리수는 1억 169만 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하였음.

【 산란계 및 육계 사육수수 변동 】



주: 통계조사방법의 변경으로 단층이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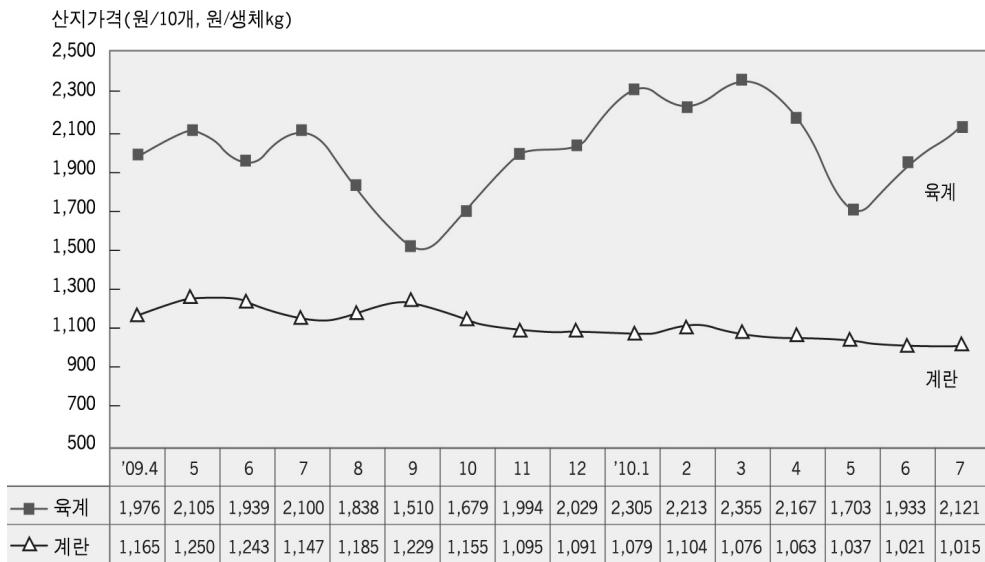
● 계란 산지가격 변동

- 2010년 1분기 계란 산지가격은 산란용 마리수 증가 및 계속된 노계 도태 지연으로 계란 생산량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8.1% 하락한 1,086원(특란 10개)임.
- 2분기 농가의 생산 감축 노력과 대형 유통점의 할인 행사에도 불구하고 사육 규모 확대에 따른 과잉 생산이 지속되어 2분기 계란 산지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14.7% 하락한 1,040원으로 낮게 나타남. 비수기에 접어든 7월에는 계란 가격이 하락하여 1,015원대에서 형성되고 있음.

● 육계 산지가격 변동

- 공급물량이 전년보다 증가하여 2010년 4~6월 육계 가격은 전년 동기간보다 3.6% 상승한 1,934원/kg으로 나타남.
- 6월은 월드컵 특수로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복날 수요에 대비한 공급 물량이 증가하면서 7월(1~23일) 육계 평균 산지가격은 kg당 2,121원으로 전년대비 1.0% 상승함.

【 양계산물의 산지가격 변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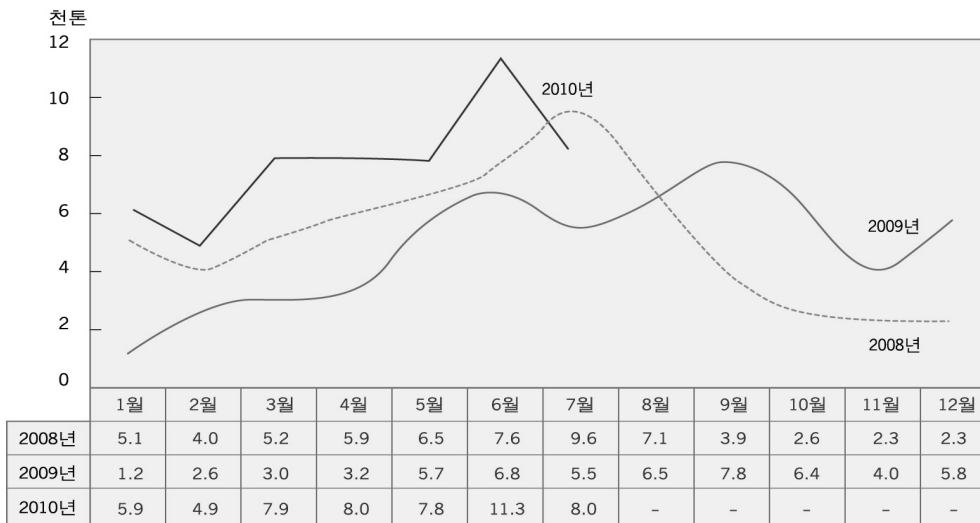


주 : 계란 산지가격은 특란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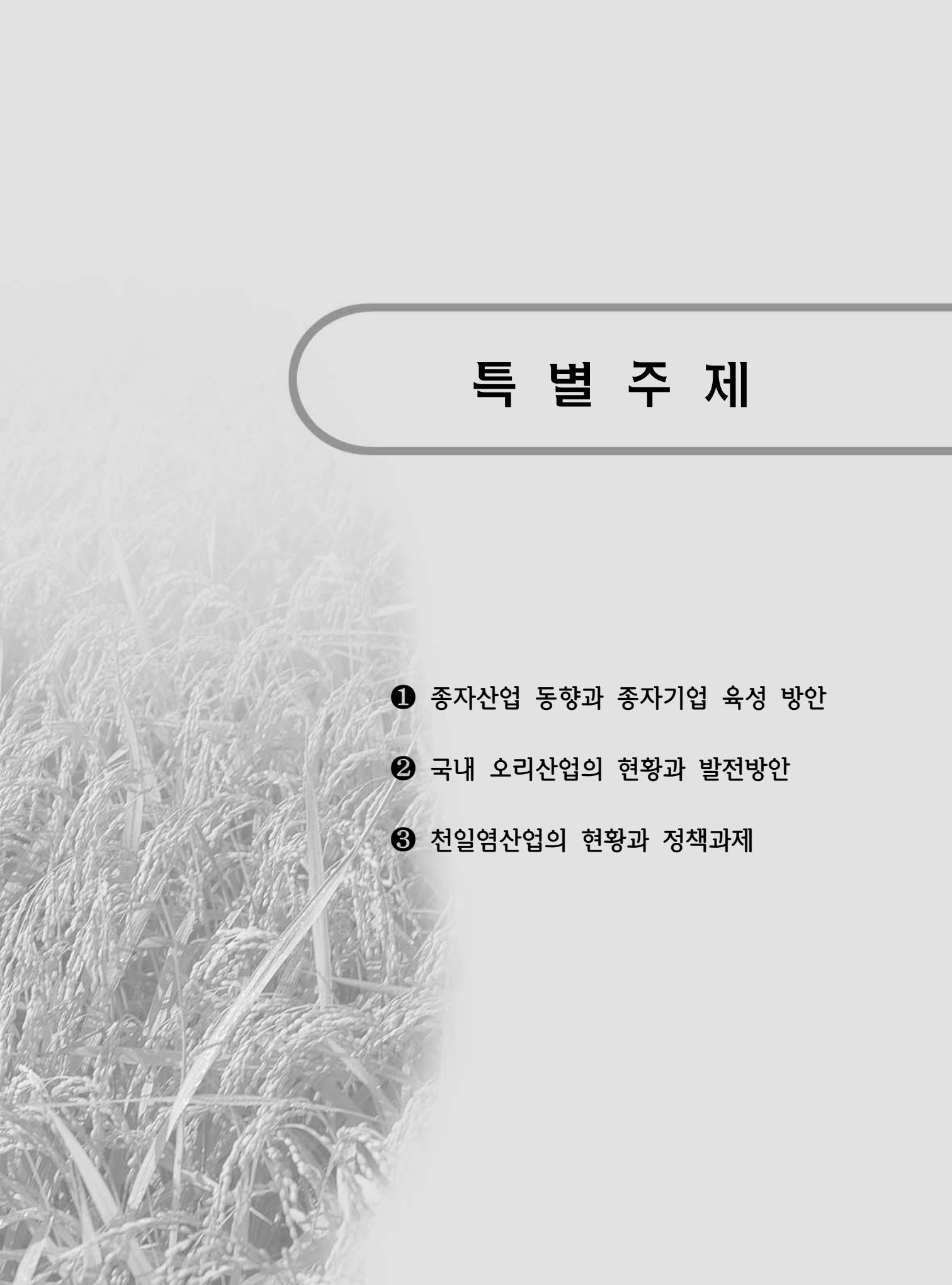
자료: 농협중앙회.

- 10월 이후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도계 마리수 증가에 따른 닭고기 공급량 증가가 예상되어 9, 10월 육계 산지가격은 각각 1,400~1,600원/kg, 1,500~1,700원/kg으로 전년보다 약세 전망
 - 10월 이후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 급락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종계 도태 필요
- 종계 병아리 입식수수
 - 2010년 2분기 산란 종계 입식수수는 10만 8천수로 전년 동기(18만 1천수)보다 40.2% 감소하였음.
 - 지속적인 병아리 가격 강세로 2010년 2분기 육용 종계 입식수수는 155만수로 전년 동기보다 17.6% 증가함.
 - 닭고기 수입(검역기준)
 - 국내 가격이 강세를 보였고, 전년보다 환율이 안정됨에 따라 2010년 2분기 닭고기 수입량은 2009년 동기간(16만 톤)보다 크게 증가한 27만 톤으로 나타남.

【 닭고기 월별 수입 현황(검역기준) 】



주 : 2010년 7월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자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특 별 주 제

- ❶ 종자산업 동향과 종자기업 육성 방안
- ❷ 국내 오리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 ❸ 천일염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특별 주제 1】

종자산업 동향과 종자기업 육성 방안¹⁾

박 기 환*

1. 서 론

- 종자는 부가가치가 높고 첨단과학기술의 접목이 용이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종자 산업을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으로 인식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종자산업은 전통적인 교배육종을 통한 신품종 개발이라는 단순한 접근에서 벗어나 의약 및 재료산업 등과의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나노기술 등을 활용한 종자 개발 연구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 국제적 거대기업 또한 종자 분야가 미래의 유망한 산업이라는 인식 하에 인수합병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종자기업의 규모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특히, 글로벌 종자기업들은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하여 유용형질에 관여하는 원천 유전자를 탐색하고, 탐색된 유전자의 기능을 확인하여 경쟁적으로 특허 출원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내 종자기업 간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구조였으나,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글로벌 종자기업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면서 종자산업을 둘러싼 생산, 유통, 수출입 등 여러 가지 여건이 크게 변화되었음.
- 이와 같이 종자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은 크게 변화하고 있으나, 국내 종자

1) 이 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종자산업의 동향과 국내 종자기업 육성 방안”(박기환외 2010)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여 작성하였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kihwan@krei.re.kr)

산업은 종자선진국에 비해 그 기반이 여전히 취약한 상태임.

- 전체 종자시장 규모는 세계시장의 1.1%에 불과한 실정이며, 민간 종자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채소종자의 경우 글로벌 기업의 인수합병 이후에도 시장규모가 1,600~1,800억원 내외로 정체하고 있음.
- 더욱이 종자기업은 소수업체를 제외하고는 자본, 인력, 매출액 등이 영세하여 산업으로서의 국제경쟁력은 낮은 상태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자산업은 식량자원을 확보하는 기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생명공학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농업부문에서 반드시 육성해야 할 가치가 있음.
 - 또한, 종자 선진국의 유전자원 확보경쟁과 품종보호권 강화에 대응하여 국내 종자산업 및 종자기업 육성이 필요한 시점임.
 - 우리나라는 다행히 무, 배추, 고추 등 일부 채소종자의 경우 육종기술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고, 최근 정부에서도 종자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간주하여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발전의 토대가 형성되어 있음.
 - 이 때문에 종자산업과 종자기업의 체질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종자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충분함.
- 이 연구는 종자산업의 현황을 진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 종자 강국의 종자산업을 검토한 후, 종자산업과 종자기업의 발전을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국내 종자산업 동향 및 문제점

2.1. 종자 생산 및 수출입 현황

2.1.1. 식량작물 종자

- 벼, 보리, 콩, 감자 등 주요 식량작물 종자는 국민의 안정적인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품종 개발부터 종자생산, 처리, 유통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주도하는 구조로 발전해 왔음.
 - 식량작물 종자의 전체 생산액은 약 830억원이며, 이 중 정부보급종이 83.7%인 695억원, 민간 생산이 136억원 내외임.

【 식량작물 종자 시장 규모 】

단위: 억 원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계
정부보급종	519	29	17	11	119	695.0
민간시장	11	1	0.5	37	86	135.5
계	530	30	17.5	48	205	830.5

자료: 신중수, 「종자강국 세계시장에서 답을 찾다!」, 농촌진흥청, 2010.

- 주요 식량작물의 종자 수출입 실적을 살펴보면, 수출은 대부분 감자종자로 베트남 등에 2009년 24만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남.
- 식량작물의 종자 수입은 옥수수가 가장 많은데 매년 120~200만달러 내외가 주로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감자종자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수입되었으나, 이후 거의 수입되고 있지 않음.

2.1.2. 채소종자

- 국내생산과 해외채종을 합한 채소 종자생산량은 121만kg으로 200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종자 생산량이 가장 많은 배추와 무의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 분류별로는 근채류가 전체의 4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엽채류가 32.2%, 조미채소류 13.8%, 과채류가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근채류는 비중이 1995년 약 70% 내외를 차지한 것에 비하면 감소 경향이 뚜렷하며, 엽채류와 조미채소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
- 과채류 종자의 생산량은 많지 않은 편으로 비중이 3% 내외에 불과하며, 2009년 5.7%로 약간 증가한 정도에 그침.

【 주요 작목별 채소종자 생산량 】

단위: kg, %

	엽 채 류			근 채 류		과 채 류		조미채소		계
	배추	양배추	시금치	당근	무	수박	호박	고추	파	
1990	109,517 (14.5)	2,064 (0.3)	64,926 (8.6)	21,954 (2.9)	459,888 (61.0)	4,598 (0.6)	8,181 (1.1)	19,560 (2.6)	25,628 (3.4)	753,909
2000	292,511 (14.3)	26,010 (1.3)	235,929 (11.5)	63,267 (3.1)	1,079,154 (52.6)	30,519 (1.5)	20,892 (1.0)	56,037 (2.7)	107,782 (5.3)	2,052,373
2005	212,949 (12.7)	79,247 (4.7)	223,501 (13.3)	43,412 (2.6)	862,183 (51.4)	12,432 (0.7)	23,248 (1.4)	62,837 (3.7)	44,079 (2.6)	1,677,347
2009	134,281 (11.1)	78,807 (6.5)	129,084 (10.7)	39,591 (3.3)	543,233 (45.0)	17,808 (1.5)	23,707 (2.0)	48,853 (4.1)	77,585 (6.4)	1,205,939

주: ()안은 계에 대한 구성비임.

자료: 한국종자협회.

- 우리나라 채소종자 생산은 해외채종이 시작된 이래로 해외채종 비중은 급증하고 있는데 1991년 15.4%에 불과하던 비중이 2000년 70.5%, 2005년 73.3%, 2009년 78.0%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해외채종이 증가하는 것은 국내지가 및 노임상승에 의한 생산비 증가로 채종 여건의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후조건 등 품목특성에 따른 국내 채종의 어려움 때문임²⁾.

2) 지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채종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종자기업들이 중국, 태국 등 채종비용 부담이 적은

- 작목별로는 당근, 상추, 시금치, 고추의 해외채종 비율이 97~99%로 대부분 해외채종에 의존하는 반면, 생산량이 많은 배추는 외국에 비해 채종조건이 불리하지 않아 타 작목보다 해외채종 비중이 40%로 낮음.

【 채소종자의 품목별 해외채종 비중 】

단위: %

	엽 채 류			근 채 류		과 채 류		조미채소		계
	배추	양배추	시금치	당근	무	수박	호박	고추	파	
1991	-	-	31.4	4.2	19.2	-	-	-	-	15.4
2000	27.2	77.5	98.8	98.0	68.9	89.1	87.5	93.4	89.2	70.5
2005	29.1	92.9	97.2	97.7	69.0	92.9	91.1	95.9	91.8	73.3
2009	40.1	95.0	96.9	99.1	70.9	95.0	92.7	96.6	93.8	78.0

자료: 한국종자협회.

- 채소종자 수출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 생산량이 많은 무와 배추 중심이었으나, 이들 품목의 수출비중은 매년 감소하는 반면, 2000년대 들어 고추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추 비중이 가장 높은 구조로 변화하였음.
 - 채소종자 주요 수출국은 2000년 일본이 가장 큰 비중(38.3%)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인도, 중국 등의 순인데 이들 국가의 점유율이 71.7%로 상당히 높음.
 - 2009년도의 경우 대일본 수출비중이 가장 높지만(20.4%), 2000년에 비해 낮아졌으며, 미국의 비중이 크게 증가(3.9%→18.6%)하여 일본, 미국, 중국, 인도 등 수출국이 상대적으로 다양화되는 경향이 나타남.
- 해외채종을 제외한 채소종자의 순 수입액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시금치와 양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재배품목 변동으로 시금치의 수입액이 급격히 감소하였음.

국가에 종자 생산기지를 확보하고 있음. 또한 채소는 통상 6~7월에 채종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시기가 우기로 채종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반면, 이탈리아, 뉴질랜드, 미국 등은 건기로 채종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 해외채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토마토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웰빙붐에 따라 재배면적이 크게 늘면서 수입비중이 증가하였으며, 파프리카는 재배면적 증가로 2005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임.
- 채소종자 수입국은 2000년 일본이 대부분(97.0%)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그 비중이 크게 감소(62.3%)한 반면, 파프리카 재배면적 급증으로 네덜란드에서 종자를 수입하는 실적이 증가(2.0%→27.0%)하였음.

【 채소종자의 품목별 수출 실적 】

단위: 천 달러, %

	엽채류		근채류		과채류		조미채소	계
	배추	양배추	당근	무	오이	토마토	고추	
1990	794 (13.0)	28 (0.5)	1 (0.0)	3,599 (59.1)	913 (15.0)	52 (0.9)	101 (1.7)	6,095
2000	2,981 (16.6)	1,605 (8.9)	537 (3.0)	6,389 (35.5)	131 (0.7)	60 (0.3)	3,542 (19.7)	18,002
2005	1,942 (12.7)	1,796 (11.8)	201 (1.3)	4,392 (28.7)	120 (0.8)	176 (1.2)	5,039 (33.0)	15,277
2009	1,999 (10.2)	2,515 (12.9)	821 (4.2)	4,127 (21.1)	1,033 (5.3)	676 (3.5)	5,950 (30.4)	19,563

주: ()안은 계에 대한 구성비임.

자료: 한국종자협회.

【 채소종자의 품목별 순 수입 실적 】

단위: 천 달러, %

	엽채류		근채류		과채류		조미채소		계
	시금치	양배추	당근	무	토마토	단고추	양파	파	
1990	1,415 (59.0)	363 (15.1)	-	1 (0.1)	-	74 (3.1)	278 (11.6)	-	2,397
2000	1,037 (9.0)	416 (3.6)	825 (7.2)	585 (5.1)	1,206 (10.5)	137 (1.2)	6,464 (56.1)	441 (3.8)	11,521
2005	802 (14.1)	63 (1.1)	456 (8.0)	739 (12.9)	630 (11.0)	215 (3.8)	1,771 (31.0)	254 (4.5)	5,710
2009	275 (3.5)	41 (0.5)	498 (6.3)	872 (11.0)	1,804 (22.7)	1,670 (21.0)	1,909 (24.0)	411 (5.2)	7,954

주: ()안은 계에 대한 구성비임.

자료: 한국종자협회.

2.1.3. 과수 및 화훼종자

- 과수는 일부 개인육종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육종하고 있으며, 정확한 시장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실정임.
 - 과종별 시장규모는 사과가 195억원, 감귤 55억원, 감 41억원, 복숭아 40억원 등 총 408억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음.

【 보급량 기준 과수종자 시장규모 】

단위: 백 만원

	사과 (이중)	사과 (자근대)	배	복숭아	포도	매실	감	감귤	기타	계
규모	2,480	17,063	1,750	4,000	1,890	1,890	4,080	5,520	2,135	40,808

주 1) 시장규모는 과수 보급량(2005년 기준)에 2009년도 과종별 종자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값임.

2) 기타는 밤, 양앵두를 포함함.

자료: 신종수, 「종자강국 세계시장에서 답을 찾다!」, 농촌진흥청, 2010에서 발췌.

- 화훼종자·종묘 판매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08년 판매액은 2000년 대비 4.4배 증가한 70억원 정도이며, 참고로 화훼 구근류 판매액은 2008년 기준으로 약 45억원 내외로 나타남.

【 화훼종자·종묘 판매액 추이 】

단위: 백 만원

	2000	2005	2006	2007	2008
판매액	1,605	15,639	9,349	7,897	7,024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화훼재배현황」, 각 연도.

- 과수목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실적은 2000년대 초반 증가 추세였으나, 이후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화초용 초본식물 종자 수입은 2000년 237만 달러에서 2005년 383만 달러, 2009년 650만 달러로 2000년 대비 2.7배 증가하였는데, 주로 미국과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음.

- 과수목과 화초용 초본식물 종자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출 실적은 많지 않아 과수·화훼종자의 무역수지 적자는 확대되는 실정임.

【 과수 및 화훼종자 수출입 실적 】

단위: 천 달러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과수목	수입	118	53	111	205	188	155
	수출	4	13	3	18	-	-
화초용 초본식물	수입	2,367	3,828	3,742	4,722	4,084	6,498
	수출	31	753	68	25	8	29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통계.

2.2. 국내 종자기업 동향

- 우리나라는 경제 악화로 인한 IMF 관리체제 하에서 종자기업의 인수·합병이 본격화되었는데, 1997년 3월 일본의 Sakata사가 청원종묘를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1997년 10월 서울종묘가 스위스 Novatis사에 인수합병 되었으며, 미국 Seminis사는 흥농종묘와 중앙종묘를 인수하였음.
- 1990년대 후반 국내 종자회사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M&A 이후, 2001년 1월에는 세계 최대 농업전문기업인 신젠타가 작물보호 분야의 신젠타 코리아(주) 한국법인 설립하고, 국내 노바티스사를 인수하여 종묘사업 부문의 신젠타종묘가 업무를 시작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진출하였음.
 - 흥농종묘와 중앙종묘를 인수·합병한 세미니스 아시아(주)는 기존의 흥농종묘와 중앙종묘의 브랜드를 계속 유지하다가 2008년 1월 몬산토에 합병되어 현재는 몬산토 코리아가 종묘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일본의 다끼이 종묘회사는 2001년 5월 국내 기업의 인수·합병이 아닌 신규법인

설립 형태로 우리나라에 진출하여 종묘사업을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1, 2차 인수·합병을 통해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종자기업은 현재 몬산토, 신젠타, 바이엘 크롭사이언스, 사카타, 다끼이 등 총 5개 기업이 있음.

【 국내 진출 다국적 종자회사의 인수합병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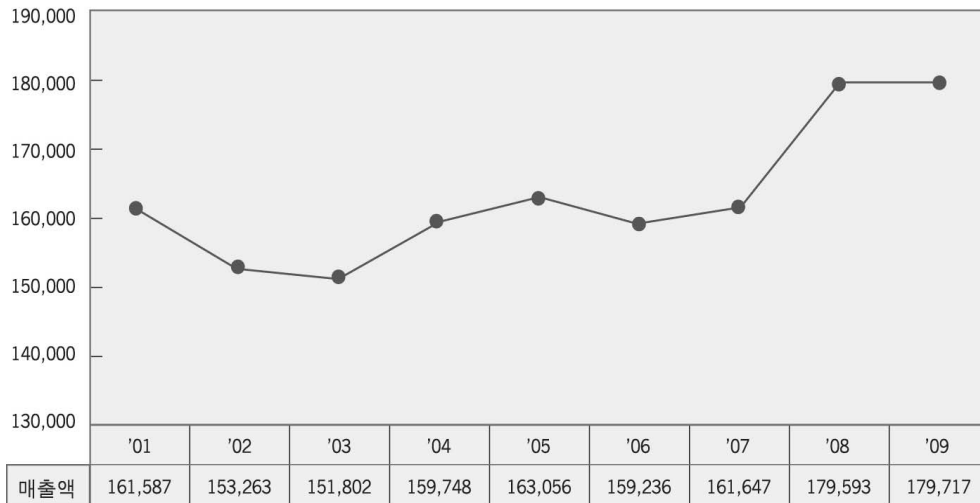
	합병이전 기업명	1차 인수합병	2차 인수합병(시기)	업체명
M&A	청원종묘	Sakata	-	사카타 코리아
	서울종묘	Novatis	신젠타 (2001.1)	신젠타 종묘
	홍농종묘	Seminis	몬산토 코리아 (2008.1)	몬산토 코리아
	중앙종묘	Seminis		
	씨텍스	-	바이엘크롭사이언스 (2007.7)	바이엘크롭 사이언스
비 M&A	한국 다끼이 신규법인 설립(2001.5)			

자료: 신종수, 「종자강국 세계시장에서 답을 찾다!」, 농촌진흥청, 2010.

- 종자회사의 인수·합병이 진전된 이후 채소종자 매출액은 2001~2007년까지 큰 변화 없이 1,600억원 내외를 유지하다가 2008~2009년 1,800억원대까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정체 내지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이처럼 종자산업은 외국 기업의 인수 영향 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농업부문 축소 등으로 인해 매출액 증가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상당기간 정체 상태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채소종자 매출액이 정제함에 따라 관련 종업원 수도 2001년 1,308명, 2005년 1,332명, 2009년 1,293명으로 최근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연도별 채소종자 매출액 추이 】

단위: 백만 원



자료: 한국종자협회.

- 주요 품목별 채소종자 매출액을 살펴보면, 생산량 비중이 높은 무, 배추, 시금치의 경우 매출액 비중(2009년)이 각각 17.1%, 8.8%, 2.2%에 불과하여 기업측면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품목 위주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반면, 생산량 비중이 3~4%인 고추와 양파의 매출액은 10~19% 내외, 수박은 생산량 비중이 1.5%에 불과하나 매출 비중은 6.4%로 이들 품목의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2.3. 국내 종자산업의 문제점

2.3.1. 국내 종자시장 정체 및 업체의 영세성

- 도시화에 따른 경작지 및 농가 수 감소 등 전반적인 농업부분 축소로 인해 종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국내 종자시장 규모가 정체 내지 축소 경향이 나타남.
 - 더욱이 종자품질의 향상과 육묘산업의 성장으로 자가육묘에 비해 손실률이 크게 감소하면서 단위면적당 종자 소요량이 상당히 감소하였음.

- 이와 같이 협소한 국내 시장으로 기업이 종자산업에 투자를 기피함에 따라 종자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많은 업체들이 제한된 내수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규모가 영세한 종자업체가 난립함에 따라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영세업체들의 난립으로 종자 가격의 덩핑, 종자 사고에 대한 불명확한 책임 소재와 취약한 배상 능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3.2. 글로벌 품종의 육종기술 취약

- 우리나라 채소종자의 경우 김치의 주원료인 배추, 고추, 무 품목에 대한 품종 육종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나, 고부가가치의 글로벌 품목인 양파, 토마토, 양배추, 파프리카 및 기타 양채류 품목의 육종 기술과 유전자원은 부족한 상황임.
 - 다국적 기업들은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집중화하여 원천기술의 선점 및 고부가가치 품종개발에 전력하고 있으나, 식량작물 종자 산업은 국가주도의 구조로 조곡인 벼에 집중한 결과, 보리, 옥수수, 콩, 감자 등 다양한 식량작물의 종자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임.
 - 화훼 및 과수종자는 최근 국내 육성 품종육종의 점유율이 일부 작물에서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품종의 점유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며, 로열티 대응을 위한 방어 전략에 머물고 있어 세계시장을 위한 공격적 전략은 아직도 부족한 수준임.

2.3.3. M&A 이후 종자산업의 역효과 발생

- 다국적 종자회사들의 국내 진출로 국제수준의 품질관리 기준 및 종자처리 기술 등이 도입되어 종자품질의 향상을 촉진한 긍정적 효과도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추, 배추, 무 등의 육종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나,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진출로 한국의 독보적인 기술이 현재 광범위

하게 활용되는 기술로 변모해 버렸음.

- 다국적 기업을 통해 해외 유전자원이 도입된 측면도 있으나, 우리나라 토종 유전자원 또한 유출되는 부정적 요소도 있음.
- 더욱이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사업집중화를 실시하고, 아시아 거점을 우리나라에서 중국·인도로 이전함으로써 연구개발 예산이나 연구 인력이 감축되는 상황도 발생하였음.

2.3.4. 종자관련 전문인력 양성 부족

- 종자산업은 미래 식량전쟁에 대비한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이에 종사할 전문 인력의 양성은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나, 국내 종자기업들의 신규 전문인력 채용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한국 진출 다국적 기업들도 전문인력을 대폭 축소한 실정임.
- 대부분의 국내 농과대학들도 첨단 생명공학 분야 위주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교육과정을 전환시켜 전통육종을 연구할 전문인력의 양성이 미흡하여 향후 종자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2.3.5. 수출시장 개척 미흡

- 국내 종자시장은 농업부문 축소 등의 영향으로 시장규모가 정체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수출 증대가 필요함.
- 향후 우리의 주요한 수출국으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 부상될 가능성이 높는데 특히 중국의 경우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고품질 농산물 소비가 확대되고 있어 종자수출의 최적 국가로 평가되고 있음.
- 이 때문에 글로벌 종자기업들이 중국 등의 국가에 다양한 형태로 진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는 있으나, 이들 국가에 적합한 수출 품종개발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수출 대상국의 종자시장에 대한 정보 및 소비자 기호 분석도 미흡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함.

- 특히, 신흥 종자수출 시장인 중국에는 국내 진출 기업들간 과당 경쟁으로 수출 단가가 하락하여 수익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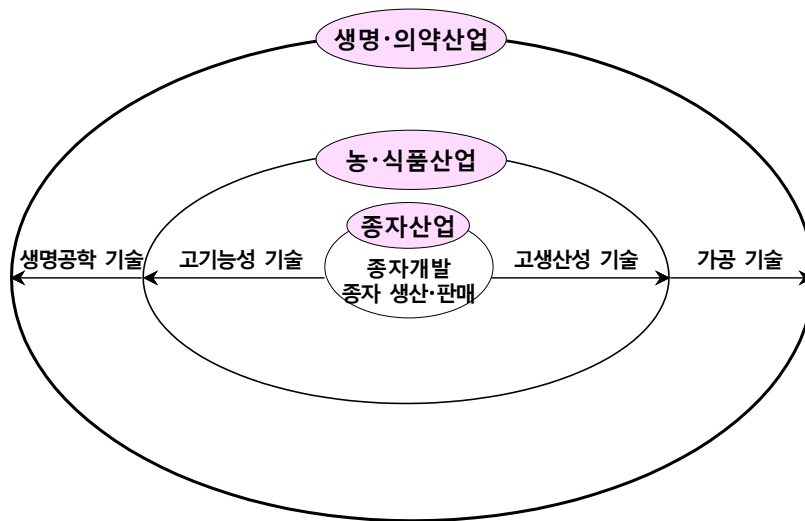
3. 종자산업 및 국내 종자기업 발전 방안

3.1. 종자산업 전망

- 종자를 개발·생산해 판매하는 전통적 종자산업에서 고생산성, 고기능성 종자를 개발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기능성 식품을 생산함으로써 농식품 산업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과 비중은 더욱 커질 것임.
 - 종자가공 및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종자 또는 동식물의 활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종자산업이 의약산업, 생명산업 등과 융복합산업으로 발전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됨.
- 신품종 종자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종자기업간의 경영권 이합집산이 부단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다국적 기업들은 거대한 자금력과 유통망을 내세워 군소 종자기업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인수합병 하면서 더욱 특화되고 대형화된 종자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
 - 이와 더불어 세계 각국은 종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전자원 확보를 통한 종자주권을 강화할 것이며, 유용 유전자원과 유전공학기술 등을 활용한 품종 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 새로운 품종이나 육종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생명공학적 연구에서 큰 성과가 남에 따라 품종권 보호가 강화되면서 대규모 다국적 종자회사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3) 중국 시장에서 교배종 무 종자는 한 때 한국산이 70%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경쟁력이 있었으나,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1980년대 1당 150달러에서 최근에는 30달러 내외까지 판매가격이 크게 하락하였음.

【 종자산업의 영역 확대 】



3.2. 종자산업 발전 방향

3.2.1. 종자산업의 융복합산업화 추진

- 세계 종자산업은 기존의 IT, BT 및 NT산업과의 접합을 통한 새로운 신물질 개발이 광범위하게 시도되고 있으며, 나노기술을 활용한 종자 개발 연구도 활발히 전개되는 등 첨단생명공학산업이 접목된 융복합산업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량성, 내재해성, 내병충성 등의 신품종을 개발하여 종자산업이 명실상부한 융복합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이와 같이 종자산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유용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세계 각국은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는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업들이 영세하여 원천

기술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한 실정임.

- 이 때문에 모든 분야의 원천기술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단기적으로는 현재 기술을 회피하는 연구를 진행하며, 장기적으로 원천기술을 개발하도록 함.

3.2.2. 수출확대를 통한 미래유망산업화 도모

- 종자산업은 세계화되어 다양한 종자들이 교역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품질이 좋은 품종의 종자는 시장이 획기적으로 넓어지고 있어 국제적인 시장 확대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종자수출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 국내의 우수한 육종능력과 유전자원이 확보되어 있는 작물부터 집중 투자하여 수출지역 기후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 가능한 신품종을 육성하는 등 수출지향적 품종개발을 추진해야 함.
 - 수출지향적 품종이 개발되더라도 해당 국가에 강력한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없으므로 현지의 가공 및 유통 관련 기업과 제휴하여 시장 확대를 추구하는 등 종자산업이 수출 주도형 미래유망산업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3.2.3. 경쟁력 있는 글로벌 종자전문기업 육성

- 글로벌 종자기업은 이미 독과점 체제가 고착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집중화·대형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세계 종자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규모화된 기업의 육성이 절실함.
 - 그러나 국내 종자산업이 처한 여건 상 몬산토나 듀폰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규모는 다소 작지만 몇 가지 작물군에 집중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품종을 육성·판매하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문종자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이들 기업들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상호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가

확대되도록 유도함으로써 향후 경쟁력 있는 글로벌 종자전문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3. 국내 종자기업 육성 방안

- 종자산업과 관련된 세계적인 흐름은 정부 주도형에서 민간기업 중심으로 전화하는 추세이며, 민간기업 육성을 통해 종자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임.
 - 이 때문에 전체적인 종자산업 발전 방향 속에서 국내 종자기업이 어떻게 육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와 정부 육성대책의 주요 이슈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3.3.1. 식량작물의 민간이양을 통한 종자시장 규모 확대

- 벼,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 등과 같은 식량작물은 그동안 정부주도로 보급종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 보급종의 민간이양이 국제적인 추세이며, 장기적으로는 종자시장이 확대됨으로써 종자기업의 대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정부 보급종의 민간이양으로 국가 연구기관은 기초 연구에 전념하고 상업화 연구는 민간에 맡길 수 있는 분업화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나, 정부 주도의 보급종 생산·보급으로 민간시장의 형성이 미흡한 상태이고, 민간시장 관리 시스템이 미정착되어 있는 실정임.
 - 더욱이 정부 보급종의 민간 이양 시 가장 큰 문제는 공급가격이 현실화되어 종자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곧 농가의 부담으로 직결됨.
 - 현재 정부 보급종은 제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손실 부분은 정부 기금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데 2008년산 농작물의 결산 결과를 보면, 약 98억 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정부 보급종 생산원가와 공급가 비교(2009년도) 】

단위: 원

	생산원가	공급가격	차액
벼(20kg)	36,095	26,500	9,595
겉보리·청보리(20kg)	22,646	22,160	486
쌀보리(20kg)	24,312	23,160	1,152
콩(5kg)	25,258	11,700	13,558

자료: 국립종자원.

- 더욱이 민간부문이 정부 보급종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품종개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그동안 채소종자 위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식량종자 육종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임.
 - 또한, 정부 보급종 취급을 위해서 정선시설, 창고 등 신규투자가 필요하고, 채종을 위한 대규모 단지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신규투자의 여력이 부족함.
- 따라서 정부 보급종 사업의 민간이양 등은 추진하되, 참여가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함.
 - 예컨대 감자는 상당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어 있어 계획대로 내년부터 민간 이양 추진이 가능하겠으나, 옥수수는 민간부문이 시설 및 하드웨어가 구비된 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3.2. 개인육종가 활용과 인력양성으로 민간역량 강화

- 개인 육종가는 어떠한 형태든 종자기업과는 경쟁관계일 수밖에 없으나, 개인 육종가에 따라서는 특정부분에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육종가와 종자회사를 연계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일본과 같이 종자기업에서 소재 제공 및 투자 → 개인 육종 → 개발된 종자를 기업에서 판매하는 등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이 함께 어우러진 연계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인 육종가를 개별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작물별로 결집시켜 지원·육성함으로써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살릴 수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함.
- 국내 종자회사는 규모가 영세하여 양성된 육종인력을 채용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육종인력의 공급 이전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경영기반을 확대하는 지원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3.3.3. 국내 종자생산 기반 조성 및 지원 확대

- 종자는 경제·기후적 문제 등으로 해외채종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유전자원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채종이 바람직함.
- 국내채종이 유전자원의 유출을 막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나, 종자기업의 국내채종 전환에 대한 지원이 한시적일 경우 지원 종료 후 다시 해외채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오히려 해외채종이지만 상실하는 상태를 유발할 수 있음.
 - 따라서 국내채종이 정착될 때까지 보다 장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3.3.4. 수출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규모화

- 국내 종자기업의 규모화를 위해서는 종자시장 규모가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며, 종자시장 확대는 종자의 F1 전환이나 새로운 품종이 나와야 하지만, 이미 채소는 대부분 교잡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종자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수출을 통한 종자시장 규모 확대 노력이 필요함.
- 기업이 국별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여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첫째, 개척 대상인 목적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육종 목표의 설정으로 대상 시장에서 필요로 할 것으로 예측되는 품종의 스펙을 정하고, 둘째, 설정한 목표에 최대한

접근하는 품종을 육성하는 과정으로 여러 가지 관련 기술이 총 망라되는 작업을 거쳐, 셋째, 육성된 품종을 가지고 목표 시장에 진입하여 종자를 판매하는 3단계 과정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내 종자기업이 효율적으로 수출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일사(一社) 일 지역(一地域) 일품목(一品目)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 즉, 동일 시장에 여러 회사가 중복 진출하여 우리나라 기업 간의 과당 경쟁으로 새로 육성된 좋은 품종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함.

3.3.5. 품종보호제도의 실효성 제고로 개발자 보호 강화

- 품종보호제도는 개발자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제도로써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될 경우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연구·개발한 품종을 보호할 수 있게 되므로 기업의 확대 재생산이 가능하게 됨.
- 품종보호권 침해 시비 발생 시 국가기관이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선진기술이나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보완해 나가야 함.
 - 품종보호권 침해 시비 발생 시 현행 재배시험을 통한 구별성 판정 기준과 더불어 DNA마커 분석이나 기타 품종의 구별성을 판단 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제도 도입이 요구됨.
 - 품종보호 침해 의심 품종이 발견 되었을 때 실질적인 소송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국가 기관에 재배 시험을 의뢰하여 침해 여부를 사전에 판단 받은 후 법적 절차를 통해 품종보호권자의 권리가 보호 받을 수 있는 사전 시험재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친고죄로 되어 있는 침해죄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가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함으로써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함.

4. 결 론

- 종자산업은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요소이며, 첨단기술이 접목된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농업부문에서 반드시 육성해야 할 가치가 있음.
- 종자산업은 향후 영역 확대와 함께 유전자원 확보를 통한 종자주권 강화와 글로벌 종자기업의 집중화·대형화 진전이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 종자산업 발전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더욱이 종자산업과 관련된 세계적인 흐름은 정부 주도형에서 민간기업 중심으로 전화하는 추세이며, 민간기업 육성을 통해 종자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종자기업 육성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 때문에 종자산업 현안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종자산업 및 국내 종자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하였음.
- 종자 선진국은 종자산업과 농업계의 관계가 성숙한 단계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나 지원이 종자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종자산업이 미성숙된 경우에 정부차원의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국내 종자산업은 발전의 디딤돌을 갖추기가 어려움.
 -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종자산업 육성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개선과제 도출은 물론, 향후 현 단계보다 구체적인 종자산업 발전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특별 주제 2】

국내 오리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¹⁾

허 덕*, 이형우**, 경준형***

1. 오리산업의 개요

1.1. 오리산업의 특성

- 오리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오리 사육수수는 2007년도에 처음으로 천만수를 넘어, 2000년대 초반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음. 호당 사육수수 또한 1천수를 상회하는 수준에 이름.
 - 국민 소득의 증가와 함께 육류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 웰빙(well-being)의 인기와 함께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급증하였고,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오리고기의 기능에 대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오리고기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중소규모 계열업체의 사육물량 확대에 사업기반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 또한 계열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전체 사육농가의 80%에 달하는 사육농가들이 계열화에 참여하고 있음.
 - 일부 계열업체가 종자오리 사육을 포함한 일관 생산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계열 생산 형태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됨.
 - 2004년부터 추진된 종자오리 개량사업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폐킨종

1) 이 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오리 산업 현황과 관측기법 연구”(허 덕 외 2010)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여 작성하였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연구위원(huhduk@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연구원(lhw0906@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연구원(jhkyung@krei.re.kr)

종자오리 사육수수의 60% 내외가 혈통이 증명되는 종오리(Parent stock; PS)로 교체되는 성과를 거양함.

-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던 국내 오리산업은 2003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발생으로 수요가 크게 위축되면서 일시적으로 소비가 감소한 경험이 있으며, 2008년에 또 한번 HPAI가 재발함으로써 다시 위기를 맞은 바 있음.
 - 2008년 4월 1일 3차 HPAI 재발 이래 같은 해 8월 15일 HPAI 청정국 선언을 함. 그러나, 닭고기와 계란에 비해 오리고기의 소비 회복 속도는 매우 더디었음.
 - 이는 오리고기 전문 취급점인 가든형 식당이 오리고기의 소비 감소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여타 육류 판매로 업종을 전환하여, 타 품목에 비해 수요처가 한정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됨.

1.2. 오리의 품종

가. 난용종

- 인디안 러너(Indian Runner)
 - 원산지는 동남아시아로 깃털 색깔에 따라 종이 다양함.
 -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털색은 갈색과 백색이 섞였으며, 부리는 황색이고 다리는 오렌지색임. 다른 오리와는 달리 자세가 곧으며 목과 몸이 긴 것이 특징임.
 - 체질이 강건하여 사양관리가 용이하며, 알을 잘 낳으면서 고기 맛도 좋은 것으로 평가됨.
 - 체중은 암컷이 1.4~2.0kg, 수컷이 1.6~2.3kg 정도이며, 연간 150개에서 200개 정도를 산란함. 난각색은 흰색 또는 담녹색임.

- 카키 캠벨(Khaki Campbell)
 - 캠벨종에는 암색종, 백색종, 카키종 등이 있음. 주 사육 품종은 카키종임.
 - 카키 캠벨종은 인디안 러너종의 암컷과 르왕종의 교배종임. 수컷의 머리와 목, 날개는 청동색이며, 부리는 녹색, 다리는 검은 오렌지색임. 체질이 강건하여 넓은 장소에 방사(放飼)하기 적당함.
 - 부화 후 5~6개월 성장하여 알을 낳으며, 다산종으로 1년에 200~300개를 산란함. 알의 무게는 75g 정도이며, 알껍질은 백색을 띠고, 성숙시 체중은 암컷이 1.8~2.2kg, 수컷이 2.0~2.5kg 정도임.

나. 육용종

- 르왕(Rouen)
 - 가장 오래된 품종 중의 하나이며, 프랑스가 원산지임. 몸 형태는 수평의 자세를 가지며, 수컷은 머리와 목이 녹색에다 순백색의 띠가 둘러져 있고, 암컷은 전체가 진한 갈색임. 성질이 온순하고 체질이 강건하며 육질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알의 무게는 75g 정도로 담록색이며, 1년에 약 80개 정도의 알을 낳음. 체중은 암컷이 3.9~4.1kg, 수컷이 4.5~5.0kg 정도임.
- 에일스버리(Aylesbury)
 - 영국이 원산으로 털색은 암수 모두 희고 윤이 나며, 몸집은 길고 넓음. 다리와 부리는 오렌지색임.
 - 체질이 강건하고 다른 품종에 비해 비육이 잘 되는 편이며, 고기 맛도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흰색의 알을 1년 약 60개 정도 산란하며, 알의 무게는 77g 정도임. 어미 오리의 체중은 암컷이 3.6~4.1kg, 수컷이 4.0~4.5kg 정도임.
- 머스코비(Muscovy)
 - 남미가 원산으로 순화과정에서 체형이 커졌고, 색깔과 무늬가 선명해졌음. 육용 또는 애완용으로 사육되며, 다른 오리와는 달리 사향오리가 조상임.

- 특이한 몸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으로 체질이 강건하고 투쟁성이 강하며, 털색은 순백색과 흑록색에 흰털이 섞인 것이 있음. 어릴 때의 고기는 연하고 맛이 좋으나, 나이가 들면 질기고 나쁜 냄새가 남.
 - 부화 후 7개월부터 산란하기 시작하며, 알껍질의 색깔은 희고 부화기간은 35일로 다른 품종에 비해서 긴 편임. 성숙된 체중은 암컷이 2.5~3.4kg 정도이며, 수컷은 4.5~6.3kg 정도임.
 - 이 품종과 다른 품종의 오리과 교잡된 1대 잡종은 성장이 빠르고 냄새도 없으며 고기 맛도 좋으나, 번식능력은 떨어짐.
- 체리베리(Cherry Valley)
 - 체리베리는 영국의 체리베리 사가 육중한 육용오리의 브랜드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고 있음.
 - 체리베리 종오리는 건강하고 성장이 빠르며, 사료효율이 높고 도체 수율도 높은 것이 특징임.
 - 47일 사육일을 기준으로 체리베리의 생산성은 생체중 3.45kg, 사료 요구율 2.29kg, 육성을 97% 수준임.

다. 난육겸용종

- 페킨종(Pekin)
 - 중국이 원산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개량되어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사육되고 있는 난육겸용종의 대표적인 품종임.
 - 털색은 몸통 전체가 백색이나 속 털은 담황색이며, 부리와 다리는 밝은 오렌지색을 띰.
 - 체질이 강건하고 비육이 잘 되므로 육용오리 개량에 종자로 많이 이용되고 있음. 성질이 온순하여 대군(大群) 사육에 적합하며, 고기의 맛과 질이 좋고 오리고기 특유의 냄새도 적음.
 - 난육겸용종은 성성숙에 이르기 전의 것은 육용으로 이용하고, 성성숙 이후에는

종자 또는 산란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음.

- 부화 후 5~6개월이면 산란을 하는데, 알껍질의 색깔은 흰 바탕에 약간 푸른 빛을 띄며, 80g 정도의 알을 1년에 150~160개 정도 산란함.
- 체중은 암컷이 3.6kg, 수컷이 3.9kg 정도로 난용종과 육용종의 중간 크기이나, 폐킨종을 종자로 이용하여 육중한 육용종은 체구가 크고 발육도 빨라, 현재 전 세계에서 오리고기 생산용으로 많이 사육되고 있음.

● 오핑톤 종(Orpington)

- 영국에서 난육겸용 목적으로 인디안 러너, 르왕, 에일스버리 등의 품종을 교잡하여 만들어 깃털이 아름다우며, 알도 잘 낳고 육질도 우수하여 인기가 있던 품종임.
- 외형은 상체가 약간 들러있는 모습이고, 수컷의 꼬리 깃털 2~3개는 위로 말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산란중 암컷의 아랫배는 거의 지면에 닿을 정도임.
- 수컷의 깃털은 몸 전체가 붉고 누르스름하며, 머리와 목은 밝은 윤이 나는 갈색을 띠고 몸통에는 무늬가 없음. 부리는 오렌지색에 검은 무늬가 있고 다리와 발은 밝은 오렌지색 또는 붉은 색을 띰.
- 성숙시 체중은 수컷이 2.25~3.4kg 정도이고, 암컷 2.25~3.2kg 정도로 암수의 체중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음.

1.3. 오리의 생산과정

- PS(종오리)는 주로 영국과 프랑스에서 수입되며, 육용 종계와 생산 주기가 동일함. 종오리는 1일령에 수입된 후 25~26주의 육추기, 육성기, 산란전기를 거침. 이후, 산란기를 통해 종란을 채취한 다음 부화장에서 부화기간 28일 정도 거친 후 사육 농장에 분양됨. 분양된 육용 오리는 40~50일 동안 농장에서 비육한 후 시장에 출하됨.
- 육용 오리 생산과 육계 생산 과정을 비교해보면, 종오리와 종계(PS)의 종란 생산

과정은 같으나, 부화과정에서 오리가 약 1주일 늦게 부화함. 출하시점까지의 사육 일수에서도 현저한 차이(최소 5일~최대 15일)를 보임.

【 육용 오리 생산 주기】



2. 오리 생산 현황

2.1. 사육규모 변화 및 생산액 변화

- 1990년대에는 오리 사육수수가 연평균 34% 증가하였음. 1991년 1백 40만수였던 사육수수는 1999년 4백 80만수에 달하였음. 이러한 증가세는 2000년대 들어 다소 둔화되었지만, 연평균 11%의 증가율은 유지하였음.
- 2008년 오리 사육수수는 2000년의 5백 만수보다 약 2배 증가한 970만수에 달함. 호당 사육수수는 1990년대 36% 증가율에서 2000년대 들어서는 연평균 19%로 증가율이 둔화됨.

- 호당 오리 사육수수는 2000년 395수에서 크게 증가하여 2008년에는 1,869수를 기록함. 오리 사육수수가 증가한 반면 사육호수는 감소하고 있어, 농가의 사육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 현재 국내 오리업계에서는 사육규모 2,000수를 기준으로 전업농과 부업농을 분류하고 있음. 2,000수 이상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가 사육하는 마리수가 전체 사육수수에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에 89.4%까지 증가하였고, 반대로 2,000수 이하 농가에서 사육하는 사육수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연도별 사육수수 및 사육호수 】

단위: 호, 마리 수

	2004	2005	2006	2007	2008
사육가구(호)수	8,485	8,921	8,456	7,184	5,192
사육마리(수)수	8,265,580	8,388,747	9,386,190	10,513,308	9,702,215

주: 농림수산식품부, 「기타가축통계」 각연도.

- 2008년 오리 생산액은 1조를 초과함. 이는 2003년 4,595억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며, 전년도에 비해서도 2배에 가까운 성장을 한 것임. 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사육규모와 오리가격의 상승세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 연도별 생산액 】

단위: 천 만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생산액	45,950	46,370	64,900	64,800	58,240	115,440

주: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2009.

2.2. 지역별 사육현황

- 오리의 지역별 사육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지역에 사육밀도가 집중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전통적으로 주산지에서의 오리 소비가 왕성하였으며, 오리 농법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추정됨.

- 2008년을 기준으로 전남, 전북, 충북지역에서 전체 오리의 83.6% 이상이 사육되고 있음. 전남지역의 사육호수 비중은 전체의 15.8%에 불과하지만, 사육수수가 420만수 이상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함. 다음으로 전북의 오리 사육규모는 전체의 25.5%, 충북은 14.7%를 차지함.

【 지역별 사육수수 및 사육호수 】

단위: 호, 마리 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강원권	제주권	계
사육가구수	593	1,321	1,458	1,030	765	25	5,192
사육마리수	575,829	1,733,435	6,811,470	518,414	24,177	38,890	9,702,215

주: 농림수산식품부, 「기타가축통계」 2008년.

- 청둥오리라고도 불리우는 토종오리는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의 정착으로 사육수수가 증가되어 왔음. 이들의 경우 통계의 미비로 정확한 사육규모를 알 수 없지만, 일반 폐킨종 오리 사육물량의 10% 내외가 오리농법을 위한 새끼오리 생산과 오리알 판매 및 일부 육용오리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육용 목적으로 사육되는 토종오리의 대부분은 전남지역에서 사육되고 있음. 한편, 오리알 및 오리농법에 이용되는 새끼오리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오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충청도 일원에서 주로 사육되고 있음.

【 연도별 사육수수 및 사육호수 】

단위: 호, 마리 수

연도	사육수수	사육호수	호당 사육수수	2,000수 이상 사육호수(%)	2,000수 이상 호당 사육수수	2,000수 이상 비중(%)
2000	5,133,511	12,986	395	525(4.0)	8,805	90.0
2001	6,715,554	12,845	523	626(4.9)	10,072	93.9
2002	7,823,542	11,679	670	658(5.6)	11,306	95.0
2003	9,017,280	9,987	903	653(6.5)	13,324	96.5
2004	8,265,580	8,485	974	592(7.0)	13,558	97.0
2005	8,388,747	8,921	940	607(6.8)	13,393	97.0
2006	9,386,190	8,456	1,110	702(8.3)	13,024	97.4
2007	10,513,308	7,184	1,463	819(11.4)	12,478	97.2
2008.12	9,702,215	5,192	1,869	665(12.8)	13,043	89.4

주: 2,000수 이상 사육호수에서 팔호 안은 전체 사육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기타가축통계」 각 년도.

3. 오리 농가의 생산성 및 수익성

3.1. 생산성

- 국내 오리산업의 생산성은 PS 종자오리로의 교체가 시작된 시점인 2004년을 전후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는 오리 폐사율 하락과 종란 부화율의 현저한 향상에 기인함.
 - 육용 오리의 경우 출하일령이 계절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표준화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특히 오리 출하시 가격이 약세일 경우 농가는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경향이 있어, 가격에 따라 출하일령과 생산성이 다르게 나타남.
 - 계절별 평균 출하일령을 살펴보면, 봄의 경우 38~40일, 여름 45~50일, 겨울 43일로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생산성 저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

3.2.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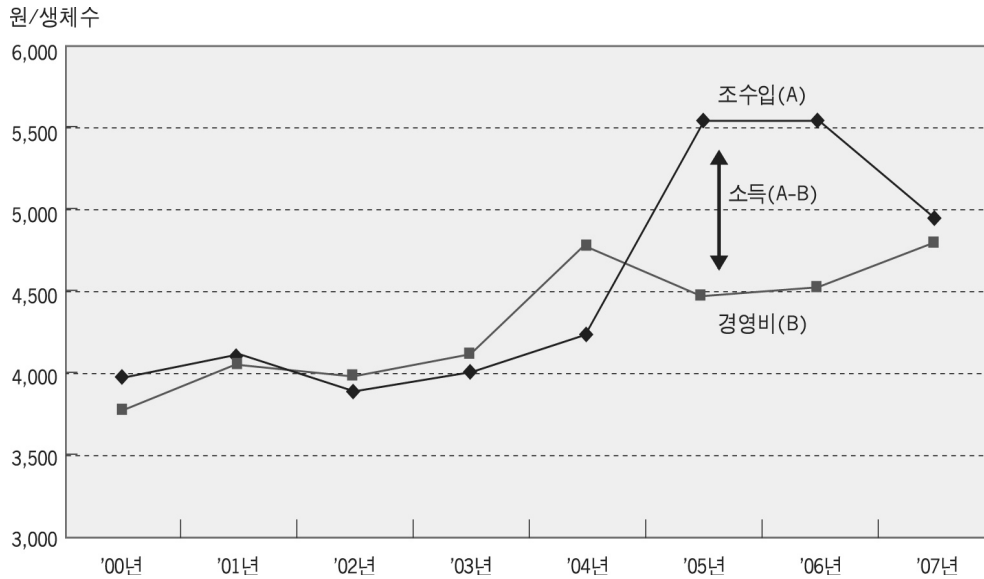
- 2004년에는 HPAI 발생으로 오리 소비가 크게 감소한 반면 새끼오리 가격과 사료비가 상승하면서, 2004년 수당 소득이 부(負)의 수치인 -529원을 기록하였음.
- 이후 HP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면서, 2005년에는 오리 소비가 증가하여 조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음. 특히 2005년에는 경영비가 다소 감소하여 오리 수당 소득이 사상 최고치인 1,081원을 기록하였음. 이러한 경향은 2006년 1,028원으로 이어졌음.
- 그러나 2008년의 경우 HPAI가 재발하면서 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됨. 2009년 중반 이후에는 오리 고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되어,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연도별 오리 생산성 비교 】

년도	출하일령(일)	출하체중(kg)	사료요구율	폐사율(%)	부화율(%)
2000	44	2.95	2.37	10	65
2001	46	2.96	2.36	10	65
2002	49	3.09	2.26	10	67
2003	47	3.10	2.25	10	67
2004	47	3.10	2.25	9	70
2005	42	2.97	2.25	8	70
2006	44	3.05	2.19	8	73
2007	44	3.10	2.19	7	75

주: 사료 요구율은 육용 오리 생체중 1kg 생산에 소요되는 사료양
자료: 한국오리협회 내부자료.

【 오리 수당 소득 변화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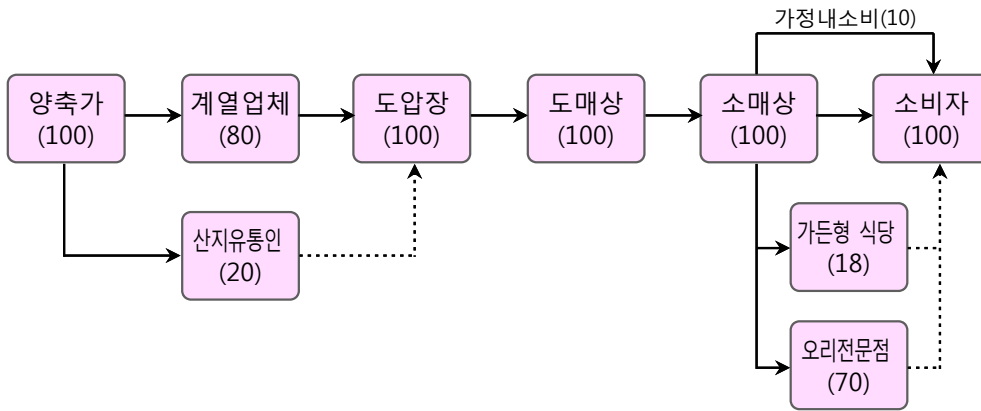
자료: 한국오리협회.

4. 오리 유통구조와 계열화 현황

4.1. 유통 경로

- 육용 오리는 육계와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계열화가 이루어져, 시장 유통물량의 약 80%를 계열업체가 차지하고 있음. 나머지 20%는 유사계열 등 산지 유통인이 담당하고 있음.
 - 계열업체와 산지 유통인이 수집한 오리는 도압장을 거쳐 도매상과 소매상을 경유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됨.
 - 산지 유통인의 오리 수집 물량도 계열업체의 도압장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도매상은 대부분 계열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소매단계에서는 가든, 오리 전문점의 소비가 전체의 88%를 차지하여, 소비의 외식 편중 현상이 강한 것이 특징임.

【 오리 유통 경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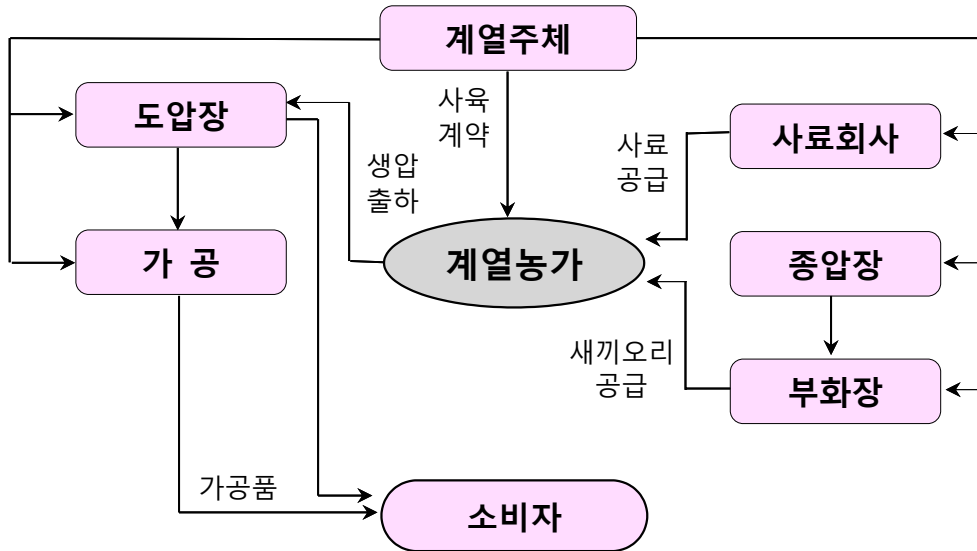
주: 소매상 단계에서의 비중(%)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조사 결과임.

자료: 우병준 외, 「오리, 꿀벌, 산양, 사슴 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4.2. 계열화 방법

- 새끼오리, 사료, 약품 등 생산자재를 계열업체가 사육농가에 공급해 주면, 농가는 소유하고 있는 사육시설과 기술 및 노동력을 이용하여 육용 오리가 일정한 체중에 도달할 때까지 사육을 담당함.
 - 사육농가는 사전에 정한 사육 수수료를 계열업체로부터 지급받으며, 사육된 오리는 계열업체가 인수하여 도압장에서 도축과정을 거쳐 오리고기로 상품화하고 있음.
 - 수수료 지급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뉨. 대부분의 계열업체는 사료 효율을 고려한 절대평가 방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만 농가의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상대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계열화에 있어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질 저하문제가 농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수료 지급방식에서 최저 지급액 보장에 대한 논의가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음.

【 오리 계열화 방법 】



3. 오리 수급 현황 및 가격 동향

3.1. 수급 현황

-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건강·보양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오리산업은 비약적인 성장을 하여 왔음.
 - 1994년 26,361톤이던 국내 생산량이 1997년 12월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제한 조치 이후 사육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0년에는 3배 증가한 79,821톤이 되었음.
- 2008년 국내 오리고기 소비내역을 보면, 국내 생산 214,565톤, 수입산 189톤, 수출 110톤으로 총 214,644톤이었음
 - 이는 2004년 소비량 97,270톤에 비해 54.7% 증가한 수준으로, 과거 HPAI 발생으로 감소했던 소비가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임.

- 2008년 국민 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은 4.42kg이며, 자급률은 99.9%로 나타남.
- 국내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오리고기 수입은 1996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임. 2006년 오리고기 수입량은 57톤으로 최소치를 기록하였고, 2007년에는 789톤으로 2006년보다 크게 증가하였음. 2008년 오리고기 수입량은 189톤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음. 이는 HPAI의 영향으로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2004년 이전까지 냉동 오리고기 수입은 주로 중국에서 이루어졌음. 2004년 말 이후 중국에서 HPAI가 발생하면서, 2007년부터 대만으로 전환되었음. 프랑스에서 수입되는 오리제품은 거위 및 오리의 간(푸아그라)이 호텔용으로 주로 수입되는 것임. 2008년 오리고기 수입 시장 점유율은 대만 78.9%, 미국 16.8%, 프랑스 4.3% 순임. 중국은 HPAI 상시 발생국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부터는 주로 열처리된 훈제 및 가공품이 수입되고 있음.
- 오리고기 수출은 매우 미미한 상태이나, 부산물 요리 수요가 높은 중국으로의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한편 2004년 오리의 해외 수출물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HPAI로 수매한 물량을 러시아로 수출하면서 발생한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됨.

【 연도별 오리고기 생산, 수입, 소비량 변화 】

단위: 톤(정육 기준)

연도	국내생산(A)	수입량(B)	수출량(C)	1인당 소비량(kg)
1994	26,361	3,323	8	0.66
1995	35,203	4,808	68	0.89
1996	43,894	7,971	160	1.14
1997	51,898	7,332	118	1.29
1998	54,460	2,171	34	1.22
1999	72,455	2,064	112	1.60
2000	79,821	3,764	221	1.77
2001	83,102	5,069	440	1.85
2002	106,866	1,131	620	2.25
2003	103,386	2,273	357	2.20
2004	98,201	519	1,450	2.02
2005	112,870	57	590	2.33
2006	105,275	59	361	2.17
2007	119,065	789	-	2.47
2008	214,565	189	110	4.4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3.1. 가격 동향

- 생체오리 가격은 3kg 기준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임. 2009년 이후 소비의 급증으로 가격 또한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평균 생체오리 가격의 변화 상황을 보면, 겨울철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여름철에 높게 형성되고 있음. 이는 오리고기가 소비자들에게 보양 음식으로 인식되어 복날을 전후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2010년 3월에 가격이 급등한 것은 새끼오리 부족에 따른 원가 상승이 산지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생체 오리 가격 동향 】

단위: 원/3kg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01	3,750	4,050	4,750	5,550	5,300	5,000	4,200	3,700	3,600	3,600	3,900	4,241	4,303
02	4,300	4,350	4,200	4,100	4,100	4,000	3,874	3,800	3,600	3,600	3,800	3,935	3,972
03	3,874	4,150	4,300	4,200	4,150	4,000	4,000	3,900	4,000	3,700	4,100	4,006	4,032
04	3,950	3,400	4,000	4,500	4,500	4,700	4,800	5,000	4,450	3,825	4,000	4,243	4,281
05	4,124	5,200	5,500	5,500	5,500	5,400	5,500	5,500	5,250	5,250	4,500	4,871	5,175
06	5,526	5,729	6,000	6,467	6,000	6,000	5,871	6,000	5,760	4,635	4,387	4,200	5,548
07	4,200	4,200	4,635	5,183	5,974	5,650	5,539	5,555	5,100	4,200	4,360	4,929	4,960
08	5,477	5,300	5,639	5,583	4,613	4,530	5,174	6,000	6,000	5,742	5,500	5,597	5,430
09	6,000	6,482	6,919	6,650	6,903	6,567	6,855	7,000	6,653	6,200	6,200	6,200	6,552
10	6,619	6,700	7,232	7,833	8,200	8,200	-	-	-	-	-	-	-
평균	4,782	4,956	5,318	5,557	5,524	5,405	5,090	5,162	4,935	4,528	4,527	4,691	-

자료: 한국오리협회

- 2kg 기준 신선육 가격 또한 여름철에 강세를 보이고 있음. 생체오리와의 가격 차이는 시기에 따라 크게 변하였지만 최근에는 1,00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신선육 가격 동향 】

단위: 원/2kg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06	6,371	6,661	7,000	7,467	7,000	7,000	6,871	7,000	6,643	5,635	5,387	5,200	6,520
07	5,200	5,200	5,635	6,200	6,974	6,650	6,539	6,555	6,100	5,200	5,360	5,929	5,962
08	6,477	6,300	6,638	6,583	6,300	6,300	6,548	7,000	7,000	6,742	6,500	6,597	6,582
09	7,000	7,482	7,919	7,650	7,903	7,567	7,855	8,000	7,653	7,200	7,200	7,200	7,552
10	7,619	7,700	8,232	8,833	9,200	9,200	-	-	-	-	-	-	-
평균	6,533	6,669	7,085	7,347	7,475	7,343	6,953	7,139	6,849	6,194	6,112	6,232	6,654

자료: 한국오리협회

- 생육은 평균 신선육 80%, 토치육(생육을 불에 그을려 만든 고기) 20%의 비중으로 생산되고 있음. 토치를 하게 되면 약 50g 정도 감량되고, 추가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신선육보다 200원 정도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음.
 - 도압시 확장작업으로 잔모를 제거하고 있지만, 과거 토치육의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어 일부 판매처에서 토치육 생산을 요구하는 있는 것이 현실임.
- 새끼오리 가격은 2007년도 중반부터 800~1,000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 3월부터 새끼오리 부족 현상으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 새끼오리 가격 동향 】

단위: 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01	600	700	900	1,200	1,000	950	400	450	500	500	500	550	688
02	750	800	700	600	550	430	300	350	513	600	350	600	545
03	600	650	700	650	600	600	563	487	600	600	500	700	604
04	600	600	675	700	712	800	850	800	670	600	650	700	696
05	675	800	1,000	1,100	1,100	1,045	835	750	880	900	833	700	885
06	906	1,264	1,300	1,300	1,300	1,300	1,058	1,000	1,000	1,000	880	800	1,092
07	864	1,000	1,039	1,200	1,280	1,240	897	800	800	800	800	800	960
08	800	800	825	900	900	900	900	900	900	848	800	800	856
09	800	893	1,194	1,12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1
10	1,000	1,000	1,155	1,227	1,400	1,400	-	-	-	-	-	-	-
평균	760	851	949	1000	984	967	756	726	763	761	701	739	814

자료: 한국오리협회

4. 오리 산업의 문제점

4.1. 생산단계

4.1.1. 국내 원종오리(GPS) 미보유

- 국내 원종오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종오리 수출국에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수출이 중단으로 국내 오리고기 수급에 큰 차질이 예상됨²⁾. 실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수급차질이 우려는 크게 높아져 있는 상태임.

4.1.2. 생산농가 관리 미비

- 국내에서 3차에 걸쳐 발생한 HPAI는 닭 농장은 물론이고 오리 농가에서도 발생하였음. 또한 오리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은 육계보다 규모화가 덜 진전되어 사육 시설이 영세한 농가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농가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임.

4.2. 유통 및 소비단계

4.2.1. 오리고기 소비의 외식 편중 심화

- 소매단계에서는 가든, 오리 전문점의 소비가 전체의 88%를 차지하여 소비의 외식 편중 현상이 심함³⁾. 가정내 오리고기 소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급식과 군납 등의 다양한 대량 소비처가 형성되지 못할 경우 오리고기 소비량 증가는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음.

2) 실제로 2005년 유럽 전역에 HPAI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 산란 종계(PS) 수입이 예정보다 지연된 사례가 있다.

3) 200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조사 결과, 오리고기 소비 장소로 오리 전문점(70%)과 가든형 식당(18%)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가정 내 소비는 10%에 불과하였다.

4.2.2. 외국산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 유통

- 외국산 냉동 오리고기는 국내산과 비교하여 품질과 맛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그렇지만 가든형 식당, 오리고기 전문점 등에서 외국산 냉동 오리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될 경우, 소비자의 신뢰가 무너져 오리 소비가 크게 위축될 수 있음.

4.2.3. 오리고기 비수기 소비 위축 심화

- 월별 도매 실적에 이용한 소비지수를 살펴보면, 오리고기도 닭고기와 같이 여름철 수요가 집중되는 식품이므로 비수기에는 과잉생산의 부담이 있음. 월별 소비지수를 바탕으로 2009년 기준 5월 이전에는 연평균 도매실적 기준(100)보다 감소하며, 특히 7월부터 8월까지 평균 26.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월별 소비(도매) 지수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비 지수	54.3	55.8	74.0	88.2	106.4	122.8	130.8	121.6	119.2	105.0	101.2	120.6
비고							초복 중복	말복				

주: 도매된 오리가 모두 소비된다는 가정 하에 소비지수는 2009년 월평균 도매수수를 100으로 설정함.

4.3. 오리 관련 통계 부족

- 오리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관련 통계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사육 수수와 생산량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되고 있지만, 주기가 1년 단위로 공표되어 적시에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음.
 - 이외의 자료들은 대부분 한국오리협회에서 발표되고 있지만, 부정확하거나 불확실한 자료가 다수임.
 - 일례로 배합사료 생산량 자료는 품목별 정의가 확실하지 않아, 오리 농가조차도 혼돈을 겪는 것이 현실임.

5. 오리 산업 발전 방안

5.1. 오리 산업 SWOT 분석

5.1.1. 오리산업의 강점과 기회요인

- 오리고기는 불포화지방산이 함유된 건강·다이어트 식품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소비자의 오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또한, 참살이(Well-bein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조사 결과 소비의향 또한 높게 나타났음.⁴⁾
 - 이는 오리 산업의 향후 성장 여지가 매우 높다는 것을 나타내며, 또한 지속적인 오리 산업 계열화로 생산기반이 확대되고 있는 것 또한 강점으로 들 수 있음.

5.1.2. 오리산업의 약점과 위협요인

- 오리산업의 다양한 강점과 기회요인에도 불구하고, 또한 다양한 약점과 위협요소가 내재해 있음.
 - 원종오리(GPS) 미보유, 종오리 및 오리 생산농가 관리 미비, 소비의 외식 편중 심화, 오리 관련 통계 부족 등은 오리 산업의 대표적인 약점으로 정리할 수 있음.
 - GPS 보유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있으나, 대부분의 요인에 있어 현실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특히 HPAI 발생 상시화 가능성,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 심화 등은 오리 산업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4) 200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499명중 오리고기를 싫어한다는 응답자는 35명(7.0%)에 불과하며, 응답자의 391명(77.4%)이 향후 오리 고기 소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거나 늘리겠다고 응답하였다.

5.2. 오리 산업 발전방안

5.2.1. 생산단계

가. 국내 원종오리(GPS) 도입 사업 추진

- 국내 오리업계에 안정적인 병아리 공급과 사육의 안정을 도모하고 저렴하고 품질 좋은 종오리(PS)를 공급하기 위해 현재 한국오리협회를 중심으로 원종오리(GPS) 도입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 원종오리의 도입은 향후 사육농가와 계열업체의 경영 개선 및 수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기존 종오리 수입의 대체효과와 수입·통관·검역 등의 제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음.

나. HPAI 대비 상시 방역체계 구축 필요

- 오리고기에 대한 소비자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7.2%(235명)가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구축이 오리업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응답하였음.
 - 우리나라는 지난 3차에 걸친 HPAI 발생으로 직·간접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였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이 필요함.

【 오리 산업에 대한 SWOT 분석 】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건강-다이어트 식품 인기 ● 높은 계열화 정도	● 원종오리(GPS) 미보유 ● 종오리 및 오리 생산농가 관리 미비 ● 소비의 외식 편중 심화 ● 오리 관련 통계 부족
기회요인(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
● Well-being에 대한 관심 증가	● HPAI 발생 상시화 가능성 ●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 심화

- 특히 방사 오리에 대한 특별관리 감독체계 설정 등 오리 특성에 적합한 방역 체계 구축은 소비자 신뢰 회복의 선결조건임. 이를 위해서 사육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 관리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

다. 종자오리 체계적 관리 필요

- 2008년 11월 현재 전국 30여개 종오리장(부화장)에서 약 26만 수의 종오리가 사육 중임. 6,000여 농가에서 800여 만 수의 실용오리를 사육 중에 있지만, 실용오리의 종오리 이용 등으로 인해 생산 수수 예측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종오리 등록 제도의 경우 질병 예방관리와 경제능력 평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므로, 현재 추진 중인 제도의 조기 실시가 요구되는 시점임.
 - 가금수급안정위원회(한국오리협회)에서 종오리 DB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종오리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사육 및 공급, 질병 발생 동향 등의 파악이 가능함.
 -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수급 예측시스템 가동으로 수급조절 기능의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5.2.2 유통 단계

가. 소비 촉진을 위한 오리 자조금 조성 사업 필요

- 소비자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4%(391명)가 향후 오리고기 소비를 유지하거나 늘리겠다고 응답하였음⁵⁾.
 - 오리고기를 보양식에 그치지 않고 대중적인 식육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조금 조성사업의 추진을 통한 오리고기 소비촉진 홍보와 제품 개발 연구 사업에의 투자가 절실히 요구됨.
 - 현재까지의 소비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향후 오리 시장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수요 창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으로 이루어져야 함.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조사, 2008.

- 소비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오리고기 선호 요리의 대부분이 훈제(46.2%)와 구이(37.3%)로 편중되어 있으며, 기타는 탕, 전골, 찜 등으로 16.5%를 차지함.
- 오리의 경우도 쇠고기 등심이나 돼지 삼겹살과 같이 가정 내에서 구이용으로 손쉽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과 배달 중심의 통닭과 같은 신규수요 창출 등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요 축종들의 소비 행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
- 오리의 경우 보신용이라는 한정된 시장에서 탈피하고 상시 섭취가 가능하게 될 경우 HPAI가 발생하더라도 낮은 수요 탄력성을 바탕으로 현재보다는 소비 변화가 덜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판단됨.
- 오리업계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조금 조성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진행이 더딘 경향이 있음.

나. 포장유통 의무화로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

- 오리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유통과정에서의 외국 산과의 구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작업장 명칭 등의 표기를 바탕으로 하는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포장유통 의무화의 경우 현재 1일 도축두수 5만수 이상 도축장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또한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가든형 식당과 오리 전문 음식점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화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다. 오리고기 수출 기반 확대 노력

- 오리 고기의 계절적 국내 수요편중 현상을 고려하여 해외수출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수출 촉진사업을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중점사업으로 정례화하여야 함.
 - 여름철 수요 집중 뒤에 오리고기 비수기인 9월 이후에 가슴살과 다리부위 위주로 일본에 수출되고 있으나, 낮은 현지에서의 제품인지도로 수출이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음.
 - 따라서 다양한 현지 프로모션 및 바이어 초청 행사실시,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

등의 지속 수행으로 수출기반을 확대하여야 하며, 특히 부산물 요리 중심인 중국으로의 수출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5.2.3. 기타 사항

가. 오리관측으로 수급 안정 도모 필요

- 최근 오리 산업의 외형적 성장으로 국내 축산업에서 한육우, 젓소, 돼지, 닭에 이어 5대 축종으로 부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열업체와 농가의 수급 예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오리 산업의 경우 종오리 수입수수, 육용오리 생산수수, 생산 잠재력 추이 등을 추정하면 수급 안정 도모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나. 농가와 계열업체의 관계에 대한 논의 필요

- 오리 농가의 계약사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 계열업체와의 일방적인 종속관계 특히, 수수료 지급방식에 대한 불만이 많음.
 - 수수료 지급방식과 정산 지연 등 농가와 계열업체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다. 표준축사 설계도 제공

- 오리축사는 임의 또는 닭 축사의 설계도를 원용하여 이용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표준축사가 아니기 때문에 약품 및 시설개보수 등의 정책적 지원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표준축사 설계도 도입과 제공으로 농가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6. 참고 문헌

- 김명환 외. 2008. 「농업부문 전망모형 구축 연구(2/2차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주 외. 2005. 「오리 및 오리고기의 생산·유통·소비구조에 대한 조사연구」. 농림부.
- 농림부. 2008-2000. 「기타가축통계」.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8. 「축산물가격 및 수급자료」.
- 농수축산신문사. 2008. 「한국축산연감」.
- 박민수 외. 2000. 「기타가축의 사육실태와 경영성과」. 농촌진흥청.
- 우병준 외. 2008. 「오리, 꿀벌, 산양 및 사슴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석호 외. 2010. 「중기선행관측 기본모형 개발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특별 주제 3】

천일염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¹⁾

한 재 환*, 최 병 옥**

1. 서론

- 천일염은 1963년 “염관리법” 제정 이후 45년간 광물로 분류됨. 2007년 11월 천일염의 식용 허용을 위한 “염관리법”이 개정되어 2008년 3월에 발효됨.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3월에 식품산업 일원화 차원에서 소금산업 관리업무를 지식경제부로부터 이관받아 “염업조합법”과 “염관리법”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함.
- 외국산 천일염에 비해 국내산은 염화나트륨 함량이 낮고 미네랄(칼륨, 칼슘, 마그네슘) 함량이 풍부하여 부가가치 창출이 용이함. 그러나 국내산 천일염은 프랑스의 ‘게랑드’, 호주, 멕시코, 일본 등 외국산보다 우수한 품질임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 국내외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음.
- 천일염의 개별 생산자 규모를 살펴보면 1996년 허가업체당 평균 경영면적이 6.1ha이던 것이 정부의 구조조정 이후인 2007년에는 3.7ha로 줄어들음. 생산자 조직화 미흡 및 조직원의 결속 약화는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천일염의 시장경쟁력 제고와 생산자의 소득증대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유통 및 가공부문에서 효율적인 유통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천일염 판매의 대부분은 대규모 상인이나 직거래에 의존하고 있음. 또한 중국산 소금이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 판매되어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1) 이 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천일염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한재환, 최병옥 2010)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여 작성하였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jhhan@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bochoi@krei.re.kr)

- 천일염 산업을 구성하는 생산·유통·가공·소비·수입 등의 현황이 체계적으로 파악되지 않아 천일염 산업 발전을 위해 적합한 추진구조를 확립하는 데 한계가 있음. 국내산 천일염이 명품 천일염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식품으로서 안전성을 확립하고, 각 부문별 적정 추진체계를 확립·연계하여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함.
- 천일염이 식품으로 전환되면서 천일염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한 관련법령정비, 생산자 관련 조직 육성, 생산시설의 안전관리, 유통의 효율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육성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 이 연구에서는 천일염산업 발전을 위해 생산, 유통부문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음.

2. 소금 관련 법령

2.1. 소금의 정의와 종류

- “염관리법”에서 소금은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40 이상 함유(含有)한 결정체(이하 “결정체(결정체)염”이라 한다)와 함수²⁾를 말한다’로, 염전은 ‘염을 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발지(自然蒸發地)를 가진 지면(地面)을 말한다’로 정의됨. 동법은 소금을 천일염, 기계염(‘천일식 기계제법’으로 염제조), 정제염(‘이온 교환 막식 기계제법’으로 염제조), 재제조염, 가공염 등 5개의 소금으로 구분함.
- 한편, 식품공전은 식염의 유형을 천일염, 재제조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가공소금 등으로 분류함. “염관리법”은 천일염을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 “식품공전”은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로 규정하고 있음.

2) “염관리법”은 함수를 ‘그 함유 고형분(固形分) 중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e :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상의 비중(比重)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로 정의함.

2.2. 소금 관련 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통합하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과 “수산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산관련 내용을 농업·농촌 관련 부분에 추가함.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소금 관련 내용으로 제3조에서 어업을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동법은 어업인을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고시인 ‘식품공전’ 제1권 5장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의 29(‘기타 식품류’)의 12에는 식염을 ‘해수나 암염 등으로부터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를 재처리하거나 가공한 것 또는 해수를 결정화하거나 정제·결정화한 것을 말한다’로 정의하여 천일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식품유형’에서 천일염은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를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11개 항목에 걸쳐 천일염의 규격을 정하고 있음.
- 1963년에 제정된 “염관리법”의 목적은 소금산업의 구조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소금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임. 2007년 개정된 “염관리법”은 제2조에서 천일염을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음. 동법 제25조 ‘식용염에 대한 특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염으로서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으로 정하여진 염에 대하여는 제10조의3(품질표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여 천일염에 식용소금의 지위를 부여함.
- “염업조합법”은 제2조에서 ‘염업’을 ‘염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염 또는 함수를 제조하거나 염을 재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음. ‘염제조업자’란 “염관리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염제조업자, ‘조합’이란 “염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염업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음.

3. 국내 천일염 수급현황

3.1. 생산

- 2008년 국내 천일염 생산에 허가된 면적은 4,649ha이지만, 휴업면적 871ha를 제외하면 실제 생산면적은 3,778ha이며 생산량은 384,304톤임. 2008년 생산량은 기상 조건 양호로 2007년에 비해 88,196톤이 증가함.

【천일염 전국 생산 현황】

단위: ha, 개, 톤

구 분	면적			업체		생산량		재고량
	허가 면적	생산 면적	휴업 면적	업체 수	생산 면적	2007년	2008년	
전국(A)	4,649	3,778	871	1,268	1,104	296,108	384,304	45,830
전남(B)	3,330	3,007	323	1,134	1,000	258,353	337,754	34,800
비율 (B/A)	71.6%	79.6%	37.1%	89.4%	90.6%	87.2%	87.9%	75.9%

자료 : 대한염업조합

- 국내 천일염 생산면적 중 전남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79.6%(3,007ha)에 달하며, 천일염 생산업체도 전남지역에 89.4%가 집중되어 있음. 천일염 생산은 전남 목포 인근 도서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남지역 허가면적이 3,330ha로 전국 허가면적의 71.6%를 점하고 있음.
- 천일염 생산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로 생산비의 50.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인건비에 복리후생비를 포함한다면 생산비 중 52.2%가 인건비임. 그 다음으로 임대료, 포장비, 감가상각비 등임.

【전남 신안군 천일염 생산 원가 내역(3ha 기준)】

단위 : 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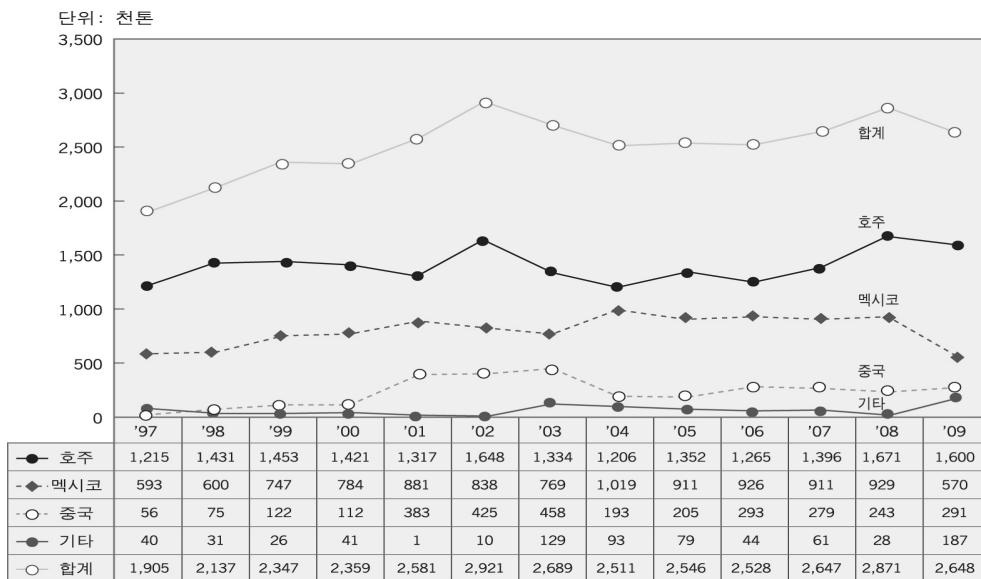
구 분	금 액	비율	산정기준
인건비	47,000	50.9	○ 종사원 : 3명(상시직 2명, 채염부 1명) 종사 기준 ○ 상시직 : 일당(70,000) × 월근무일수(30일) × 지급월수(10개월) × 2명 = 42,000,000원 ○ 채염부 : 일당(50,000원)×지급일수(100일) = 5,000,000원 ○ 인건비 소계 = 47,000,000원
복리후생비	1,200	1.3	○ 간식비=1,200,000원 - 근로자수(3) × 채염일수(100일) × 4,000원 = 1,200,000원
감가상각비	5,424	5.9	○ 결정지 장판(6년)=3,300,000원 ○ 양수기(5년)×6대=324,000원 ○ 창고(15년)×1동=1,800,000원 ○ 합계: 5,424,000원
포 장 비	5,400	5.8	○ PP포대(300원)×생산량(30kg) ○ 포대작업비(300원)×생산량(30kg)
검사수수료	240	0.3	○ 1회당 120,000원×연 2회=240,000원
소모품비	1,800	1.9	○ 1ha 당 600,000원×3ha=1,800,000원
수선유지비	1,500	1.6	○ 객토 : 1ha 당 200,000원×3ha=600,000원 ○ 기타 : 1ha 당 300,000원×3ha=900,000원
전기 및 유류비	500	0.5	○ 연간 500,000원
임대료	29,250	31.7	○ 연간 29,250천원
소 계	92,314	100.0	

자료: 현장조사결과, 동국대 '식품·외식업체·일반소비자 천일염 사용실태조사'(2009) 참조

3.2. 수입

- 천일염 수입은 2002년에 2,921천톤의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2009년 수입량은 2008년 대비 7.8% 감소하였지만 2007년과 비슷한 수준인 2,648천톤 임. 지난 13년간 천일염 수입은 연평균 2.7% 증가함.
- 호주, 멕시코, 중국이 천일염의 주요 수출국이며, 이들 국가들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3%, -0.3%, 17.9%임. 1997년 3국의 수입비중은 호주 63.8%, 멕시코 31.1%, 중국 2.9% 비중이었지만, 2009년에는 각각 60.4%, 21.5%, 11.0%로 호주와 멕시코와 비중은 낮아진 반면 중국 비중은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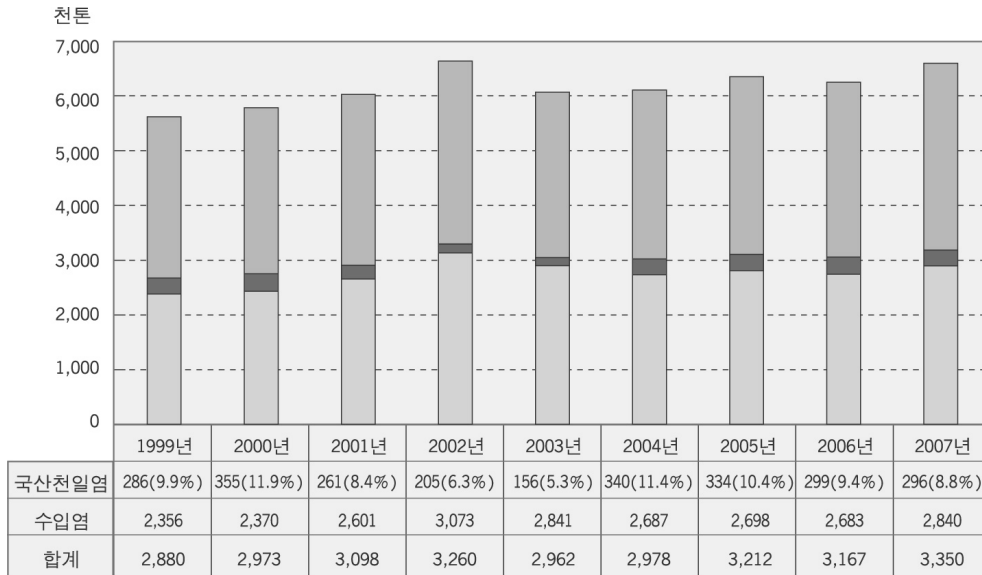
【원산국별 천일염 수입 추이】



자료: 관세청

- 1997년 소금 수입자유화 대응조치로 정부의 폐전지원 사업이 추진되어 2000년 초반까지 국내산 천일염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국내 소금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은 1999년에 2,880천톤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국내 소금시장에서 국내산 천일염의 점유율은 약 10% 내외임.

【국내산 천일염 시장 점유율 추이】



자료: 관세청, 대한염업조합

3.3. 천일염 시장규모

- 국내생산염은 1999년 517천 톤에서 2003년 262천 톤까지 감소하였지만, 2003년 이후 증가추세로 반전되어 2007년 495천 톤임. 1997년 소금수입자유화 조치 실행으로 국내 천일염 생산량은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4년부터 약 300천톤 수준으로 증가함.

【천일염 공급 및 소비】

단위: 천 톤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공급	국내생산염(A)	517	596	501	328	262	455	507	473	495
	천일염	286	355	261	205	156	340	334	299	324
	기계염	231	241	240	123	106	115	173	174	171
	수입염(B)	2,347	2,358	2,581	2,921	2,692	2,514	2,698	2,683	2,841
	부산물염(C)	16	19	16	11	8	9	7	11	14
	합계(A+B+C)	2,880	2,973	3,098	3,260	2,962	2,978	3,212	3,167	3,350
	(A)/(B)	22.0%	25.3%	19.4%	11.2%	9.7%	18.1%	18.8%	17.6%	17.4%
소비	식용염(A)	611	599	553	482	607	555	622	568	627
	천일염	446	432	381	343	547	480	507	470	486
	기계염	165	167	172	139	60	75	115	98	141
	공업용염(B)	2,251	2,280	2,543	2,432	2,681	2,356	2,552	2,599	2,776
	천일염	2,152	2,218	2,446	2,363	2,635	2,304	2,494	2,523	2,693
	기계염	99	62	97	69	46	52	58	76	83
	합 계	2,862	2,879	3,096	2,914	3,288	2,911	3,174	3,167	3,403
	(A)/(B)	27.1%	26.3%	21.7%	19.8%	22.6%	23.6%	24.4%	21.9%	22.6%

주: 공업용염 중 천일염이 사용되는 것은 수입염이 대다수로서, 대부분 중국과 호주에서 수입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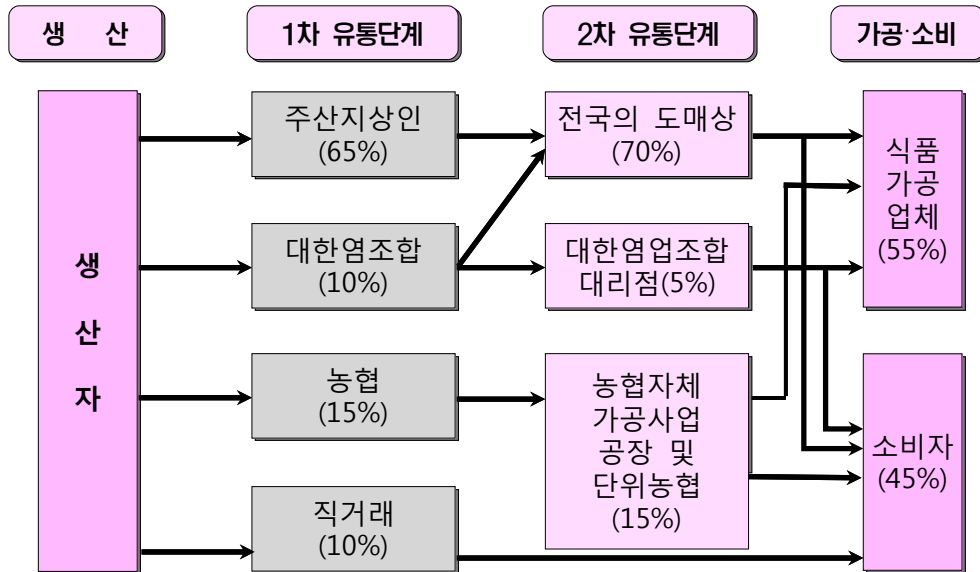
자료: 대한염업조합

- 국내에서 소비되는 식용소금의 시장 규모는 1999년 611천 톤에서 2007년 627천 톤으로 큰 수요량 변화 없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 국내 식용소금시장에서는 기계염 시장규모보다 천일염 시장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천일염에 대한 소비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4. 천일염 유통 현황

- 천일염 유통은 일반적으로 도매상을 통한 유통경로, 농협을 통한 유통경로, ‘생산자-소비자’ 직거래와 대한염업조합을 통한 유통경로로 구분할 수 있음.
- 천일염은 도매상을 통한 유통경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적 유통경로는 「생산자 → 주산지 상인(도매상) → 전국의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로 이어짐.

【천일염 유통경로】



자료: 대한염업조합과 주산지 상인 면담조사 결과

4. 천일염산업의 문제점

4.1. 법령의 미정비

- 천일염이 식품으로 분류되었음에도 천일염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염관리법”은 제정목적을 ‘염산업의 구조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염산업의 건전한.....’로 밝힘으로써 1차적인 법의 목적이 구조개선임을 명시하고 있음. 동법은 염제조업의 허가·지위승계, 품질검사, 품질표시 등으로 주 내용이 구성되어 품질관리와 천일염 산업의 육성에 대한 사항은 배제되어 있음. “염업조합법”의 경우, 천일염 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한 조합의 생산적인 기능 강화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음.
- 천일염 생산은 기후 등 자연환경에 대한 의존성이 커서 자연재해에 따른 대응이

제도·법률적으로 확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생산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음.

4.2. 생산부문

4.2.1. 생산업체의 영세성 및 높은 임차비율

- 천일염 생산업체의 평균 생산면적은 4.1ha이지만 전라남도는 3.1ha, 신안군 2.7ha, 신의면 2.3ha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전국 평균 면적 이하 염전비율은 79.7%로 나타남(농림수산식품부).
- 주산지 조사 결과, 신안군의 경우 염전을 직접 경작하지 않고 고령화 등의 이유로 임대하는 비율이 40.9%이고, 영광군 같은 경우는 직접 경작하는 면적보다 임차업체가 더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됨.

4.2.2. 노동력 부족과 높은 인건비

- 천일염은 생산 및 포장·선별과정에서 기계화 및 선별시설이 확충되지 않아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전체 생산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여타 다른 농산물에 비하여 인력문제 해결이 시급함.
- 그러나 과거부터 사회적으로 염전 노동자 인식이 좋지 않아 생산자 고령화가 진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계자 양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4.2.3. 생산시설 열악

- 생산시설이 위생적이어야 하며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전근대적 생산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함. 현장조사 결과 천일염 함수창고(해주)와

창고의 지붕이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자재로 되어 있어 식품으로서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은 다양한 화학물질과 먼지를 발생시켜 염전을 오염시킬 수 있음. 새로운 슬레이트로 교체되어도 철거된 슬레이트가 염전 주변에 널려있어 위생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4.3. 유통부문

4.3.1. 복잡한 유통 단계

- 천일염의 복잡한 유통구조와 가격결정의 불투명화로 인해 생산자는 적절한 가격을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생산지에서 주산지 도매상에 유통될 때 운송료를 제외한 약 1,500원의 마진이 발생하고 소매상으로 유통될 때 다시 약 1,000원의 마진이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됨. 수입염의 경우도 도매상에 유통될 때 약 600원의 마진과 소매상으로 유통될 때 약 3,000원의 마진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수입염의 소매상 마진이 컸음.

4.3.2. 유통과정에서 둔갑판매

- 국내 천일염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수입염 및 천일염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어 일부 생산자 및 상인들에 의해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둔갑판매가 성행한다는 것임. 천일염 유통과정에서 둔갑판매는 소비자 신뢰를 잃어 버릴 뿐만 아니라 국산 천일염 부가가치 창출 및 시장가격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4.3.3. 산지유통시설 기반 미흡

- 천일염은 대부분 영세 규모의 생산자가 생산하고 염전에서 포대에 담기 때문에

이물질 함유가 많고 포대갈이의 위험성이 높아 식품업계에서는 사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므로 한곳에 수집하여 선별·포장·저장·출하·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산지 종합처리장(Salt Processing Complex) 설립이 필요함.

4.3.4. 조직화 미비로 시장대응 능력 열위

- 천일염 생산자 조직은 영세규모의 작목반과 일부 영농조합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고품질 천일염 생산기술 지도 및 보급, 출하량 및 물량조절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천일염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은 내부규약이나 협약이 존재하지 않아 생산자에 대한 통제능력이 없어 체계적인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히 친목을 위한 모임에 그치고 있음.

5. 천일염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5.1. 관련 법령 정비

- 천일염 산업을 진흥·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염관리법”의 경우, 소금의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천일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구축되어 있지 못함. 그러므로 천일염 산업의 체계적 관리와 육성을 위한 내용을 기존의 법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염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그리고 “농산물품질관리법” 중에 천일염의 생산, 유통 등 품질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임. 품질관리 이외의 내용은 “식품산업진흥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자연재해로부터 천일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립하고, 생산자들에게 적절한 보상 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해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천일염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함.

5.2. 생산부문

5.2.1. 위생관리 시스템 구축

- 천일염이 식품으로 취급되면서 위생적 생산시설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 현재 대부분의 천일염 생산이 위생적·환경적 측면에서 취약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생산기반 시설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식품유통업체, 소비자 등에게 안전성에 관한 신뢰를 줄 수 없을 것임.
-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규정은 국내 및 해외에서도 까다롭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적합한 안전성 관리 시스템을 확보하여 천일염의 위생적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임. 천일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생산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생산장비(염전 주변 환경, 염전 바닥재를 포함한 생산재, 해주창고, 가공시설, 저장창고 등), 그리고 가공과정에서 위생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5.2.2. 생산시설의 개선 및 생산과정 정립

- 결정지나 채염지에서 환경호르몬 배출, 보관창고를 포함한 생산기반시설에서 기준 미달정은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임. 식용천일염 생산을 위해서 식용규격에 적합한 생산환경 조성과 생산시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천일염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전근대적인 생산방식을 지양하고 표준화된 생산과정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현장조사에 의하면 생산에 대한 표준지침이 존재하지 않아 생산자 각자의 방법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는 식품의 품질관리 측면에서 심각한 제약요인이 될 수 있음.

5.2.3. 고품질 천일염 생산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

- 결정지의 바닥 재료는 장판염, 고품질인 토판염, 함초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 가운데 식품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장판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천일염 생산 중 장판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7% 정도이고 함초염 2.4%, 토판염 0.4%인 것으로 파악됨.

- 고품질 생산체제로 생산된 함초염, 토판염과 같은 경우는 장판염 가격에 비하여 약 10배 이상 가격이 높지만, 표준화된 생산방식이 없고 생산자 개별적인 방식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천일염의 고품질 생산방식을 확립하고 표준화된 기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함초염, 토판염 등 고품질 천일염에 대해서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생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5.2.4. 천일염 후계자 양성

- 천일염 생산이 노동집약적인 것에 비해 후계인력 육성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책개발이 시급함. 관계기관은 천일염 인력육성의 중·장기 방안을 수립하여 천일염 생산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직업의식을 고취시키고 긍지를 느끼면서 천일염 생산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 조성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임.

5.3. 유통부문

5.3.1. 생산자 조직의 육성

- 천일염 생산자 조직 중 조직화를 바탕으로 생산·가공·유통 판매를 희망하는 작목반 및 영농조합 법인을 지역별·거점별로 육성하여 산지유통조직의 기반을 구축하여야 함.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 단위의 천일염 산지유통조직은 선별기, 간이 집하장, 공동 보관창고 등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여 실적이 우수한 산지유통조직에게 차등 지원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5.3.2. 산지유통시설 확충과 유통구조 개선

- 천일염은 생산자와 주산지 상인의 협상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가격 결정 과정에 생산자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임. 산지종합처리장은 주산지 상인과 거래하기 보다는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서 출하를 조절하여 농가수취가격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산지종합처리장 건립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천일염 유통이 산지종합처리장 체계로 정착되어 거래교섭력을 높이고,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의 물량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수요처(소비자 유통업체 및 식품기업 등)와 직거래를 정착시켜 유통단계 축소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5.3.2. 천일염의 통합관리 시스템(포대관리, 품질관리, 원산지 표시제, 이력추적제) 도입

- 천일염은 품질표시가 실시되지 않아 등급별 가격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포대관리, 원산지 표시, 이력 추적제 등이 확립되지 않아 둔갑판매가 용이한 단점이 있음. 천일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품질 표시제를 바탕으로 한 포대관리, 원산지 표시, 이력 추적제를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일괄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임.